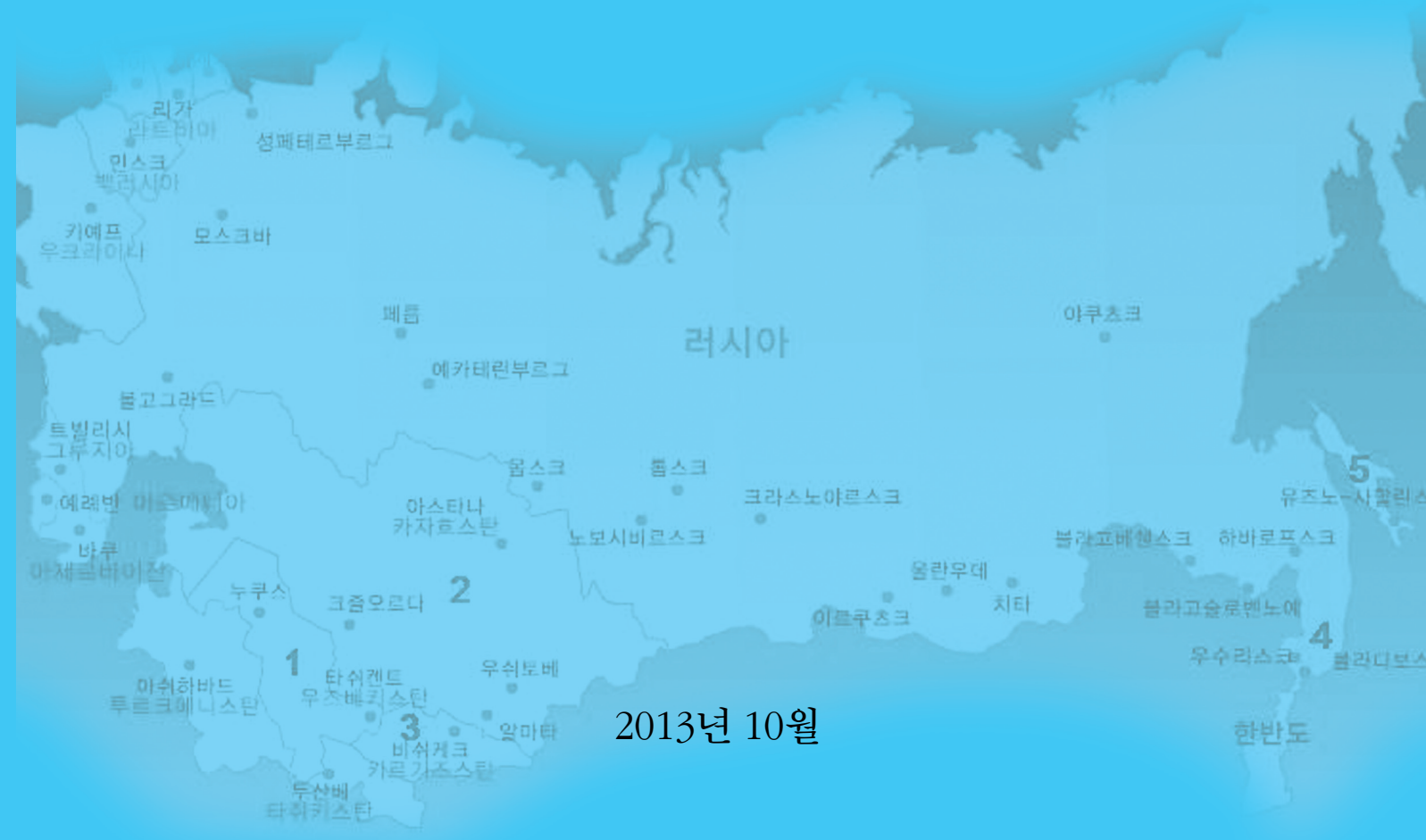


#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사업



#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사업

2013년 10월



## Ⅰ 조사 및 집필 Ⅰ

	총괄책임 연구원 이승수(중앙대 교수)
대표 목록 작성	연구원 임장혁(중앙대 교수)
	연구원 정형호(문화재전문위원)
	연구원 임미선(전북대 교수)
	연구원 강정원(서울대 교수)
자료수집, 기록물관리	연구원 김근식(중앙대 교수)
	연구원 김혜진(한국외대 연구교수)
조사보조	보조 연구원 엄혜진(동북아평화연대 해외사업팀장)
	보조 연구원 노현식(중앙대 대학원)
	보조 연구원 이규빈(한국문화유산연구소 조교)

## 【 목차 】

I. 사업개요	1
1. 사업명칭	1
2. 사업기간	1
3. 사업수행기관	1
4. 사업목적	1
5. 사업주요내용	1
6. 사업수행 주요과정	2
II. 사업수행 범위	3
1. 과업수행 지역	3
2. 과업내용	3
III. 사업추진체계	5
1. 총괄추진체계	5
2. 업무분장	5
3. 참여인력총괄표	6
IV. 현지조사 개요	7
1. 출장기간	7
2. 출장지역	7
3. 출장인원(총 10명)	7
4. 국가별 인터뷰 조사자 명단	8
V.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대표목록)	12
1. 국가별 고려인의 특징과 전승실태	12
2. 분야별 전승실태	17
3. 대표목록	24
VI. 기관 소개 및 정책 제언	114
1. 기관 소개	114
2. 기록 자료의 보존·활용에 대한 정책적 제언	121
부록. 현지 수집물, 대표목록 조사카드, 메타데이터	
1. 유형별 수집물 수량	129
2. 유형별 형태	130
3. 기록지 항목수 및 작업공정률	133
4. 대표목록 조사카드(자료조사카드)	134
5. 메타데이터	170



## I. 사업개요

### 1. 사업명칭

- 2013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사업

### 2. 사업기간

- 2013년 5월 ~ 2013년 10월

### 3. 사업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문화유산연구소  
소장: 이승수

### 4. 사업목적

-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사회주의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문헌, 신문, 잡지, 기사 등)들을 조사·분석하고 무형문화유산 기·예능의 전승 실태에 대해 기록.

- (1) 제시된 무형문화유산의 범주 및 분류에 따른 종목별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작성
- (2) 제시된 국가별 기록기관 및 단체가 소장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의 목록작성 및 수집
- (3) 국가별 조사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기록기관 현황 파악
- (4) 해외전승 무형문화유산 기록자료의 보존·활용에 대한 정책적 제언

### 5. 사업주요내용

- 해외(러시아·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 조사
-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작성
- 무형문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 러시아·중앙아시아 기록 관련 기관의 운영실태 파악

## 6. 사업수행 주요과정

과제목표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 연구용역
기간	내 용
2013년 5월	▸ 2012년 기 조사결과물 검토
2013년 6월	▸ 심층 내부 워크숍
2013년 7월 2013년 8월	▸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 결과의 성과 자체평가 및 논의
2013년9월	▸ 중간보고회 ▸ 대표목록 작성 ▸ 자료수집물 목록화 ▸ 동영상, 이미지자료 분류, 목록화 및 자료보충 워크숍
2013년10월	▸ 중간보고에 따른 수정작업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 보완 수정 및 퇴고

## II. 사업수행 범위

### 1. 과업수행 지역

- 러시아(사할린, 연해주)
- 중앙아시아 3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2. 과업내용

#### 1) 대표목록 작성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하여 고려인들의 생활문화 중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우리 민족이 해외에서 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실현내용, 기·예능의 특성과 보존방안을 강구.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를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작성하여 지역별 명확한 연구대상을 선정.

대표목록의 작성에 앞서 대표목록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기 지정된 종목과 동일 종목
- ② 고려인의 정체성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실현하고 있는 종목
- ③ 고려인이 임의적 또는 공인된 집단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목
- ④ 역사적,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종목
- ⑤ 문화예술 교류에 의해 새롭게 창작, 또는 복원되었더라도 고려인 사회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항목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지의 전승실태를 조사하고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와 민족을 동시에 아우르는 유네스코 차원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수립.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고려인들은 국내와는 다른 형태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변화된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사회조직이나 예술단체 등에 대한 활동이나 전승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전승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현재 무형문화유산의 범주 및 분류는 다음의 표와 같음.

<b>무형문화유산의 범주 및 분류</b>
▸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본 조사는 유네스코에서 정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함.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에 속하기 어렵지만 기타 고려인의 문화를 읽어 내는데 있어 의의가 크고 기록·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것은 “기타 기록유산”이라는 분류항목 추가.

각 종목별 대표목록에 기술될 내용은 명칭·범위·공동체·개념·분류·연행방법·전승방법·사회적 기능·보호조치 등으로 문화재청 발간, 한국민속학회 집필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연구』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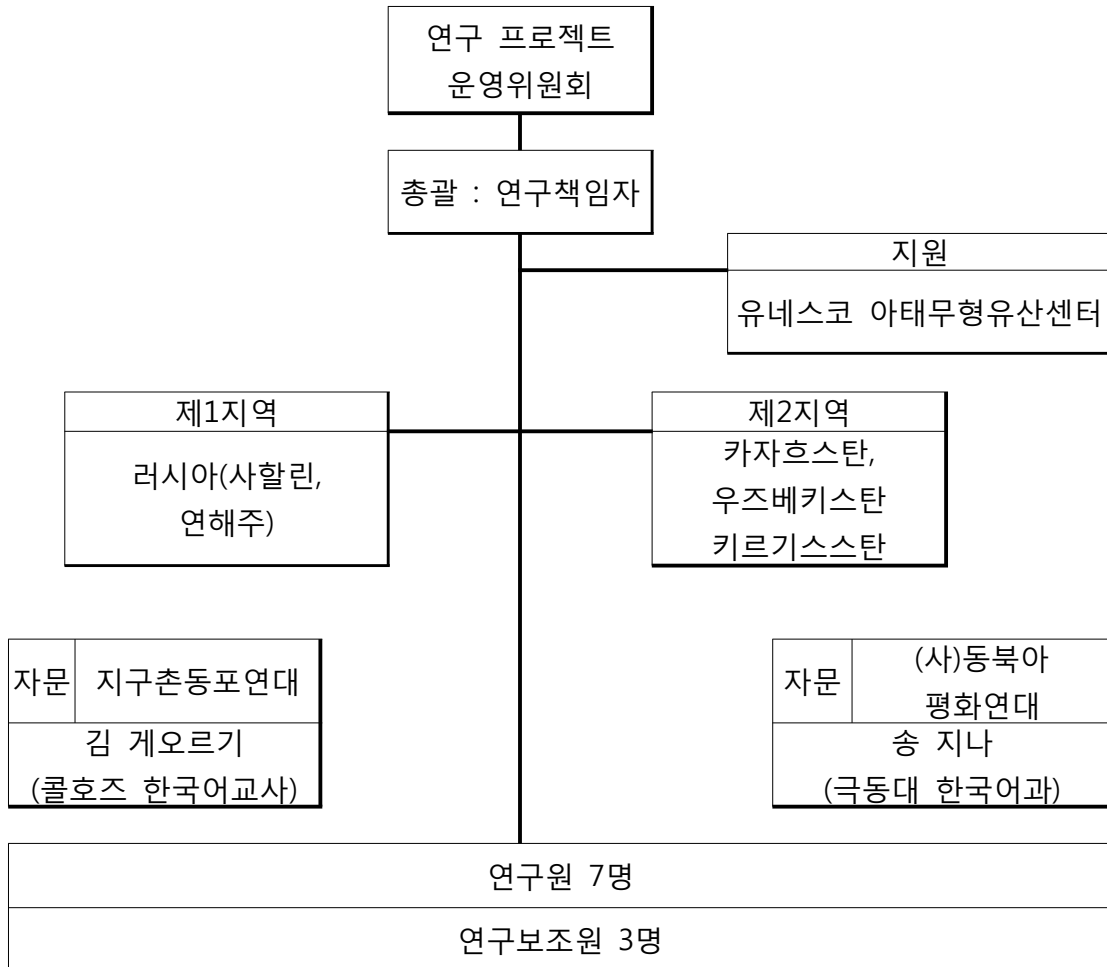
## 2) 수집물 확보 · 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텍스트, 사진, 음성, 동영상 등)는 원본자료 납품이 원칙. 다만, 원본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 디지털화하여 파일로 전환 후 납품.

사진·음성·동영상 자료의 경우는 원본과 함께 디지털로 전환하고, 메타정보를 작성하여 하드디스크로 납품.

### Ⅲ. 사업추진체계

#### 1. 총괄추진체계



#### 2. 업무분장

사업 전체 총괄		중앙대학교	교수	이승수
1팀 [러시아]	1조: 대표목록 작성	중앙대학교	교수	임장혁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정형호
	2조: 수집물 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김혜진
		중앙대학교	석사수료	노현식

2팀 [중앙 아시아]	1조: 대표목록 작성	전북대학교	교수	임미선
		중앙대학교	연구조교	이규빈
	2조: 수집물 확보	중앙대학교	교수	김근식
		동북아평화연대	팀장	엄혜진
3팀	국내 문헌조사 총괄	서울대학교	교수	강정원

### 3. 참여인력총괄표

역할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	e-mail								
총괄	책임 연구원	이승수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ethniclee@hanmail.net								
					010-3566-3387								
대표 목록 작성	연구원	임장혁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815jikimi@hanmail.net								
					011-9959-6010								
					연구원	정형호	전임 연구원	문화재전문위원	chh4041@hanmail.net				
									010-5056-4041				
									연구원	임미선	교수	전북대학교 교수	lms626@hanmail.net
													010-3895-7202
연구원	강정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kangjw@snu.ac.kr									
				010-9418-8914									
				자료 수집, 기록물 관리	연구원	김근식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kimkeunsik@hanmail.net
													010-3721-5683
									연구원	김혜진	연구 교수	한국외대 연구교수	mishka@hanmail.net
													010-3836-0293
보조 연구원	엄혜진	팀장	동북아평화연대해 외사업팀장	orchaum@gmail.com									
				010-8828-2311									
				보조 연구원	노현식	석사 수료	중앙대학교 대학원	poirun@hanmail.net					
								019-614-9029					
보조 연구원	이규빈	조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조교					gyubinc@naver.com					
								010-7283-5589					

## IV. 현지조사 개요

### 1. 출장기간

1) 1팀 현지조사(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 2013년 6월 30일 ~ 7월 7일

2) 2팀 현지조사(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2013년 8월 15일 ~ 8월 26일

### 2. 출장지역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3. 출장인원(총 10명)

1)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승수(책임연구원)

2)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형호(연구원), 이규빈(연구보조원)

3)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임미선(연구원), 엄혜진(연구보조원)

4) 우즈베키스탄: 김근식(연구원)

5) 러시아: 임장혁(연구원), 정형호(연구원), 김혜진(연구원), 노현식(연구보조원)

#### 4. 국가별 인터뷰 조사자 명단

성명	출생년도, 나이	성별	거주지	연락처, 직책
<b>러시아 16명</b>				
김발레리아	52세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아리랑가무단 단장, 고려일보 발행인
윤슬타니슬라브	1937년생 (76세)	남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가무단(전 모란봉가무단) 단장 우수리스크 노인단 회장
김따찌야나	68세	여	러시아 연해주 오르츨	칠성가무단 단장
정태식	1931년생 (82세)	남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한인회 고문 사할린 아리랑 작사
김홍지	1948년생	남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한인회 회장
박순옥	-	여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이산가족 회장
김돈배	73세	남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한인회 회원 어선관리국 공무원 출신
김순자	67세	여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한국어교육원 근무, 한인 2세
한 안나스타샤	1935년생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김 이노겐지	1935년생	남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전 알렉산드라	1933년생	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한 보뜨르	1950년생	남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 콘스탄틴	1924년생	남	러시아 연해주 아르츨	
김 따마라	1932년생	여	러시아 연해주 아르츨	
정태식	1932년생	남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리스크	
이엘레나	66세	여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고려가무단 춤 지도
<b>카자흐스탄 36명</b>				
김종훈	85세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알마티종합여자사범대학 교수 출신
최국인	87세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영화제작소 근무 경력
김병학	1963년생 (47세)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전 고려신문 기자
김림마	67세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비둘기가무단 단장, 공훈배우로 작고한 김블라지미르의 부인
아나톨리	1940년생 (73세)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인 2세
김올레그	58세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향합창단 단원
김게르만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7 727 227 65 17
이건훤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어교육원원장
최와라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3 92 82 01
김쓰베틀라나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8 701 726 18 71
바이뚜누스바 갑둘리나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8 727 292 1721
강나실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377 41 34
박 마르타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질료니 시장
이 나제즈다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질료니 시장
최 알렉산드라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질료니 시장
장 엠밀리리아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질료니 시장

김 안나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질료니 시장
박 갈리나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질료니 시장
김 엘레나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질료니 시장
김 블라지미르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김 아사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정 이반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김 소피아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박 게오르기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김 엘밀리아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박 블라디미르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박 안나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인자료관
류 보피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장
남경자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8 727 291 57 53
성 이리나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8(7273)79 11 03
Li Oleg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7 777 255 5845
Zoya Kim	-	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7 777 223 77 61
김종훈	-		카자흐스탄 알마티	7 701 331 4539
최 석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7 701 723 0384
Yun Jong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7 705 705 10 04

Kwan				
Yakov KHAN	-	남	카자흐스탄 알마티	7 727 399 90 68
<b>우즈베키스탄 14명</b>				
강안나	1924년생 (89세)	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엔고 콜호즈 내	아리랑요양원
한 블라지미르	62세	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통역 및 주요 현지 가이드, 고려인 2세
주라리사	42세	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꽃봉오리예술단 단장
장 옥사니아 니콜라이브나	79세	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랑양상블(합창단) 지휘자
김로만	78세	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랑양상블 단원
주영일	63세	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인단 단장, 우즈베키스탄 고통련 위원장
박빅토르	-	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 회장
한마르가리따	-	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고려양상블 단장
유영희	26세	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모란봉예술단 단장
김블라지미르( 용택)	1946년생 (67세)	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전 고려일보 기자, 공훈기자
리 안드레이	92세	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리랑요양원
김명관	-	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리랑요양원
박 루마	-	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리랑요양원
김 예레나	-	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장
<b>키르기스스탄 10명</b>				
송기웅	-	남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0312 933 111



최 발레리(TSOY Valeriy P.)	-	남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9960312 54 16 04
Lubov A. Nee	-	남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7 777 384 82 78
강 류드밀라	1946년생	여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770 75 91 85
김영애(김 류보위)	1931년생	여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이 로자이바노바		여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43 54 59
김나리샤	1947년생	여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정누드밀라	1941년생	여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김 드미트리	1988년생	남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전 장굴래	1915년생	여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b>총 76명</b>

## V.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대표목록)

### 1. 국가별 고려인의 특징과 전승실태

오늘날 러시아(사할린, 연해주), 중앙아시아 3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무형문화유산을 유지, 전승하고 있음. 그러나 그 양상은 한국 사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고려인의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한반도의 무형문화유산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형성된 민속현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그런 점에서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의 변화된 모습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첫째, 정치적인 영향에 따른 민간신앙의 단절과 기독교의 급부상을 들 수

있음.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민속적인 신앙생활이 거의 어려워졌을 것으로 판단됨.

의식주 등에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많이 변질되었거나 사라졌음. 한국 사람들로부터도 잊혀져가는 것들을 유민의 혹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대한다는 사실은 무리임. 우리가 서구화에 밀려났다고 하면, 고려인들은 이(異) 민족 사회에서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현실 때문이었을 것임. 이들은 조상의 정신과 삶의 방식을 지킬 겨를도 금지도 빼앗긴 상태에서 살아왔음. 전통의상은 대부분 사라졌고, 명절 때 어른들이나 공연할 때 연극배우들이 입은 것을 가끔 볼 수 있을 정도임. 주거문화도 시골에 온돌방을 가진 집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통 한옥은 찾아볼 수가 없음. 그런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라면 역시 음식이라 할 수 있음. 밥과 국수, 만두, 두부, 보신탕, 미역채, 김치, 고사리, 시금치, 전병, 찰떡 등을 아직도 먹고 있음. 그러나 이들 음식도 우리 음식과는 많이 다름. 우선 현지 음식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대체적으로 전통 한식처럼 자극적이지는 않음. 우선 요리에 들어가는 향료나 양념이 다르기 때문에 맛은 우리 음식과 많이 다름. 게다가 젊은이들은 밥 대신 빵을 주로 먹으며, 보르쉬, 베스빠르마끄, 살란까 등 순수 러시아와 카자흐 음식도 많이 먹고 있음. 김치는 양배추나 중국 배추 등으로 담음. 일부 전통 명절이나 의례 등은 나름대로 지켜지고 있음. 특히 돌과 환갑, 장례식 등은 전통적 특성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음. 돌잔치는 우리와 거의 유사함. 성묘는 1년에 두 번, 한식과 추석에 함. 전통적 공연예술도 개인 전승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각종 예술단에 의한 전승형태로 변화하였음.

고려인들은 1937년 생활 터전을 빼앗겼고 1년 후 말을 빼앗겼음. 1937년 스탈린은 극동, 연해주 등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음. 1938년에는 고려인 학교들을 소련 일반 학교들로 전화시키면서, 러시아어로 교육시킬 것을 결정. 고려인들의 정신마저 빼앗아 버린 것임. 당시 극동 지방에는 고려인 학교 300여 개와 사범학교 2개가 있었고, 블라디보스톡에는 사범학교가 있었다고 함.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고려인들은 사실 한국말을 잘 못함. 2~3 세대의 고려인들 중에는 제법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들이 있지만 매우 서툰. 특히 대다수 젊은이들은 한국말을 모르며 이들은 민족어를 모두 잊어버린 것임. 게다가 현재 고려인들의 한국어는 많이 변질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련의 공식 국어였던 러시아어의 영향인 듯함. 그 결과 구전 전통 및 표현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됨.

이주 초기 고려인들은 벼농사와 채소 재배 등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음. 예

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197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은 고려인 67명 중 단 1명만이 축산 발전의 공로로 영웅 칭호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농업 발전 공로로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고려인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고려인들의 직업 구주는 조국 전쟁(1941~1945년)이후 산업의 다양화와 더불어 분화되기 시작함. 일부는 광산의 광부, 사무직 등으로 편입되기도 하였고 도시에는 다양한 산업 협동조합들이 생겨나서 많은 고려인 전문 기술자들이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음. 고려인 남자들은 금속 가공 및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기사, 주물공, 선반공 등이 많았고, 건축분야에서도 용접공, 잡역부 등으로 일을 하였음. 고려인 여자들은 봉제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음.

소련 붕괴 이후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보따리 장사 같은 소규모의 개인 무역상부터 수출입 등 대규모의 국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이들도 나타났는데 이는 고려인들의 전통적 직업구조의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음. 시장에서 가공 농산물이라든가 음식물 등을 파는 장사에도 매우 적극적이며 식당업 등 서비스업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인들의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적 생활양식의 쇠퇴, 민족 언어의 상실, 직업의 분화 등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그 전승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살펴본 각 나라별 전승실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1) 러시아(사할린, 연해주)

현지조사 과정에서 만난 체보자 대부분은 원주지(原住地)로서 부모의 고향이 함경도, 충청도와 경상도, 황해도 등 다양했음. 당시의 이주와 정착은 원주지의 언어와 생활관습 등을 동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전승되었던 무형문화를 삶의 근간에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 그러나 생태적, 지리적 환경의 차이, 특수한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통적 공연예술,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 등은 문화접변 또는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확인.

먼저 구전 전통 및 표현의 경우, 강제이주 1세대의 후손들에게 설화, 판소리계 소설, 속담 등이 잘 전승되지 않았음. 또 그 일체를 선대들이 즐겨 했던 “옛 이야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의 경우, 계절음식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며, 계절음식으로 먹는 것도 지역의 풍토에 맞추어 기본 재료들은 변화

된 형태를 보임. 민간의식 등 사회적 의식의 경우, 환갑잔치는 돌잔치나 결혼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성대하게 펼쳐지는 것이 일반적. 기제사는 ‘사망제사’ 또는 ‘돌아가신 날 제사’라고 하며, 제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3년 상으로 펼쳐짐. 민간신앙의 경우, 터주, 성주 등은 어렵פות이 기억할 뿐 거의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산신의 신격도 마을공동체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전통적 공연예술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 창설된 예술단의 사례(아리랑가무단, 고려가무단, 칠성가무단, 조선노래가무단 등)가 많으며, 특히 북한의 영향을 받아 가야금, 장구춤, 부채춤 등이 폭넓게 전승되고 있음. 이는 마을공동체가 와해된 상황에서 더 이상 개인 혹은 지역 전승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최근에는 러시아예술학교 한국어교육원 등 공교육 체제에서 아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의 20년 전부터 음력설 전 일요일에 집단놀이로서 행사를 치르며, 15년 전부터 일종의 야유회(野遊會)로서 들놀이를 즐기고 있음.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가 전개되고 있는데, 행사용으로써 변형된 형태로 나타남.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경우, 일찍부터 전개된 근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거의 사라진 형태임.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지식의 경우 한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제도적 요인, 자연환경의 요인 등으로 인해 거의 사라진 상태임.

러시아의 경우 전통적 공연예술 분야에서 최근 활발한 전승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중앙아시아 3국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전통적 생활관습 특히 추석과 관련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2)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의 경우, 한식, 단오, 추석 등이 있음. 음력설도 오래도록 전통이 끊겼다가 20여 년 전에 부활되었음. 특히 한식의 경우 고려인을 고려인답게 해주었던 관습에서 점차 조상의 묘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의 경우, 벼농사는 전통적으로 가장 노동집약적인 관개영농을 요하는 작물임. 따라서 모심기, 피살이, 추수 등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그 적기를 놓쳤을 때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일반적인 벼 재배 환경은 한반도나 연해주 지역과는 많은 차이를 보임. 또한 집단 농장이라는 영농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던 영농과정은 1990년대 이후 해체되어 개별적 경영으로 전환됨. 이에 따라 공동체 작업에서 나타나는 구전 전통 및 표현이 사라졌음. 특히

전통적인 벼 재배법과도 일면 다른 점이 있어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농경어로 생활에서의 신앙 및 소리가 거의 소멸된 상태임.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의 경우 인생살이의 통과의례로 지켜오던 전통적인 관혼상제를 살펴보면, 돌, 환갑, 장례, 제례에서 그런대로 옛 전통이 남아 있음. 그러나 혼례는 거의 러시아식 혹은 현대식으로 변질되었거나 일부 문화요소만 잔존한 상태. 나아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공연예술 등 전반에 걸쳐 한국 및 한국인과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전통적 공연예술의 경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집단 농장의 와해 이후 각종 예술단(비둘기무용단, 고려극장, 꽃봉오리예술단, 고려양상블 등)의 활동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 3) 우즈베키스탄

1985년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러시아·러시아문화 동화정책을 수용해야 했던 소련 내 러시아 이외 민족들은 자신들의 민족언어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재생, 부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1988년 고르바초프는 “우리 다민족국가의 원칙은 자기들의 모국어를 자유롭게 발전시키고 이용하게 하는 것”라고 발표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에서는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조선말’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들을 『레닌기치』를 통해 줄기차게 주장하게 됨. 구체적으로 9월13일에는 ‘추석명절’, 그리고 9월 22일부터 1989년 4월 19일까지 ‘조선민족의 전통과 풍습’ 시리즈 기사를 게재함. 이러한 움직임의 계기로 전통적 공연예술, 구전 전통 및 표현들이 부활하기 시작함. 당시 중앙아시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고려인 2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말을 상실했고 소비에트 러시아문화에 동화되어감에 따라 민족의 전통문화도 소멸되었음. 그리하여 1989년 2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고려인사회는 고려인협회 발족 이전 상태에서 전통적 생활관습인 음력설 명절 행사를 개최하게 됨. 아울러 『레닌기치』에서도 새해 첫날 조상들에 대한 차례, 윗사람들에 대한 세배 등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윗놀이와 널뛰기 등 전통적 놀이·축제 등을 소개하게 됨.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 이후 전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로, 또 러시아(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로 민족명절 경축행사가 퍼져나갔음.

이러한 움직임과 연동하여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 부활한 풍속이 단

오임. 그 첫 번째 움직임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단오 개최이고 이어서 중앙아시아 3국의 독립 이후 전개된 단오임. 아울러 고려인 콜호즈 중앙광장에서 소인예술단 ‘폴로쓰’의 공연, 조선민요, 춤 등이 소개되면서 전통적 공연예술이 활기를 띠기 시작함.

한편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각국이 독립하면서 고려인 콜호즈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농촌마을로 변해갔음. 그리고 많은 고려인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농촌 콜호즈에서의 전통적 생활관습 기반을 상실하게 됨. 그리하여 도시로 이주해온 고려인들을 주축으로 한 고려인 단체가 결성됨. 그 결과 전통적 공연예술은 도시 내 혹은 근교에서 창설된 각종 예술단들(양상블사랑, 조선노인협회 할머니합창단, 소인예술단)의 활동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음.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정부를 비롯한 한국기업, 사회단체들이 고려인 사회와 교류를 증진하면서 새로운 전통적 공연예술 단체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임.

## 2. 분야별 전승실태

### 1) 전통적 공연예술, 예술단체 전승종목

조사대상	조사지역	날짜	주요조사목록 및 내용
아리랑가무단	우수리스크	7.1	부채춤, 북춤, 비둘기춤, 오고춤, 아리랑춤, 최근 브레이크댄스, 재즈 등 첨가
고려가무단	우수리스크	7.1	노들강변, 부채춤(남,북), 소고춤, 아리랑춤 등/ 노래는 아리랑, 도라지, 두만강(김정구), 금강산, 꿈에 본 내고향, 이 술잔 한잔(환갑의 권주가 노래), 로시키(러시아 노래) 등
아리랑가무단 북팀	우수리스크	7.2	정각춤, 칼춤, 부채춤, 장구춤, 우산춤, 인형춤, 명절춤, 노래로는 아리랑, 도라지, 언젠가는, 베사메무쳐(고려 말), 기타 가야금 연주.
조선노래가무단	우수리스크	7.2	한국식 타악퍼포먼스로 난타 방식
칠성가무단	오르쎸	7.3	대중가요 중심. 과거 노래, 최근 한국 노래도 수용.
사물놀이 '하늘'	유즈노사할린	7.4	팽과리, 북, 장구2, 징으로 구성. 한국의

	스크		사물놀이
예술극단	유즈노사할린스크	7.4	심청전(구술자 직접 보았음). 춘향전 등. 정태식은 심청전, 홍길동전을 구경함. 가요로(유행가 두만강, 꿈에 본 내고향 등), 나의 살던 고향, 가요무대 공연. 명절 설날, 광복절 행사 참여.
유즈노사할린스크예술단	유즈노사할린스크	7.5	노래 중심이며 춤도 춤고 있음. 노래 우수함.
비둘기무용단	알마티	8.16	칼춤, 북춤, 부채춤(아리랑 반주), 승무, 샤편이, 도라지춤, 탈춤(자체 제작, 1개, 산대놀이 탈 유사, 창작춤)/ '평양은 좋아요' 가사 삭제/ 당일 부채춤(반주 아리랑), 학춤, K팝 마야 진달래꽃 노래 맞춰 춤
고향합창단	알마티	8.18	두만강, 한많은 대동강, 여자야(빠이빵이야), 현지어 노래, 카자흐스탄 노래 아따미깁(할아버지땅 의미) 노래 등
고려극장	알마티	8.20	춘향전, 심청전, 흥부와 놀부(흥부전), 홍길동전, 토끼의 간(별주부전), 양반전, 애랑(배비장전), 북춤(소고춤, 장고춤), 부채춤, 칼춤 공훈배우 출신 인터뷰
꽃봉오리예술단	타슈켄트	8.21	북춤, 장고춤, 부채춤(남한, 북한), 중국 봉춤, 인도춤, 카작춤(카자흐스탄춤), 창작춤
청춘(진춘)무용단	타슈켄트	8.21	북춤, 장고춤, 부채춤(남한, 북한), 중국 봉춤, 인도춤, 카작춤(카자흐스탄춤), 창작춤/ 샤편이
고려양상블	타슈켄트	8.22	예전 한량무, 샤편이, 지금은 태평무, 북춤, 장고춤, 부채춤/ 당일 연습 장고춤, 반고춤(농악춤), 부채춤, 북춤, 장고춤, 사물놀이와 브레이크댄스/ 샤편이, 한량무, 현대 창작춤
양상블 사랑	타슈켄트	8.22	아리랑, 뱃노래, 도라지, 노들강변, 강남달, 돌아와요부산항, 아빠와 크레파스/ 서울의 찬가, 내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꽃마차, 밀양아리랑, 갑돌이와 갑순이/ 애국가 가능
모란봉예술단	타슈켄트	8.22	부채춤, 쟁강춤, 북춤, 장고춤, 소리꽃, 비둘기춤, 부채춤, 내사랑하늘꽃, 칼춤, 소고춤, 오복춤 등 레파토리 다양
소인예술단	타슈켄트	8.20	어머님은혜, 파란마음 하얀마음, 갑돌이와 갑순이, 뱃노래, 다시만나요, 기타 우즈베키스탄 노래, 무용 등

##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조사대상	조사지역	날짜	주요조사목록 및 내용
공예	비취켈	8.24	이주 초창기 새끼꼬는 법, 가마니 짜는 법

### 3)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조사대상	조사지역	날짜	주요조사목록 및 내용
농기계	시온고콜호즈	8.24	이주 초창기 말 주로 사용, 일부 황소도 사용. 1963년 시온고콜호즈 당시 큰 자동차, 트랙터 주로 사용
벼농사	타슈켄트	8.22	벼농사 4월 씨뿌림, 지심(풀 뽑기) 초등 시절 참여. 돌피 음식, 보리밥 많이 먹음
고기잡이	타슈켄트	8.22	초기 물고기 많았음. 이곳 사람 물고기가 안 먹음. 갈밭에 '우에'라는 고기 많음
가나으 (수로)	시온고콜호즈	8.24	수로(시온고 콜호즈, 칠치크강물, 수로는 '가나으'라 함), 강수량은 가을에 주로 비가 오고, 겨울에 눈 많이 올. 봄여름은 비 거의 안 올
가축 키우기	시온고콜호즈	8.24	가축 소, 돼지, 닭 등 축 개인 사육함. 콜호즈 공동 사육은 국가 재산
발바애 (디딜방아)	시온고콜호즈	8.24	발바애(디딜방아)는 쌀, 떡, 그리고 양 많은 고추와 마늘 등을 찜을 때 사용함
절구	시온고콜호즈	8.24	절구는 주로 후추와 상채를 찜을 때 사용함
멧돌	시온고콜호즈	8.24	드비(두부)와 묵 만들 때 멧돌을 사용함
썩	시온고콜호즈	8.24	썩으로 뜸을 떴음
침	시온고콜호즈	8.24	침 놓는 한의사가 있었음

### 4) 구전 전통 및 표현

조사대상	조사지역	날짜	주요조사목록 및 내용
민요	유즈노사할린 스크	7.5	사할린아리랑
	아르쎌	7.3	도라지타령
	타슈켄트	8.22	아리랑, 뱃노래, 도라지, 밀양아리랑
	알마티	8.17	아리랑, 두만강
판소리	유즈노사할린 스크	7.5	사할린 1세 중에 판소리 부른 사람이 있다는 기억



창가	아르쭘	7.3	너른 들에
	시온고콜호즈	8.24	고향의 설음, 내 고향, 좋은 시절, 방아타령, 임 이별, 처녀의 단꿈, 간도타령, 군인 이별가, 아리랑 고개, 울산타령, 춘향전에서, 춘향어미 부르는 노래, 이별가, 리술일가, 강남 달이, 월야청청

###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조사대상	조사지역	날짜	주요조사목록 및 내용
김치	시온고콜호즈	8.24	배추김치, 갓김치, 무수채김치 등, 젓갈 안 씬.
	타슈켄트	8.22	일반 김치와 볶은 김치 나눔. 볶은 김치는 한국과 같이 김치를 기름에 볶은 것.
개장 (보신탕)과 개회	시온고콜호즈	8.24	개장과 개회 만드는 법. 양념은 고추가루, 후추, 마늘, 상채 사용. 개장(푹 곰)과 개회(살짝 데침) 차이. 여자들도 개장 좋아함. 개회는 개 갈비대 사용. 폐병 개기름 약효 뛰어남.
	타슈켄트	8.20 8.21 8.22	겨울철에 주로 먹음. 현재 개고기 음식점 많음. 개장은 푹 삶은 고기, 상채(향채)씨앗, 파, 양파, 소금, 마늘, 고춧가루, 다데기, 깨소금, 후추, 조미료/ 개회는 살짝 삶은 개고기에 고추가루 양념, 파, 양파, 상채 양념을 한 것임. 밑에 국물 약간 있음. 육질 우수/ 예전 60년대 개장집이 있었음(한선생).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은 안 먹음.
술	시온고콜호즈	8.24	술 담그는 법 상세 구술/ 누룩, 술독, 보치카, 토주
감주	우수리스크	7.1	한국의 식혜와 다름. 큰항아리에 쌀과 보리에 물을 약 1주일간 띄움
국시 (국수)	시온고콜호즈	8.24	국시(국시틀, 밀가루, 고기, 달구(닭)국물, 기름, 후추가루, 여름국시 차게, 겨울 국시 뜨겁게 먹음.
	타슈켄트	8.21 8.24	국수 종류로 면발이 쫄깃함, 밀을 사용, 닭국물을 우려냄/ 국시 내용 : 오이(등글오이, 오이채), 토마토, 볶은김치, 상채(향채), 볶은고추, 소고기(고명), 계란(고명)
드비(두부) 와 드비국	시온고콜호즈	8.24	두부 만드는 법 상세 구술. 두부를 '드비'라고 함.
	시온고콜호즈	8.24	드비국 : 얼큰한 국물, 밥(접시에 얹어놓음)/ 드비 국물은 마늘, 두부, 볶은 고추가루, 김치, 말린 미역, 버섯, 소고기 등 넣음./ 통두부 별도
묵	아르쭘	7.3	도토리묵과 메밀 묵을 만들어 먹었음
만두	시온고콜호즈	8.24	이곳 말로 만두는 '만티'. 작은 만두는 '벤시'

시루떡	시온고콜호즈	8.24	시루떡 만드는 법. 팔과 맵쌀시루떡, 찰시루떡, 맵쌀시루떡은 '셀기'
증편	시온고콜호즈	8.24	증편은 맵쌀, 방애, 감국, 가마와 시루/ 찰떡과 증편은 생일, 제사, 잔치 필수품. 맵쌀로 만들며, 이스트로 발효시킴. 발효 맞추는 것 까다로움. 반죽 이용해 나무판으로 누름. 속에 아무 것도 안 넣지만 달콤함.
	우수리스크	7.2	동그랗고 흰 떡. 가운데에 빨간 포도 장식의 점이 있음. 한국과 다름. 직경 10cm, 가운데 2cm 정도. 가장자리는 얇은 편임.
골미떡	시온고콜호즈	8.24	골미떡 만드는 법. 제사에 필수 음식
찰떡	시온고콜호즈	8.24	찹쌀을 이용함. 떡메를 쳤음. 떡고물은 열공을 사용함.
발족 (족발)	타슈켄트	8.22	발족은 족발의 황해도식 발음. 고려인들이 발족 많이 먹음. 한국의 족발 유사. 천손식당은 고려인 운영 레스토랑(3층과 별채 건물 전체)/ 족발 내용물 : 미역채, 콩나물채, 익힌 통마늘, 상추, 기름소금, 김치, 볶은김치, 썬 고추
시락장물 (시레기국)	시온고콜호즈	8.24	시레기국(썩국맛), 된장 기본, 밥/ 두부, 고기울인 국물, 양파, 시레기, 마늘 고명(소고기), 미역 말린 것. 상채, 된장, 양배추, 참깨, 절인 오이, 계란, 생오이
명태	유즈노사할린 스크	7.5	집마다 명태를 말려서 나중에 두드려서 해 먹었음, 러시아인들은 명태를 먹지 않았음
구들	시온고콜호즈	8.24	이주 초기부터 구들 사용. 현재에도 방 1칸은 구들을 놓음
땃감	시온고콜호즈	8.24	초기 땃감으로 갈대를 쓰다가 이후 석탄을 사용함. 지금은 가스를 사용함.
설	시온고콜호즈	8.20	음력설에 학교에서 음식 같이 먹음. 간단 구술
	타슈켄트	8.22	음력 설날 고려인들 가장 크게 모임,
	우수리스크	7.2	설날에는 우수리스크에서는 노인단 중심으로 고려인문화센터 강당에 200-300명 정도가 모임. 공연은 1시간 정도 하고 이후 모든 고려인이 참여해 파티를 벌임. 흥겨운 막춤을 추며 즐기는데, 특히 뒷풀이 중심임. 자식들이 노인들에게 돈을 주어 보냄. 과자, 떡, 감주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함.
	아르쎈	7.3	아르쎈에서는 2000년대에 설날행사를 버스 종착역인 나호드카의 큰 식당을 빌려서 행사함. 정태영은 사할린에서

			음력 설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세배돈을 받은 적이 있음. 그리고 마을 어른들에게도 세배를 했음.
장 담기	시온고콜호즈	8.24	정월달 장 담기. 장 담그는 날 외부인 절대 출입 금지, 장맛 영향, 엄격한 금기.
한식	시온고콜호즈	8.24	산소 가기, 산소음식(찰구지, 진지, 닭, 물고기, 염지채, 도투(돼지)고기, 절과 술) 준비
	알마티	8.19	한식 음식으로 지름떡, 밥, 생선, 고기, 채, 술을 준비해 묘소 가서 절을 함. 여자도 참여함. 요즘 변화함.
	알마티	8.18	한식 음식과 묘소 참배 절차. 여자 한식 참여하고 절을 함. 음식은 닭고기, 중편, 쏘세지, 사탕, 나물로 고사리와 가지채, 과일, 술은 보드카. 자신에게 술 1잔, 절 3번, 이어 묘소에 술 올리고 절을 함. 고려인 관 짜로 매장
단오	시온고콜호즈	8.24	씨름과 달리기를 함.
	알마티	8.18	초기 이후 20년 정도 단오 행사를 했음. 소비에트시절에 안 함. 최근 부활 움직임.
	타슈켄트	8.22	단오 크게 모임. 타슈켄트 교외 30km 바다(호수, 겨울과 봄에 물 가득 참, 넓은 곳), 300명 참가, 줄다리기(외줄 로프줄)가 함.
	우수리스크	7.2	노인단 중심 행사, 노인들 음식을 싸가지고 감. 100명이상이 모임. 우수리스크 근교 사이퉁넷가에 모임. 후 4-5시경부터 시작해 8시까지 계속됨. 고려가무단 중심으로 흥겨운 춤과 노래로 공연을 하고, 끝날 때에 다 같이 어울려 흥겹게 춤을 추며 놀이를 함.
고려인 문화의 날 (정착 기념일)	알마티	8.17	현장 조사. 알마티 고려인협회와 고려문화단체 주관. 고향합창단, 비둘기무용단 등이 참여. 합창, 독창, 무용(전통, 현대), K팝 공연 등. 앞놀이에 고려인들이 춤으로 대거 참여.
가을 김치 담기	시온고콜호즈	8.24	가을김치 담근다라고 함. 김장이란 용어는 없음, 나무통은 나무보치카 형태로 '능출'이라 함.
동지	시온고콜호즈	8.24	동지팔죽(새알은 백태오리), 오그랑팔죽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조사대상	조사지역	날짜	주요조사목록 및 내용
혼례	타슈켄트	8.20	혼례 방식, 본인 혼례복, 혼례음식(찰떡, 증편 중요, 고기) 혼례상에 실, 닭 올림/ 절하기, 예단 준비. 찰떡과 증편은 필수
	시온고콜호즈	8.18	예단 필수. 주로 직계와 부모 형제 준비. 상대 공식 요구. 혼인은 소련식으로 바뀜. 복식도 이곳 방식으로 바뀜.
	유즈노사할린스크	7.5	결혼식의 초례상에는 청실과 홍실을 준비하고, 암탉과 수탉을 올려 놓음. 혼인 잔치에는 돼지 1마리, 순대, 국시(국시기계를 손으로 누름)를 먹음. 두부는 콩을 맷돌에 갈아서 만들어 먹음. 시루떡, 썩떡, 찰떡 등을 준비함. 콩나물도 있었음. 이곳에는 고추, 고사리 등이 있음. 1964년까지 떡메를 쳤음. 각 마을에 술을 만들어 먹었음. 결혼식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또한 이야기를 나눔.
장례	시온고콜호즈	8.20	3년상. 장례 수의(여성 한복 준비), 부모 묘지는 흙으로 됨. 산소 가서 흙 돋움. 묘지의 비석과 사진은 근래 생겼음. 요양원 노인 사망 3일 방 안 들어감(금기).
	타슈켄트	8.18	명정 쓰는 방법(한자에서 근래 한글), 트럭 운구, 혼 부르기, 장례 금기로 집안 거울은 흰 천으로 가림. 3일장. 공동묘지 사용. 3년상
	사마르칸트	8.24	고려인의 무덤(사마르칸트 '샤이진다' 살아있는 왕 무덤유적지 뒤쪽), 묘비와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7.5	일제시대에는 화장을 함. 마을마다 있는 절당에 모시고 돈과 떡, 음식을 가지고 묘소에 감.해방 이후에는 매장을 함. 지금은 장례가 러시아식임. 촛불과 상차림만은 한국식임. 초상집에서는 노름을 했음.
환갑	시온고콜호즈	8.20	환갑 잔치는 산 사람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반드시 해줌.
	유즈노사할린스크	7.5	잔치 음식 준비를 위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손을 도와 줌. 회갑의 음식은 일주일간 만들음. 동네의 한인들이 서로 품앗이를 함. 옛, 과일(쌀을 튀긴 것. 일종 한과), 과일(수박, 능금, 굴 구입), 떡, 적(김치적, 파적). 명태, 사탕을 준비함. 사람이 많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춤. 밖에 천막을 치고 옆집 방 한 칸을 빌림. 오전, 오후 계속해서 손님이 번갈아서 찾아옴.
산속과 돌	시온고콜호즈	8.20	잉태 시에 음식 안 가림. 첫돌 잔치하기, 돌잡이 반드시 실시, 돈을 선호함.

###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조사대상	조사지역	날짜	주요조사목록 및 내용
공기돌	시온고콜호즈	8.24	여자들이 공기돌로 공기놀이를 했음.
널뛰기	시온고콜호즈	8.24	널은 특별한 시기 없이 수시로 뛰었음. 여자들이 주로 뒀.
굴기(그네뛰기)	시온고콜호즈	8.24	그네뛰기를 '굴기'라고 함. 여자들이 주로 함. 혼자 뛰기, 둘이 같이 뛰기
윷놀이	시온고콜호즈	8.24	특별한 시기 없이 윷을 놀았음
	유즈노사할린스크	7.5	해방 직후에 윷놀이를 했으며. 자금도 간혹 윷을 놀음
꼬장치기	타슈켄트	8.22	긴 막대 땅에 꽂고 상대막 막대 꽂아치면서 쓰러뜨리기
뿔차기	타슈켄트	8.22	예전에 돼지오줌보로 뿔을 찼음.
제기차기	타슈켄트	8.22	한발, 양발, 발 옆으로 차기
	유즈노사할린스크	7.5	제기차기를 했는데, 해방 직후인 1950년부터 1975년 사이에 많은 민속놀이를 했는데, 이때 민족문화가 발전되었다고 함
씨름	타슈켄트	8.22	남자 씨름, 시합
	유즈노사할린스크	7.5	해방절에 씨름을 하며, 지금도 8월 15일에 매우 크게 씨름대회를 함
연날리기	타슈켄트	8.22	연날리기를 했다는 간단한 언급
줄당기기	유즈노사할린스크	7.5	해방 이후에 줄당기기를 한 적이 있음

## 3. 대표목록

### 1) 전통적 공연예술

- 대표목록: 춘향전, 심청전, 흥부와 놀부(흥부전), 홍길동전, 토끼의 간(별주부전), 양반전, 애랑 북춤(소고춤, 장고춤 포함), 부채춤, 칼춤 총 10항목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춘향전]

명칭	국문	춘향전	
	영문	로마자표기	CHUNYANGJEON
		영어풀이	Chun-yang jeon : Chun-yang drama
범주	<p>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로 전해지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창극, 춘향이놀이, 민요, 연극, 영화, 뮤지컬, 창작 발레, 창작 소설, 음악극, 마당극과 마당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창작되었다. 고려극장에서 공연된 춘향전은 1934년 초기에 창극의 형태이며, 이후 점차 음악극과 연극 형태로 공연되었다.</p>		
공동체	관련 공동체	<p>춘향전을 수시로 공연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 고려극장 단원과 고려인</p>	
	공동체 범위	<p>고려인 춘향전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러시아 각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 전체</p>	
개념	<p>고려극장 춘향전은 판소리 및 고소설로 전하는 춘향전을 무대극으로 각색한 것이다. 이것은 기생의 딸 춘향과 고을 수령의 아들 이도령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춘향의 신분상승을 그리고 있다.</p> <p>남원 고을 퇴기의 딸인 춘향은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단오날 광한루에서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몽룡이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둘은 오리정에서 눈물로 헤어지면서 장래를 약속한다. 이후 춘향은 새로 부임한 고을 수령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여, 옥중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지만,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에 의해 구출된다. 변학도는 파직되고, 두 사람은 혼인을 해서 백로해로한다는 이야기이다.</p>		
분류	<p>공연예술/구전 전통 및 표현</p>		
전승방법	<p>고려극장의 춘향전은 1934년에 신소설 ‘옥중화’를 각색하여 연성용 연출로 창극 형태로 공연되었다. 당시 소리광대 최삼용과 고수 이복학 등이 이동백 춘향전 축음기판을 토대로 판소리를 익혔으며, 이합덕이 춘향 역을 연기해서 연해주 고려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p> <p>1937년 강제 이주에 의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고려극단 시절에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춘향전을 4년간 모두 134회에 걸쳐 공연을 했다. 이후 춘향전은 고려극장의 주요 레파토리로 수시 공연이 되었으며, 2007년에는 한국의 국립극단 단원 이영호가 각색 연출하고, 두 극단</p>		

	<p>이 공동 제작하여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합동공연을 실시했다. 이후 2010년에도 다시 춘향전이 공연이 될 정도로 고려극장의 핵심적 공연물이 되었다.</p> <p>고려극장은 1932년 9월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트크에서 ‘운동변강 조선극장’으로 창단되었다. 초기 전통을 바탕으로 무대화하여 연해주 고려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순회공연을 실시했다. 특히 연해주 시기는 주로 소인예술단 출신의 태장춘, 연성용, 채영, 리길수, 김해운, 김진, 리함덕 등이 주도했다.</p> <p>1937년 가을에 스탈린 강제이주에 의해 초기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쾰즐오르다에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인근 지역 순회공연을 하며 활발히 활동을 재개했는데, 당시 태장춘, 태영 등이 주도했다.</p> <p>고려극장은 1942년에 독일 침공에 대비해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인 우스또베로 옮겨 극소수 인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9년에 다시 공화국의 지시로 쾰즐오르다로 옮기게 된다. 이후 1960년대부터 점차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배우를 배출하면서 내적 성장을 이룬다.</p> <p>1968년에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옮겨, ‘카자흐공화국 국립음악희극고려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시기부터 제 3-5세대 배우가 배출되었으며, 한진, 맹동욱, 조정구 등이 주도했다. 그리고 산하에 아리랑가무단을 창단했으며, 1990년에는 서울국립극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작업도 수행했다.</p> <p>2013년 현재 창단 81년째에 극장장은 김류보비, 총감독은 이올레그가 이끌고 있다. 80명 단원 중에 연극배우, 사물놀이, 무용단, 가수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극장의 재정 자립이 약하고, 단원들의 한국어가 미숙하며, 관객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그러나 고려극장은 여전히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전승의 선봉이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p>
<p><b>연행방법 (국내)</b></p>	<p>춘향전은 국내에서는 소리광대에 의해 판소리로 불려지거나, 판소리계 소설로서 읽혀지다가, 20세기 초에 실내 무대에서 연극의 형식을 빌어 창극으로 공연되었다. 그리고 이후 각종 영화, 연극, 뮤지컬, 발레 등으로 다양하게 공연되었다.</p>
<p><b>연행방법 (국외)</b></p>	<p>고려극장은 초기에 춘향전을 창극으로 공연하다가, 이후 연극 형태로 각색하여 공연하고 있다. 이후 이 작품은 고려극장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고정 레파토리가 되었다.</p> <p>(1) 고려극장 춘향전 주요 공연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4, 이정립 각색, 연성용 연출</li> <li>•1935-1936, 공동각색, 연성용 연출. 1936년 연해주에 몇 달 순회 공연.</li> <li>•1937-1941,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고려극단 134회 공연</li> <li>•1940-1941, 이정립, 연성용, 채영 각색</li> <li>•1948, 이정립 각색, 채영 연출</li> <li>•1955, 이정립 각색, 연성용 연출</li> <li>•1956, 이정립 각색, 연성용 연출</li> <li>•1961, 이정립 각색, 연성용 연출</li> <li>•1962, 우즈벡 순회공연</li> <li>•1969, 연성용 각색, 연성용 연출</li> <li>•1976, 맹동욱 각색, 맹동욱 연출</li> <li>•1980, 최따찌아나가 춘향으로 출연</li> <li>•2007, 이영호 각색, 이영호 연출(국립극단, 고려극단 합동공연)</li> <li>•2010, 1월 30일에 춘향전 공연</li> </ul> <p>위의 공연 연보는 각종 자료를 통해 파악된 것만 제시했으며, 실제 순회공연은 다수 빠져 있어 실체는 훨씬 많다고 본다.</p> <p><b>(2) 춘향전 주요 내용과 공연방식</b> 초기 춘향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b>제 1막</b> 1장 광한루 : 춘향이가 향단이를, 이도령은 방자를 데리고 등장 → 춘향과 향단의 꽃노래. 방자의 노래. 방자·춘향·향단의 노래 2장 :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p> <p><b>제 2막</b> 3장 춘향의 집 4장 사랑가 :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가, 자진사랑가, 사랑언약 5장 이별 :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장래 언약</p> <p><b>제 3막(관실)</b> 6장 기생점고 : 기생점고. 춘향의 수청 거부. 십장가</p> <p><b>제 4막(농민 장면)</b> 7장 : 방자의 한탄 ‘어리가리너’, 농민의 유희, 농부가와 상사소리 8장 감옥 : 춘향의 옥중 한탄 노래. 춘향과 이도령의 옥중 대면</p>
--	--



	<p><b>제 5막</b></p> <p>9장(암행어사 출도) : 신관 생일잔치와 권주가. 어사출도. 춘향의 구출. 군중무</p> <p><b>(3) 춘향전 공연방식의 시대적 변화</b></p> <p>1930년대 춘향전의 초기 공연에는 판소리를 도입한 창극 형식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판소리 대신에 점차 창작된 노래와 음악이 삽입되어, 1960년대 공연에는 약 30여곡의 노래가 불려졌다. 그리고 점차 노래 대신에 연극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고어도 점차 현대식 표기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 현재는 3세대 배우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 발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초기 연해주에서는 몇 달씩 순회공연을 했으며, 관람석은 대만원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춘향전은 자주 공연되지만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고려극장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국립극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후 합동공연을 했다. 국립극단 배우 이영호가 각색, 연출을 맡고, 이몽룡역은 국립극단 김진서, 나머지 배역은 고려극장 단원이 맡아 합동공연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p> <p>시기에 따라 춘향전의 내용에 변화가 나타난다. 초기 창극시절에는 원래 춘향전에 가깝게 공연하다가 점차 사회주의의 이념적 영향을 받아 사상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신관사또를 부정적 인물로 부각시키고, 풍자와 해학을 통해 춘향과 대중들의 저항의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는 군중무를 삽입하여 민중의 저항에 의한 승리의 기쁨을 부각시켰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이다. 특히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전승한 한국의 전통 고전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p> <p>춘향전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고전작품이다. 춘향을 통해 신분제를 뛰어 넘어 사랑을 성취하는 이 땅의 강인한 여성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고려극장의 춘향전에 초기부터 열광했으며, 오랜 기간 매우 좋아했다.</p> <p>고려인들은 이국에서 살면서도 이 연극을 보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렸으며, 모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민족적 정체성을 인식했다.</p>
<p><b>기타의견</b></p>	<p>현재 고려극장은 3세대 연기자들이 한국어에 서툴고, 또한 고려인 관</p>

	<p>객들도 대부분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래에는 러시아말로 즉석 번역 이어폰을 끼고 듣는 실정이다. 또한 고려극장이 카자흐스탄 정부, 고려인연합회, 일부 한국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1932년에 창단되어 91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고려극장이 지속적인 공연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레닌의기치」 1947.12.8. 「레닌의기치」 1955.10.16.          연합뉴스, 2007.3.25. ‘카자흐 고려극장 창립 75주년 기념 공연된 춘향전’.          김이오시프, 『고려극장의 역사』, 알마아타, 1982.          김보희, 「소비에트시기 고려극장의 역사와 음악 활동1 -원동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26집, 한국국악학회, 2009.          김필영, 『소비에트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1937-1991)』, 강남대 출판부, 2004.8.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3.          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          주요철, 「카자흐스탄의 극단 ‘고려극장’ 고전작품 연극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2003.12,          정형호, 「춘향이놀이와 꼬대각시놀이에 나타난 주술적·놀이적 성격과 여성의 의식」, 『중앙민속학』 11호, 중앙대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7.2.          최석 카페, 카자흐스탄 문화마당,  <a href="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nil_cafemy=item">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nil_cafemy=item</a></p>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심청전]

명 칭	국 문	심청전	
	영 문	로마자표기	SIMCHEONGJEON
		영어풀이	Sim-cheong jeon : Sim-cheong drama
범주	심청전은 조선 후기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로 전승되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창극, 민요, 연극, 영화, 뮤지컬, 동화, 음악극, 마당극과 마당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재창작되었다. 고려극장의 심청전은 1936년 초기는 창극으로 공연되다가, 이후 점차 단순 연극 형태로 바뀌면서 수시로 공연되었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심청전을 수시로 공연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 고려극장 단원 및 공연을 관람하는 인근 고려인과 현지인	
	공동체 범위	고려인 심청전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각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 전체	
개념	심청전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선인들에게 팔려가 용왕의 제물로 바쳐진다. 그러나 바다에 뛰어들면 심청이는 심황후로 환상하고 아버지는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로, 판소리를 바탕으로 무대화한 연극이다.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p>고려극장의 심청전은 1936년 초연된 이후에 민족희곡으로서 무대에 자주 공연되었다. 초기에는 판소리를 수용해 창극 형태로 공연되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이후에는 점차 창작 음악과 노래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율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무대화되었다.</p> <p>고려극장은 1932년 9월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동변장 조선극장’으로 창단되었다. 초기 전통을 바탕으로 무대화하여 연해주 고려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순회공연을 실시했다. 특히 연해주 시기는 주로 소인예술단 출신의 태장춘, 연성용, 채영, 리길수, 김해운, 김진, 리함덕 등이 주도했다.</p> <p>1937년 가을에 스탈린 강제이주에 의해 초기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인근 지역 순회공연을 하며 활발히 활동을 재개했는데, 당시 태장춘, 태영 등이 주도했다.</p> <p>고려극장은 1942년에 독일 침공에 대비해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인</p>		

	<p>우스포베로 옮겨 극소수 인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9년에 다시 공화국의 지시로 크즐오르다로 옮기게 된다. 이후 1960년대부터 점차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배우를 배출하면서 내적 성장을 이룬다.</p> <p>1968년에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옮겨, ‘카자흐공화국 국립음악희극고려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시기부터 제 3-5세대 배우가 배출되었으며, 한진, 맹동욱, 조정구 등이 주도했다. 그리고 산하에 아리랑가무단을 창단했으며, 1990년에는 서울국립극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작업도 수행했다.</p> <p>2013년 현재 창단 81년째에 극장장은 김류보비, 총감독은 이올레그가 이끌고 있다. 80명 단원 중에 연극배우, 사물놀이, 무용단, 가수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극장의 재정 자립이 약하고, 단원들의 한국어가 미숙하며, 관객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그러나 고려극장은 여전히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전승의 선봉이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p>
<p><b>연행방법</b> (국내)</p>	<p>심청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작품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국내에서 판소리 및 판소리계소설로 전승되다가, 20세기 초에 창극, 각종 문학 및 공연물로 다양화되었다. 이 작품은 심청의 효를 부각시키고, 희생에 의한 불교적 구원을 다루어, 많은 호응을 얻고 지금도 판소리로 불리거나, 고소설로 읽혀진다.</p>
<p><b>연행방법</b> (국외)</p>	<p>고려극장에서는 초기에 심청전을 판소리 삽입한 창극으로 공연하다가, 이후 점차 연극으로 바뀌어, 수시 공연되는 고정적 레파토리가 되었다.</p> <p><b>(1) 고려극장 심청전 주요 공연 시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6, 채영 각색, 채영 연출</li> <li>•1937-1941,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고려극단 시절 심청전 62회 공연</li> <li>•1938, 채영 각색, 채영 연출</li> <li>•1947, 채영 각색, 채영 연출</li> <li>•1963, 채영 각색, 채영 연출</li> <li>•1968, 채영 각색, 채영 연출</li> <li>•1972, 채영 각색, 김이오시프 연출</li> <li>•1974, 채영 각색, 김이오시프 연출</li> <li>•1989, 김이오시프 각색, 김이오시프 연출(심청전 비평 논란 공박)</li> <li>•2009, 최영근 각색, 아말류첸꼬 연출</li> </ul>

	<p>위의 공연 연보는 각종 자료를 통해 파악된 것만 제시했으며, 실제 순회공연은 거의 빠져 있어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본다.</p> <p><b>(2) 심청전의 공연 양상과 내용</b></p> <p>고려극장의 심청전은 민족의 희곡으로서 전통음악인 판소리에 의해 창극으로 공연되다가, 점차 창작 음악과 노래로 바뀌었다. 그러나 가능하면 기존 선율을 살리는 방식으로 공연되었다. 이후 점차 음악보다는 극적 전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p> <p>유교적 효를 바탕으로 부녀간의 개인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적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리고 심청이와 가상인물인 금돌이와의 사랑이야기가 첨가되면서 멜로드라마적 요소와 허구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p> <p>이 작품은 최근에도 공연이 될 정도로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적 고전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이다. 특히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전승한 한국의 전통 고전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p> <p>심청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작품이다. 심청을 통해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주어진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어 강인하게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반영한다. 심청은 암울한 상황에서 헌신적인 자신의 희생을 통해 부친을 구하고 자신은 황후로 환생한다는 내용이다.</p> <p>고려인들은 이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도 이 연극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으며, 모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민족적 정체성을 인식했다.</p>
<p><b>기타의견</b></p>	<p>고려극장은 3세대 연기자들이 한국어에 서툴고, 또한 고려인 관객들도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근래에는 러시아말로 즉석 번역 이어폰을 끼고 관람하는 실정이다. 또한 고려극장이 카자흐스탄 정부 및 고려인연합회의 지원, 일부 한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봉착해 있다. 1932년에 창단되어 91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고려극장이 지속적인 공연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레닌의기치」 1963.1.4. 1989.5.24. 1989.8.9.          김보희, 「소비에트시기 고려극장의 역사와 음악 활동1 -원동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26집, 한국국악학회, 2009.          김필영, 『소비에트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1937-1991)』, 강남대 출판부,</p>

	<p>2004.8.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3. 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 최석 카페, 카자흐스탄 문화마당, <a href="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a></p>
--	---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흥부와 놀부(흥부전)]

명 칭	국 문	흥부와 놀부	
	영 문	로마자표기	HYUNGBU & NOLBU
		영어풀이	Hyung-bu & Nol-bu : Hyung-bu & Nol-bu drama
범주	<p>흥부와 놀부는 조선 후기에 흥부전이란 이름으로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로 전해지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창극, 연극, 동화, 음악극, 마당극과 마당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창작되었다. 고려극장 중심의 흥부와 놀부는 1946년 초기 창극을 만든 이후 연극 형태로 수시 공연되었다.</p>		
공동체	관련 공동체	<p>흥부와 놀부(흥부전)를 수시로 공연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 고려극장 단원 및 공연을 관람하는 인근 고려인과 현지인</p>	
	공동체 범위	<p>흥부와 놀부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의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각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 전체</p>	
개념	<p>흥부와 놀부는 가난하고 선한 흥부와 부자이면서 포악한 놀부 형제를 등장시켜, 흥부는 체비다리를 고쳐 체비가 물어다준 보은 박씨로 부자가 되고, 인위적으로 체비다리를 부러뜨린 놀부는 악행의 대가로 몰락한다는 내용의 한국의 고전 작품이다. 원래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인데, 고려극장에는 흥부전을 바탕으로 흥부와 놀부를 무대극으로 공연하였다.</p>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p>흥부와 놀부는 1946년에 고려극장에 의해 처음 창극 형태로 공연된 후에 주요 레파토리로 공연되었다.</p> <p>고려극장은 1932년 9월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동변강 조선극장’으로 창단되었다. 초기 전통을 바탕으로 무대화하여 연해주 고려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순회공연을 실시했다. 특히 연해주 시기는 주로 소인예술단 출신의 태장춘, 연성용, 채영, 리길수, 김해운, 김진, 리함덕 등이 주도했다.</p> <p>1937년 가을에 스탈린 강제이주에 의해 초기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II즐오르다에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인근 지역 순회공연을 하며 활발히 활동을 재개했는데, 당시 태장춘, 태영 등</p>		

	<p>이 주도했다.</p> <p>고려극장은 1942년에 독일 침공에 대비해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인 우스또베로 옮겨 극소수 인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9년에 다시 공화국의 지시로 끄즐오르다로 옮기게 된다. 이후 1960년대부터 점차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배우를 배출하면서 내적 성장을 이룬다.</p> <p>1968년에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옮겨, ‘카자흐공화국 국립음악희극고려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시기부터 제 3-5세대 배우가 배출되었으며, 한진, 맹동욱, 조정구 등이 주도했다. 그리고 산하에 아리랑가무단을 창단했으며, 1990년에는 서울국립극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작업도 수행했다.</p> <p>2013년 현재 창단 81년째에 극장장은 김류보비, 총감독은 이올레그가 이끌고 있다. 80명 단원 중에 연극배우, 사물놀이, 무용단, 가수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극장의 재정 자립이 약하고, 단원들의 한국어가 미숙하며, 관객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그러나 고려극장은 여전히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전승의 선봉이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p>
<p><b>연행방법</b> (국내)</p>	<p>국내에서는 흥부전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판소리와 창극으로 공연되고, 판소리계 소설로도 읽혀진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전래동화로 읽혀지고, 마당놀이, 아동극 등으로 공연되었다.</p>
<p><b>연행방법</b> (국외)</p>	<p>고려극장에서는 흥부와 놀부를 1940년대부터 노래를 삽입한 연극으로 수시 공연되었다.</p> <p><b>(1) 고려극장 흥부와 놀부 주요 공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6, 태장춘 각색, 채영 연출</li> <li>•1955, 태장춘 각색, 채영 연출</li> <li>•1956, 태장춘 각색, 채영 연출</li> <li>•1970, 태장춘 각색, 연성용 연출</li> <li>•1986, 태장춘 각색, 송라브렌찌 연출</li> <li>•1990, 태장춘 각색, 아빠쓰코브 연출</li> <li>•1990년 6월1일-9월 15일 : 연해주와 사할린, 북한 등 98회 순회공연에서 흥부와 놀부도 공연.</li> <li>•2008, 6월 뮤지컬 흥부놀부전 처음 공연. 8월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순회공연</li> <li>•2009, 태장춘 각색, 최로만 연출</li> </ul> <p>위의 공연 연보는 각종 자료를 통해 파악된 것만 제시했으며, 실제</p>



	<p>순회공연은 많이 빠져 있어 실체는 더 많다고 본다.</p> <p><b>(2) 흥부와 놀부의 공연 양상과 내용</b></p> <p>고려극장의 흥부와 놀부는 빈부와 선악의 문제, 형제간의 우애를 풍자적인 방식으로 무대화하였다. 태장춘이 각색한 희곡에서는 구체적인 인간들의 성격을 부각시켰는데, 특히 곱사등이, 언청이, 놀부, 놀부 아내 등을 해학성 있는 배역으로 그렸다. 작가는 소극, 해학, 대중적 노래와 춤, 판소리, 격언 등을 활용했는데, 이것은 극적 분위기를 이끌고 관객에게 재미를 주었다. 한편 마지막 장면에서는 도깨비가 놀부를 파산시키는데, 무당, 중, 백정 등이 험악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노래와 의식무를 통해, 탐욕스런 놀부를 강아지로 변하게 하는데, 이런 끝장면은 기존 판소리와 다른 양상이다. 특히 2008년에는 이 작품을 처음으로 뮤지컬로 만들어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의 영향이 크다. 특히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전승한 한국의 전통 고전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p> <p>흥부와 놀부는 흥부전이라는 한국의 대표적 고전작품이다. 형제로 설정된 흥부와 놀부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선하고 성실하게 살면 어느 뎨가는 보상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적 요소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p> <p>고려인들은 이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도 이 연극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렸으며, 모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민족적 정체성을 인식했다.</p>
<p><b>기타의견</b></p>	<p>현재 고려극장은 3세대 연기자들이 한국어에 서툴고, 또한 고려인 관객들도 대부분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연에 어려움이 있다. 근래에는 러시아말로 즉석 번역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려극장이 카자흐스탄 정부 및 고려인연합회의 지원, 그리고 일부 한국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1932년에 창단되어 91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고려극장이 지속적인 공연 활동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레닌의기치」, 1947.12.8.          「연합뉴스」, 2008.6.19.          김이오시프, 『고려극장의 역사』, 알마아타, 1982.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p>

	<p>부, 2004.3.</p> <p>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p> <p>주요철, 「카자흐스탄의 극단 '고려극장' 고전작품 연극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2003.12.</p> <p>최석 카페, 카자흐스탄 문화마당, <a href="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a></p>
--	--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홍길동전]

명 칭	국 문	홍길동전	
	영 문	로마자표기	HONGGILDONGJEON
		영어풀이	Hong gil-dong jeon : Hong gil-dong drama
범 주	<p>홍길동전은 조선 중기에 허균이 지은 고소설로 전해지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연극, 영화, 동화, 음악극, 마당극과 마당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창작되었다.</p> <p>고려극장에서 공연되는 홍길동전은 일찍이 1943년에 무대에 올려졌다가 이후 간헐적으로 공연되었다.</p>		
공동체	관련 공동체	홍길동전을 수시로 공연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 고려극장 단원 및 공연을 관람하는 고려인과 현지인	
	공동체 범위	홍길동전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각지 등에 살고 있는 고려인 전체	
개 념	<p>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고소설로 서자인 길동이 신분 벽을 뛰어넘어 점차 사회적 영역을 넓어가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는 활빈당에 들어가 의적으로 활동하며 부패한 양반과 관리를 응징하며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나중에 병조판서까지 제수받지만, 결국은 무리를 이끌고 떠나서 이상적인 세계인 울도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p>		
분 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p>홍길동전은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1943년과 1970년대에 공연되었다. 주인공 홍길동이 사회변혁적인 의식을 지니고 이상세계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소설이 혁명적 발상을 지녔기 때문인지 고려극장에서 자주 공연되지는 않았다.</p> <p>고려극장은 1932년 9월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동변강 조선극장’으로 창단되었다. 초기 전통을 바탕으로 무대화하여 연해주 고려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순회공연을 실시했다. 특히 연해주 시기는 주로 소인예술단 출신의 태장춘, 연성용, 채영, 리길수, 김해운, 김진, 리함덕 등이 주도했다.</p> <p>1937년 가을에 스탈린 강제이주에 의해 초기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인근 지역 순회공연을 하며 활발히 활동을 재개했는데, 당시 태장춘, 태영 등</p>		

	<p>이 주도했다.</p> <p>고려극장은 1942년에 독일 침공에 대비해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인 우스또베로 옮겨 극소수 인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9년에 다시 공화국의 지시로 끄즐오르다로 옮기게 된다. 이후 1960년대부터 점차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배우를 배출하면서 내적 성장을 이룬다.</p> <p>1968년에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옮겨, ‘카자흐공화국 국립음악희극고려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시기부터 제 3-5세대 배우가 배출되었으며, 한진, 맹동욱, 조정구 등이 주도했다. 그리고 산하에 아리랑가무단을 창단했으며, 1990년에는 서울국립극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작업도 수행했다.</p> <p>2013년 현재 창단 81년째에 극장장은 김류보비, 총감독은 이올레그가 이끌고 있다. 80명 단원 중에 연극배우, 사물놀이, 무용단, 가수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극장의 재정 자립이 약하고, 단원들의 한국어가 미숙하며, 관객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그러나 고려극장은 여전히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전승의 선봉이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p>
<p><b>연행방법</b> (국내)</p>	<p>홍길동전은 국내에서 고소설로 읽히다가, 근래에 와서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창작되었고, 1990-2000년대에 와서는 극담 미추에 의해 마당놀이로 무대화되기도 했다.</p>
<p><b>연행방법</b> (국외)</p>	<p>고려극장에서는 홍길동전을 1940년대와 1970년대에 무대극으로 각색하여 공연하였다.</p> <p><b>(1) 고려극장 홍길동전 주요 공연 시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3, 김기철 각색, 김해운 연출</li> <li>•1970, 김기철 각색, 채영 연출(홍길동전을 비롯한 여러 작품으로 순회공연을 함)</li> </ul> <p>위의 공연 연보는 각종 자료를 통해 파악된 것만 제시했으며, 순회 공연은 거의 빠져 있어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본다.</p> <p><b>(2) 흥부와 놀부의 공연 양상과 내용</b></p> <p>고려극장의 홍길동전은 허균의 소설을 연극화한 것이다. 1970년대 공연에는 조선시대 양반에 맞서 싸운 혁명적 인물로 그리고, 계급투쟁적인 시각에서 이를 형상화해 당시 고려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홍길동이 혁명적인 인물이기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주 공연되지는 않았다고 본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에 영향이 크다. 특히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전승한 한국의 전통 고전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p> <p>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소설이다. 이것은 혁명 소설로서 강한 사회적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적 홍길동이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런 자들에 대해 응징을 하며 사회 변혁을 시도하는 내용으로, 신분적 차별에 살아온 고려인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p> <p>고려인들은 이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도 이 연극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렸으며, 모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민족적 정체성을 인식했다고 본다.</p>
<p><b>기타의견</b></p>	<p>현재 고려극장은 3세대 연기자들이 한국어에 서툴고, 또한 고려인 관객들도 대부분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연에 어려움이 있다. 근래에는 러시아말로 즉석 번역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려극장이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연합회의 지원, 그리고 일부 한국측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p> <p>1932년에 창단되어 91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고려극장이 지속적인 공연활동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레닌의기치」, 1946.5.29. 1946.11.7. 「레닌의기치」 1970.5.2.          김이오시프, 『고려극장의 역사』, 알마아타, 1982.          김필영, 『소비에트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1937-1991)』, 강남대 출판부, 2004.8.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3.          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          주요철, 「카자흐스탄의 극단 ‘고려극장’ 고전작품 연극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2003.12,          최석 카페, 카자흐스탄 문화마당,  <a href="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nil_cafemy=item">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nil_cafemy=item</a></p>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토끼전(토끼의 간)]

명 칭	국 문	토끼전(토끼의 간)	
	영 문	로마자표기	TOKKIJEON
		영어풀이	To-kki jeon : Rabbit drama
범주	토끼전(토끼의 간)은 조선 후기에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로 전해지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창극, 연극, 동화, 음악극, 마당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창작되었다. 고려극장의 토끼전은 1959년에 무대극으로 공연된 이후, 극장의 주요 레퍼토리가 되었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토끼전(토끼의 간)을 공연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 고려극장 단원 및 공연을 관람하는 고려인과 현지인	
	공동체 범위	토끼전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각지 등에 살고 있는 고려인 전체	
개념	토끼전은 조선 후기에 별주부전, 토선생전이라고 일컫는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용왕이 병이 들자, 신하인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나가서, 토끼를 찢어 용궁으로 데려간다. 그러나 토끼는 기지를 발휘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둘러대면서 사지를 벗어나면서 부패한 왕권을 우롱한다는 이야기이다.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p>토끼전은 고려극장에서 다른 작품에 비해 비교적 늦은 1959년에 무대에 올랐으며, 1981년에 다시 공연한 후에 공연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판소리에 비해 자주 공연되지 않은 편인데, 우화적 수법에 왕권을 우롱하는 풍자적 작품이란 이유로 여겨진다.</p> <p>고려극장은 1932년 9월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동변강 조선극장’으로 창단되었다. 초기 전통을 바탕으로 무대화하여 연해주 고려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순회공연을 실시했다. 특히 연해주 시기는 주로 소인예술단 출신의 태장춘, 연성용, 채영, 리길수, 김해운, 김진, 리함덕 등이 주도했다.</p> <p>1937년 가을에 스탈린 강제이주에 의해 초기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인근 지역 순회공연을 하며 활발히 활동을 재개했는데, 당시 태장춘, 태영 등이 주도했다.</p>		

	<p>고려극장은 1942년에 독일 침공에 대비해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인 우스또베로 옮겨 극소수 인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9년에 다시 공화국의 지시로 끄즐오르다로 옮기게 된다. 이후 1960년대부터 점차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배우를 배출하면서 내적 성장을 이룬다.</p> <p>1968년에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옮겨, ‘카자흐공화국 국립음악희극고려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시기부터 제 3-5세대 배우가 배출되었으며, 한진, 맹동욱, 조정구 등이 주도했다. 그리고 산하에 아리랑가무단을 창단했으며, 1990년에는 서울국립극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작업도 수행했다.</p> <p>2013년 현재 창단 81년째에 극장장은 김류보비, 총감독은 이올레그가 이끌고 있다. 80명 단원 중에 연극배우, 사물놀이, 무용단, 가수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극장의 재정 자립이 약하고, 단원들의 한국어가 미숙하며, 관객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그러나 고려극장은 여전히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전승의 선봉이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p>
<p><b>연행방법</b> (국내)</p>	<p>토끼전은 조선 후기에 판소리로 널리 불려지거나, 판소리계소설로 널리 읽혀진 한국의 고전 작품이다. 20세기에 와서 창극, 연극, 마당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창작되었다.</p>
<p><b>연행방법</b> (국외)</p>	<p>고려극장은 토끼전을 ‘토끼의 간’이란 이름으로 1959년에 처음 공연하였다. 이후 1981년도에 다시 공연을 하는데, 다른 판소리 작품에 비해 공연 횟수가 적은 편이다.</p> <p><b>(1) 고려극장 토끼전 주요 공연 시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9, 이나풀아리, 연성웅</li> <li>•1981(토끼의 모험), 한진, 아빠쓰코브</li> </ul> <p>위의 공연 연보는 각종 자료를 통해 파악된 것만 제시했으며, 실제 순회공연은 빠져 있어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본다.</p> <p><b>(2) 토끼전의 공연 양상과 내용</b></p> <p>고려극장의 토끼전은 중앙아시아 이주 이후에 4막의 희곡으로 각색되어 무대 공연화되었다. 초기의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달리 판소리 중심의 창극이 아닌, 무대극으로 공연되었다. 특히 용왕과 별주부를 지배층의 상징적 존재로, 토끼를 핍박받는 농민층으로 설정했다. 이 작품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적 성격을 부여하여 시대를 풍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다양한 분장을 통해 용왕, 자라, 사슴, 토끼 등을</p>

	<p>잘 표현하고 있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의 영향이 크다. 특히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전승한 한국의 전통 고전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p> <p>토끼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육지에서도 약자인 토끼를 통해 부패한 왕권을 풍자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들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내용이다. 약자인 토끼를 통해 강자의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는 내용은 소수민족으로서 힘들게 살아온 고려인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었다.</p> <p>고려인들은 이국땅에서 이 연극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것이며, 모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민족적 정체성을 인식했다.</p>
<p><b>기타의견</b></p>	<p>현재 고려극장은 3세대 연기자들이 한국어에 서툰고, 또한 고려인 관객들도 대부분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연에 어려움이 있다. 근래에는 러시아말로 즉석 번역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 실정이다.</p> <p>또한 고려극장이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연합회의 지원, 그리고 일부 한국측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p> <p>1932년에 창단되어 91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고려극장이 지속적인 공연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레닌의기치」 1980.1.9 / 1982.1.22.          김이오시프, 『고려극장의 역사』, 알마아타, 1982.          김필영, 『소비에트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1937-1991)』, 강남대 출판부, 2004.8.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3.          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          주요철, 「카자흐스탄의 극단 ‘고려극장’ 고전작품 연극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2003.12,          최석 카페, 카자흐스탄 문화마당,  <a href="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a></p>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양반전]

명 칭	국 문	양반전	
	영 문	로마자표기	YANGBANJEON
		영어풀이	Yang-ban jeon : The nobility drama
범주	양반전은 조선 후기에 한문소설로 읽혀지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연극, 동화, 음악극, 마당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창작되었다. 고려극장의 양반전은 1970년대 무대극으로 공연된 이후에 연극 형태로 수시 공연되었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양반전을 공연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 고려극장 단원 및 공연을 관람하는 고려인과 현지인	
	공동체 범위	양반전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의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각지 등에 살고 있는 고려인 전체	
개념	양반전은 조선 정조(18세기 후반) 때에 연암 박지원이 쓴 한문소설이다. 내용은 가난한 양반이 빌린 관아의 곡식을 갚기 위해 양반직을 마을 부자에게 판다. 양반직을 산 마을 부자는 고을 수령으로부터 양반이 해야 할 수많은 책무를 듣고 양반직을 포기하고 만다. 이것은 양반의 형식주의와 비인간적 수탈을 비판한 작품으로, 양반의 위선적인 가면을 폭로하고 봉건계급의 타파를 주장한 풍자소설이다. 고려극장인 이 작품을 한진 각색으로 1973년 처음 무대극으로 올려 이후 간헐적으로 공연하였으며, 10여년 전인 2002년에도 공연하여, 이 극장의 주요 레파토리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p>양반전은 고려극장에서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73년에 공연된 이후에 1980년대, 2000년대에 각각 공연되었다. 양반 신분을 사고 판다는 설정이 시대에 맞지 않기에 자주 공연되지는 않았다고 본다.</p> <p>고려극장은 1932년 9월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트크에서 ‘운동변강조선극장’으로 창단되었다. 초기 전통을 바탕으로 무대화하여 연해주 고려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순회공연을 실시했다. 특히 연해주 시기는 주로 소인예술단 출신의 태장춘, 연성용, 채영, 리길수, 김해운, 김진, 리함덕 등이 주도했다.</p> <p>1937년 가을에 스탈린 강제이주에 의해 초기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꼬즐오르다에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인근 지</p>		

	<p>역 순회공연을 하며 활발히 활동을 재개했는데, 당시 태장춘, 태영 등이 주도했다.</p> <p>고려극장은 1942년에 독일 침공에 대비해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인 우스또베로 옮겨 극소수 인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9년에 다시 공화국의 지시로 끄즐오르다로 옮기게 된다. 이후 1960년대부터 점차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배우를 배출하면서 내적 성장을 이룬다.</p> <p>1968년에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옮겨, ‘카자흐공화국 국립음악회극고려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시기부터 제 3-5세대 배우가 배출되었으며, 한진, 맹동욱, 조정구 등이 주도했다. 그리고 산하에 아리랑가무단을 창단했으며, 1990년에는 서울국립극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작업도 수행했다.</p> <p>2013년 현재 창단 81년째에 극장장은 김류보비, 총감독은 이올레그가 이끌고 있다. 80명 단원 중에 연극배우, 사물놀이, 무용단, 가수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극장의 재정 자립이 약하고, 단원들의 한국어가 미숙하며, 관객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그러나 고려극장은 여전히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전승의 선봉이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p>
<p><b>연행방법</b> (국내)</p>	<p>양반전은 조선 중기 이후에 한문소설로 읽혀지다가, 20세기에 들어와 동화로 개작되고, 아동극, 마당놀이 등으로 공연되었다.</p>
<p><b>연행방법</b> (국외)</p>	<p>고려극장에서 양반전은 1970년대부터 처음 무대극으로 공연된 후에 간헐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다.</p> <p><b>(1) 고려극장 양반전 주요 공연 시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3, 한진 각색, 김이오시프 연출</li> <li>•1985, 한진 각색, 이올레그 연출</li> <li>•2002, 한진 각색, 이올레그 연출</li> </ul> <p>위의 공연 연보는 각종 자료를 통해 파악된 것만 제시했으며, 실제 순회공연은 빠져 있어 실재는 더 많다고 본다.</p> <p><b>(2) 양반전의 공연 양상과 내용</b></p> <p>고려극장의 양반전은 박지원의 소설을 연극화한 것으로, 신분제를 풍자하고 있다. 특히 천민형 인물이면서 허구적 인물인 오쇠, 돌쇠, 마당쇠 등을 가미하여 공연한 것이 특색이다. 양반을 탐욕스럽고, 난폭하며, 위선적인 인물로 그리면서, 양반을 신분제에 의지하며 사는</p>

	<p>무능한 존재로 비판하고 있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전승한 한국의 전통 고전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p> <p>고려극장의 양반전은 박지원이 지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소설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양반들을 포악하고, 위선적이며, 무능한 존재로 폭로하면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p> <p>고려인들은 이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이 연극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렸으며, 모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민족적 정체성을 인식했다.</p>
<p><b>기타의견</b></p>	<p>현재 고려극장은 3세대 연기자들이 한국어에 서툰고, 또한 고려인 관객들도 대부분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연에 어려움이 있다. 근래에는 러시아말로 즉석 번역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 실정이다.</p> <p>또한 고려극장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연합회의 지원, 그리고 일부 한국측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처해 있다.</p> <p>1932년에 창단되어 91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고려극장이 지속적인 공연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레닌의기치」 1974.4.20</p> <p>김이오시프, 『고려극장의 역사』, 알마아타, 1982.</p> <p>김필영, 『소비에트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1937-1991)』, 강남대 출판부, 2004.8.</p> <p>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3.</p> <p>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p> <p>주요철, 「카자흐스탄의 극단 ‘고려극장’ 고전작품 연극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2003.12.</p> <p>최석 카페, 카자흐스탄 문화마당, <a href="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a></p>

##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애랑전(배비장전)]

명 칭	국 문	애랑전(배비장전)	
	영 문	로마자표기	AERANGJEON(BAEBIJANGJEON)
		영어풀이	Ae-rang jeon(Bae bi-jang jeon) : Ae-rang drama
범주	애랑전(배비장전)은 조선 후기에 판소리 12마당으로 전승되었지만, 후에 판소리는 소멸되고 고소설로 읽혀졌다.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 동화, 음악극, 마당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창작되었다. 고려극장의 애랑전은 1962년 무대극으로 공연된 이후에 연극 형태로 간혹 공연되었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애랑전(배비장전)을 공연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 고려극장 단원 및 공연을 관람하는 고려인과 현지인	
	공동체 범위	고려인 애랑전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각지 등에 살고 있는 전체 고려인	
개념	<p>애랑전은 조선 후기에 작자 미상의 판소리계소설인 배비장전, 또는 판소리인 배비장타령을 말한다. 이 작품은 판소리 12마당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재효는 이 작품을 포함해 6마당을 제외했다.</p> <p>이 작품은 제주에 부임한 배비장이 기생 애랑에게 현혹되어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 배비장은 개가죽관을 쓰고, 고을 수령과 육방관속, 군졸들이 보는 앞에서 치아를 빼주고, 알몸으로 께짝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크게 망신당한다. 여기에 그의 하인인 방자와 제주목사가 가세한다. 이 작품은 관인들의 비리와 야합 등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p>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p>애랑전(배비장전)은 기생 애랑이 양반 배비장을 골탕먹인다는 설정으로, 고려극장에 의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62년대에 처음 무대에 올랐다. 이후 70-80년대에 올린 이후에 근래는 공연되지 않았다.</p> <p>고려극장은 1932년 9월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트크에서 '운동변장 조선극장'으로 창단되었다. 초기 전통을 바탕으로 무대화하여 연해주 고려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순회공연을 실시했다. 특히 연해주 시기는 주로 소인예술단 출신의 태장춘, 연성용, 채영, 리길수, 김해운, 김진, 리함덕 등이 주도했다.</p>		

	<p>1937년 가을에 스탈린 강제이주에 의해 초기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b>끄즐오르다</b>에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인근 지역 순회공연을 하며 활발히 활동을 재개했는데, 당시 태장춘, 태영 등이 주도했다.</p> <p>고려극장은 1942년에 독일 침공에 대비해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인 <b>우스포베로</b> 옮겨 극소수 인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9년에 다시 공화국의 지시로 <b>끄즐오르다</b>로 옮기게 된다. 이후 1960년대부터 점차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배우를 배출하면서 내적 성장을 이룬다.</p> <p>1968년에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옮겨, ‘카자흐공화국 국립음악회극고려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시기부터 제 3-5세대 배우가 배출되었으며, 한진, 맹동욱, 조정구 등이 주도했다. 그리고 산하에 아리랑가무단을 창단했으며, 1990년에는 서울국립극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작업도 수행했다.</p> <p>2013년 현재 창단 81년째에 극장장은 김류보비, 총감독은 이올레그가 이끌고 있다. 80명 단원 중에 연극배우, 사물놀이, 무용단, 가수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극장의 재정 자립이 약하고, 단원들의 한국어가 미숙하며, 관객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그러나 고려극장은 여전히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전승의 선봉이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p>
<p><b>연행방법</b> (국내)</p>	<p>배비장전은 조선 후기 판소리로 불려지고, 판소리계 소설로 읽혀지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판소리는 단절되고, 마당놀이, 전통 아동극으로 공연되거나,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창작되었다.</p>
<p><b>연행방법</b> (국외)</p>	<p>고려극장에서는 애랑전을 1962년에 처음 무대극으로 공연하여 1980년대 후반까지 공연하였다.</p> <p><b>(1) 고려극장 애랑전 주요 공연 시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2, 맹동욱 각색, 맹동욱 연출</li> <li>•1977, 맹동욱 각색, 후안시 연출</li> <li>•1987, 맹동욱 각색, 맹동욱 연출</li> </ul> <p>위의 공연 연보는 각종 자료를 통해 파악된 것만 제시했으며, 순회공연은 빠져 있어 실제는 더 많다고 본다.</p> <p><b>(2) 양반전의 공연 양상과 내용</b></p> <p>이 작품은 맹동욱이 배비장전을 각색한 작품이다. 맹동욱은 북한 출신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정치적 이유로 소비에트에 망명하여 고려극</p>

	<p>장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관인사회의 모순과 위선을 배비장을 통해 풍자했으며, 이 과정에 기생 애랑이 주도하고 고을 수령과 하인 방자가 조연을 한다.</p> <p>고려극장의 공연에서는 애랑역을 자긍심이 강하고 재치있는 기생으로 부각시켰고, 애랑을 좋아하는 박무사라는 또다른 인물을 등장시켜 배비장과 사이에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했다. 그리고 또다른 호색한 정부사, 익살스런 고을수령 등을 등장시켰다. 애랑 역을 맡은 창단 배우 이함덕은 한국적 몸짓과 장단을 통해 풍자를 더욱 부각시켰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전승한 한국의 전통 고전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p> <p>고려극장의 양반적은 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인사회의 비리와 야합상을 풍자한 작품이다. 공직 사회의 윤리에 벗어난 인물을 강하게 풍자하여, 한인들의 관심을 끌었다.</p>
<p><b>기타의견</b></p>	<p>현재 고려극장은 3세대 연기자들이 한국어에 서툰고, 또한 고려인 관객들도 대부분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연에 어려움이 있다. 근래에는 러시아말로 즉석 번역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 실정이다.</p> <p>또한 고려극장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연합회의 지원, 그리고 일부 한국측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부닥쳐 있다.</p> <p>1932년에 창단되어 91년의 역사를 지닌 고려극장이 지속적인 공연 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레닌의기치」 1974.4.20          김이오시프, 『고려극장의 역사』, 알마아타, 1982.          김필영, 『소비에트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1937-1991)』, 강남대 출판부, 2004.8.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3.          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          주요철, 「카자흐스탄의 극단 '고려극장' 고전작품 연극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2003.12,          최석 카페, 카자흐스탄 문화마당,  <a href="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http://cafe.daum.net/kazakhstanculture?t__nil_cafemy=item</a></p>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북춤(소고춤, 장고춤 포함)]

명칭	국문	북춤(장고춤, 소고춤)	
	영문	로마자표기	BUKCHUM(JANGGOCHUM, SOGO CHUM)
		영어풀이	Buk chum(Jang-go chum, So-go chum) : Drum dance(Big & Small drum dance, Hourglass shaped drum dance)
범주	북춤, 장고춤, 소고춤으로 묶어 하나의 북춤으로 분류한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북춤(장고춤, 소고춤 포함)을 전승하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비둘기가무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꽃봉오리예술단, 고려양상블, 모란봉예술단,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아리랑가무단, 고려가무단, 오르춤 칠성가무단 단원 및 공연 관람객	
	공동체 범위	북춤(장고춤, 소고춤 포함)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의 고려인 거주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각지 등에 살고 있는 전체 고려인 지역	
개념	북춤이나 장고춤, 소고춤은 나무에 가죽을 씌운 악기를 두드리며 춤을 추는 춤이다. 소고는 하나의 채로 두드리지만, 북은 주로 쌍채로 두드리며, 장고는 북편과 채편으로 나누어 손과 채를 이용해 두드린다. 한편 크기에 있어 북이나 장고보다는 소고춤이 악기가 작아 춤의 활동 폭이 넓고 더 다양한 변화있는 춤을 출 수 있다.		
분류	공연예술/사회관습, 의식, 축제		
전승방법	고려인의 북춤, 장고춤, 소고춤은 북한식 춤을 중심으로 한다. 근래 한국의 춤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소비에트연방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식 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북춤은 북을 틀에다 매달아놓고 두드리며 춤을 추는 매단 북춤, 북을 받침대에 받쳐놓고 두드리면서 춤추는 눅힌 북춤이 있다. 두 손에 쌍채를 들고 추는 춤이 중심을 이루는데, 엇바꾸어가며 두드리기, 동시에 두드리기, 북통 둘레 훑으며 북통 때리기, 팔을 휘둘러 뒤로 두드리기, 위에서 훑으며 아래로 내려치기, 밑에서 훑으며 위로 올려치기 등 다양하다. 발동작으로는 발을 벌려구르기, 엇바꾸어 돌며 뛰기, 굽디더 구르기 등이 있다. 북춤은 고구려시대부터 오랜 역사를 지니며, 장단이 아주 다양하고 변화가 풍부하다. 장고춤은 최승희의 춤을 기본으로 하며, 팔동작과 디딤동작, 장고치는 동작을 골자로 한다. 주		

<p>된 팔동작으로 ‘메고 감음체 열고 닫음’, ‘춤장단체’, 동작에 변화를 줄 때 삽입되는 ‘머리사위돌기’ 등이 있다. 여기서 ‘춤장단체’는 한 팔은 위에서 아래로 원을 그리듯이 하면서 양팔을 스쳐 교차하듯 움직이는 동작이다. 그리고 장고를 치는 동작으로는 한 팔을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다른 한 팔로 장고를 메고 치기, 장고의 편을 양팔 또는 한 팔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순간적으로 내려치면서 정지하는 ‘쳐내려 멈추기’가 있다.</p> <p>소고춤은 한번 치는 동작부터 두 번, 세 번, 네 번 치는 동작이 있으며, 소고 돌리는 동작, 무릎 치는 동작, 발끝 치는 동작, 잔가락 치는 동작 등이 있다. 한 번 치는 동작은 내려치기, 올려치기, 쳐 메기, 돌려치기, 돌려 올리며 치기, 찢혀 치고 땅 치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장단은 주로 짚은 굵거리장단을 사용하며, 안땅, 당악 장단도 사용한다. 소고를 쥐는 방식에도 보통 쥐기, 옆어 쥐기, 찢혀 쥐기, 세워 쥐기, 돌려 쥐기가 있다.</p> <p>고려인의 북춤과 장고춤, 소고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비둘기가무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꽃봉오리예술단, 고려양상블, 모란봉예술단,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의 아리랑가무단, 고려가무단, 오르춤의 칠성가무단 등이 전승을 주도한다.</p> <p>비둘기무용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1989년에 김림마(여, 67세)가 창단했으며, 주로 5-23세의 미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림마는 고려극장 공훈배우인 김블라지미르의 부인으로 고려극장의 핵심 무용수 출신이다. 이 무용단은 주로 칼춤, 북춤, 부채춤, 도라지춤 등을 추며, 근래 한국의 승무, 살풀이춤, 기타 현대 창작춤 등을 수용했다. 일반 대외공연 이외에 고려문화의 날 행사, 단오 등의 주요 고려인 세시행사에 공연을 한다.</p> <p>청춘무용단은 우즈베키스탄 황만금콜호즈(1953년) 소속의 직업적 무용단으로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하다가 1996년 소멸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순회공연을 할 정도로 기능이 우수했으며, 주로 북한춤인 쟁강춤, 부채춤, 장고춤, 아박춤, 돈돌나리 등의 춤을 추었다.</p> <p>꽃봉오리예술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고려인문화협회 소속으로, 주라리사(여, 42세, 예전 청춘무용단 활동)가 2005년에 창단했다. 30명의 6-16세 여성으로 구성된 예술단으로 한국춤으로 북춤, 장고춤, 남북한 부채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작춤, 인도와 중국, 세계 다양한 춤, 기타 창작춤 등을 추고 있다. 각종 대외 공연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근래 단장이 한국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춤을 점차 늘</p>
---



	<p>려가고 있다.</p> <p>고려양상블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고려인문화협회 소속의 10대와 20대 초반의 여성 무용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에 한마르가리따(여)에 의해 창단되었으며, 원래 북한의 부채춤, 장고춤, 농악춤, 북춤 등을 추다가, 근래에는 남한의 살풀이, 태평무, 한량무 등도 추며, 사물놀이와 브레이크댄스도 도입하고 있다.</p> <p>모란봉예술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고려노인협회 소속으로 북한과 밀접한 연계를 지닌 무용단이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1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무용단으로 부채춤, 쟁강춤, 칼춤, 소고춤, 오복춤, 북춤, 장고춤, 소리꽃, 비둘기춤을 주로 하며, 설날, 단오, 추석 등에 고려인 세시명절에 공연하고, 평양의 4월 봄축전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한다. 유영희(여, 26세)가 예술감독이며, 노인회를 이끄는 주영일(남, 63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통일연합회 회장)이 단장을 겸한다.</p> <p>아리랑가무단은 1995년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김발레리아(여, 52세, 고려일보 발행인)에 의해 창단되었다. 주로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대외 공연을 하고, 고려인의 세시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북한 무용선생이 15년간 지도를 해서 주로 북한의 부채춤, 북춤, 비둘기춤, 오고춤, 아리랑춤 등을 추다가, 근래 한국의 부채춤과 타악퍼포먼스도 배우고 있다.</p> <p>칠성가무단은 1997년 러시아 연해주 오르츠크를 중심으로 김따찌야나(여, 67세)가 창단했다. 주로 여학생으로 구성된 무용단으로 대외 공연활동을 활발히 하며,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한 선생님이 오랫동안 지도했으며, 주로 북한의 칼춤, 부채춤, 장구춤, 우산춤, 쟁강춤, 인형춤 등을 추고, 전통 민요, 가야금 연주 등을 하는 가무단이다.</p> <p>고려가무단은 러시아 연해주의 우스리스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2006년 창단된 모란봉가무단이 2010년에 이름을 바꾼 것이다. 모두 50-70대 초반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들강변춤, 소고춤, 아리랑춤, 북한과 남한의 부채춤 등이 주요 레파토리이며, 민요와 대중가요 등도 노래한다. 고려인들의 단오, 설, 추석 등의 주요 세시에 공연하며, 뒤풀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가무단과 구별된다. 이 가무단은 오랫동안 북한 무용가의 지도를 받았으며, 노인단 회장인 윤스타니스라브(남, 76세)가 창단부터 단장을 맡고 있고, 이엘레나(여, 66세, 고려가무단)가 현재 자체 지도하고 있다.</p>
<p><b>연행방법</b></p>	<p>한국에서는 각 지역 전승의 북춤이 중심을 이루며, 무대공연용으로도</p>

<p>(국내)</p>	<p>새로 구성되기도 한다.</p> <p>지역 전승의 북춤은 북채를 하나로 치는 외북채, 두 개로 치는 쌍북채춤이 있다. 주로 외북채춤은 삼진삼퇴, 제자리 회전, 연풍대, 까치걸음, 발 벌리고 치거나 한 발 들어 북치기, 북 돌리기, 덧배기춤, 굿거리춤 등이 있다. 쌍 북채춤은 어깨춤, 빠른 걸음으로 회전, 제자리 뛰기, 연풍대, 옆으로 다리 들기, 북치고 양손 들기, 갈지자 뛰기 등이 있다.</p> <p>소고춤은 채상모 또는 고깔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채상모 소고춤은 외상모, 양상모, 사사(좌우 한번 교대), 앞뒤로 젓히기 사위, 역진 굿놀이, 맺는 상, 앉은상, 지게북, 연풍대, 자반뛰기, 외방아 짚기, 쌍방아 짚기, 각종 법고, 까치걸음, 앉아 상모돌리기, 발림 등이 있다. 한편 작은 상모, 긴 상모, 부포를 이용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준다.</p> <p>장고춤은 농악에서 숙바더듬(오른손 놀리기), 고깔더듬, 통돌림, 채바꿈치기, 사채, 테돌림, 발림, 까치걸음, 명석말이, 학걸음, 삼진삼퇴, 좌우치기, 연풍대 등이 있다.</p>
<p>연행방법 (국외)</p>	<p>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북춤, 장구춤, 소고춤은 대체로 북한의 영향을 받아 빠른 속도의 직선적이고 동적인 춤을 춘다.</p> <p>북한의 춤은 최승희 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주체미학론에 의거하여 개조, 창작 발전시켰다. 1970년대부터 북춤, 검무, 부채춤, 봉산탈춤, 농악무, 승무 등을 발굴 정리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민속춤의 현대적 감각과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재창조 작업을 실시하여, 농악무, 무사춤, 검무, 북춤, 삼인무, 부채춤, 장고춤 등이 나타난다. 또한 다시 민속무용춤의 새로운 창조사업을 실시해 도라지, 방울춤, 손북춤, 달맞이 등이 나타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춤에 노동생활, 전투생활, 세대생활 무용의 성격을 크게 반영했다.</p> <p>대체로 북한춤은 상체에 긴장감을 넣어 등을 곧게 편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동작들도 직선적 이미지의 큰 움직임이 유연하고 빠르며 절도 있게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다. 곧 제한적 상상력 형식으로, 동작의 중심은 높고, 관절의 가볍고 경쾌한 굴신과 상향의 팔동작이 많으며, 발레의 기법을 가미했다. 따라서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기법을 가미해 동서양의 퓨전식 춤을 지향한다.</p>
<p>사회적 기능 및 중점</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에 의한다. 특히 각 지역의 가무단이나 예술단을 통한 한국의 전통춤은 고려인들이 모여 삶의 한과 신명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춤을 통</p>

<p><b>조사 내용</b></p>	<p>해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집단의 슬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p>
<p><b>기타의견</b></p>	<p>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은 북한과 인접해 있어 최근까지 북한 춤과 음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근래 한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한국의 춤을 배우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단기가 아닌 몇 달 이상 머무르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 한국의 춤과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드물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한국 전통예술을 가르칠 선생님을 이 지역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p> <p>2014년은 고려인 연해주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한국 측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전통문화의 전승을 주도하는 이들 단체에 조직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p> <p>한편 중앙아시아는 북한과 남한의 영향을 받는 예술단이 공존하는 형태를 지니지만, 근래 한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춤과 노래를 비롯해 한국 전통예술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에 의해 전승되는 양상을 보이며,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김채원, 『최승희의 춤 -계승과 변용』, 민속원, 2008.11.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3.          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2002.12.          박중성, 『조선민속무용』, 문예출판사, 1991.          최승희 저, 정병호 해제, 『조선민족무용기본』, 동문선, 1991.3.</p>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칼춤]

명칭	국문	칼춤	
	영문	로마자표기	KALCHUM
		영어풀이	Kal-chum : Sword dance
범주	칼춤은 검무라 해서 무속춤, 사자춤, 교방춤 등에 두루 사용된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칼춤을 전승하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비둘기가무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모란봉예술단,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오르춤 칠성가무단 단원 및 공연 관람객	
	공동체 범위	칼춤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고려인 거주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각지 등에 살고 있는 전체 고려인 지역	
개념	칼춤은 검무를 말하는데, 신라 황창무에서 유래한다. 대체로 전립과 전복, 전대를 한 무원 4인이 추는 방식이다. 과거에 비해 칼의 길이가 점차 짧아지고 손잡이가 돌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대체로 칼을 안과 밖으로 돌리고, 돌거나 끼거나 땅을 치고, 앉았다 일어나며, 칼날 치는 동작 등이 중심이다. 칼이 지닌 날카로움을 벗어나 유연한 춤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분류	공연예술/사회관습, 의식, 축제		
전승방법	<p>고려인의 칼춤은 대부분 북한 칼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 타령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동작은 칼을 밖으로 돌리는 동작, 안으로 돌리는 동작, 한칼 안으로 한칼 밖으로 같이 돌리는 동작, 두 칼 안팎으로 돌리는 동작, 두 칼 끼는 동작, 한 칼 끼는 동작, 땅 치는 동작, 칼날 치는 동작, 돌아가며 칼 돌리는 동작, 앉았다 일어나며 돌리는 동작 등이 있다.</p> <p>칼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비둘기가무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모란봉가무단, 러시아 연해주 오르춤의 칠성가무단 등에서 전승한다.</p> <p>비둘기무용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1989년에 김림마(여, 67세)가 창단했으며, 주로 5-23세의 미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림마는 고려극장 공훈배우인 김블라지미르의 부인으로 고려극장의 핵심 무용수 출신이다. 이 무용단은 주로 칼춤, 북춤, 부채춤, 도라지춤 등을 하며, 근래 한국의 승무, 살풀이춤, 기타 현대 창작춤 등을 수용했다. 일반 대외공연 이외에 고려문화의 날 행사, 단오 등의 주요 고</p>		

	<p>려인 세시행사에 공연을 한다.</p> <p>모란봉예술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고려노인협회 소속으로 북한과 밀접한 연계를 지닌 무용단이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1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무용단으로 부채춤, 쟁강춤, 칼춤, 소고춤, 오복춤, 북춤, 장고춤, 소리꽃, 비둘기춤을 주로 하며, 설날, 단오, 추석 등에 고려인 세시명절에 공연하고, 평양의 4월 봄축전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한다. 유영희(여, 26세)가 예술감독이며, 노인회를 이끄는 주영일(남, 63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통일연합회 회장)가 단장을 겸한다.</p> <p>칠성가무단은 1997년 러시아 연해주 오르춤을 중심으로 김따찌야나(여, 67세)가 창단했다. 주로 여학생으로 구성된 무용단으로 대외 공연활동을 활발히 하며,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한 출신 선생님이 오랫동안 지도했으며, 주로 북한의 칼춤, 부채춤, 장구춤, 쟁강춤, 우산춤, 인형춤, 명절춤을 추고, 전통 민요, 가야금 연주 등을 하는 가무단이다.</p>
<p><b>연행방법 (국내)</b></p>	<p>칼춤은 검무라 해서 교방을 중심으로 기녀들이 전승하였으며, 진주검무, 해주검무 등으로 지역 전승되기도 했다. 한편 북청사자놀음에도 칼춤이 삽입되어 있다.</p>
<p><b>연행방법 (국외)</b></p>	<p>칼춤은 북한의 영향을 받아 고려인 거주지역의 다양한 가무단에서 공연된다. 짧은 칼을 이용해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연풍대로 돌면서 다양한 동작에 의한 춤을 춘다.</p> <p>북한의 춤은 최승희 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주체미학론에 의거하여 개정, 창작 발전시켰다. 1970년대부터 북춤, 검무, 부채춤, 봉산탈춤, 농악무, 승무 등을 발굴 정리한다. 이후 이를 토대로 민속춤의 현대적 감각과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재창조 작업을 실시하여, 농악무, 무사춤, 검무, 북춤, 삼인무, 부채춤, 장고춤 등이 나타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속무용춤의 새로운 창조사업을 실시해 도라지, 방울춤, 손북춤, 달맞이 등이 나타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춤에 노동생활, 전투생활, 세대생활 무용의 성격을 크게 반영했다.</p> <p>춤동작은 대체로 상체에 긴장감을 넣어 등을 곧게 편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동작들도 직선적 이미지의 큰 움직임이 유연하고 빠르고 절도 있게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다. 곧 제한적 상상불 형식으로서, 동작의 중심은 높고, 관절의 가볍고 경쾌한 굴신과 상향의 팔동작이 많으며, 발레의 기법을 가미했다. 따라서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기법을 가미해 동서양의 퓨전식 춤을 지향한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에 영향이 크다. 특히 각 지역의 가무단이나 예술단을 통한 한국의 전통춤은 고려인들이 모여 삶의 한과 신명을 풀어가는 역할을 한다. 춤은 그들 사이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집단의 슬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매개 역할을 한다.</p>
<p><b>기타의견</b></p>	<p>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은 북한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북한 춤과 음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근래 한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한국의 춤을 배우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단기가 아닌 몇 달 이상 머무르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 한국의 춤과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드물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전통 예술을 가르칠 선생님을 이 지역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은 고려인 연해주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한국 측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전통문화의 전승을 주도하는 이들 단체에 조직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중앙아시아는 북한과 남한의 영향을 받는 예술단이 공존하는 형태를 지니지만, 근래 한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춤과 노래를 비롯해 한국 전통예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에 의해 전승되는 양상을 보이며,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김채원, 『최승희의 춤 -계승과 변용』, 민속원, 2008.11.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3. 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2002.12. 박중성, 『조선민속무용』, 문예출판사, 1991. 최승희 저, 정병호 해제, 『조선민족무용기본』, 동문선, 1991.3.</p>

[전통적 공연예술분야 대표목록 - 부채춤]

명 칭	국 문	부채춤	
	영 문	로마자표기	BUCHAECHUM
		영어풀이	Bu-chae chum : Korean Fan dance
범주	부채는 무속춤, 탈춤, 판소리, 발탈, 줄타기, 한량무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도구이다. 특히 탈춤에서도 부채는 노장, 할미와 영감, 양반 등에 두루 쓰인다. 부채춤은 부채만을 가지고 추는 창작춤으로 화려한 부채가 등장한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북춤(장고춤, 소고춤 포함)을 전승하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비둘기가무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청춘무용단, 꽃봉오리예술단, 고려양상블, 모란봉예술단,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아리랑가무단, 고려가무단, 오르춤 칠성가무단 단원 및 공연 관람객	
	공동체 범위	부채춤의 전승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고려인 거주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기타 각지 등에 살고 있는 전체 고려인 지역	
개념	부채춤은 부채를 들고 이것을 폼다고 접고, 돌리거나 뿌리면서 다양한 기교를 부리면서 춤을 추는 무용이다. 이것은 1954년 무용가 김백봉에 의하여 창작되어 선을 보인 신무용계열에 속하는 창작무용이다. 이것은 초기에 독무로 추다가, 1968년 멕시코올림픽 시기의 세계민속예술제전에서 한국민속예술단에 의하여 군무로 추어지기 시작했다.		
분류	공연예술/사회관습, 의식, 축제		
전승방법	<p>고려인 사회의 부채춤은 크게 북한식 부채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근래 대한민국과 교류하는 일부 단체에서 남한식 부채춤이 나타난다.</p> <p>북한식 부채춤은 부채를 다양하게 다루면서 펼쳐나가는 부채퍼기, 부채돌리기와 휘감기 등이 있으며, 발디딤으로는 작은 걸음과 보통걸기가 있다. 북한의 부채춤은 남한의 부채춤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한박자에 부채를 두 번 돌리거나 후반부에 빠른 리듬을 추가하여 변화를 준다.</p> <p>카자흐스탄 알마티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둘기무용단은 1989년에 김림마(여, 67세)가 창단했으며, 주로 5-23세의 미혼여성으로 구성</p>		

되어 있다. 김림마는 고려극장 공훈배우인 김블라지미르의 부인으로 고려극장의 핵심 무용수 출신이다. 이 무용단은 주로 칼춤, 북춤, 부채춤, 도라지춤 등을 공연하며, 근래 한국의 승무, 살풀이춤, 기타 현대 창작춤 등을 수용했다. 일반 대외공연 이외에 고려문화의 날 행사, 단오 등의 주요 고려인 세시행사에 공연을 한다.

청춘(진춘)무용단은 우즈베키스탄 황만금콜호즈(1953년) 소속의 직업적 무용단으로 오랫동안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1996년 소멸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순회공연을 할 정도로 기능이 우수했으며, 주로 북한춤인 장강춤, 부채춤, 장고춤, 아박춤, 돈돌나리 등의 춤을 추었다. 꽃봉오리예술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고려인문화협회 소속으로, 주라리사(여, 42세, 예전 청춘무용단 활동)가 2005년에 창단했다. 30명의 6-16세 여성으로 구성된 예술단으로 한국춤으로 북춤, 장고춤, 남북한 부채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작춤, 인도와 중국, 세계 다양한 춤, 기타 창작춤 등을 추고 있다. 각종 대외 공연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근래 단장이 한국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춤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고려양상블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고려인문화협회 소속의 10대와 20대 초반의 여성 무용단이다. 1998년에 한마르가리따(여)에 의해 창단되었으며, 원래 북한의 부채춤, 장고춤, 농악춤, 북춤 등을 추다가, 근래에는 남한의 살풀이, 태평무, 한량무 등도 추며, 사물놀이와 브레이크댄스도 도입하고 있다. 모란봉예술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고려노인협회 소속으로 북한과 밀접한 연계를 지닌 무용단이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1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무용단으로 부채춤, 쟁강춤, 칼춤, 소고춤, 오복춤, 북춤, 장고춤, 소리꽃, 비둘기춤을 주로 하며, 설날, 단오, 추석 등의 고려인 세시명절에 공연하고, 평양의 4월 봄축전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한다. 유영희(여, 26세)가 예술감독이며, 노인회를 이끄는 주영일(남, 63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통일연합회 회장)이 단장을 겸한다.

아리랑가무단은 1995년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김발레리아(여, 52세, 고려일보 발행인)에 의해 창단되었다. 주로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대외 공연을 하고, 고려인의 세시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북한 무용선생이 15년간 지도를 해서 주로 북한의 부채춤, 북춤, 비둘기춤, 오고춤, 아리랑춤 등을 전승하다가, 근래 한국의 부채춤과 타악 퍼포먼스도 도입하고 있다.

칠성가무단은 1997년 러시아 연해주 오르츨름을 중심으로 김따찌야나(여, 67세)가 창단했다. 주로 여학생으로 구성된 무용단 중심으로 대



	<p>외 공연활동을 하며,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한 선생님이 오랫동안 지도했으며, 주로 북한의 갈춤, 부채춤, 장구춤, 정각춤, 우산춤, 인형춤, 명절춤을 추고, 전통 민요, 가야금 연주 등을 하는 가무단이다.</p> <p>고려가무단은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를 중심으로 2006년 창단된 모란봉가무단이 2010년에 이름을 바꾼 것이다. 모두 50-70대 초반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들강변춤, 소고춤, 아리랑춤, 북한과 남한의 부채춤 등이 주요 레파토리이며, 민요와 대중가요 등도 노래한다. 고려인들의 단오, 설, 추석 등의 주요 세시에 공연하며, 뒤풀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가무단과 구별된다. 이 가무단은 오랫동안 북한 무용가의 지도를 받았으며, 노인단 회장인 윤스타니슬라브(남, 76세)가 창단부터 단장을 맡고 있고, 이엘레나(여, 66세, 고려가무단)가 현재 자체 지도하고 있다.</p>
<p><b>연행방법 (국내)</b></p>	<p>부채춤은 1954년 김백봉에 의해 창작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춤으로 급격히 퍼져 나갔다.</p> <p>각급 무용단, 대학의 무용학과, 리틀엔젤스 등에 의해 활발히 공연되며, 외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춤이다. 이것은 부채를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정중동의 움직임의 잘 표현하고 있다.</p> <p>춤의 반주음악은 창부타령의 굿거리, 자진모리 장단을 쓴다. 대개 복식은 머리 위엔 화사하게 장식된 족두리를 얹고, 미색 바탕에 수련꽃을 수놓은 당의풍(唐衣風)의 저고리와 진분홍색 통치마를 입으며, 양손에 무선(巫扇) 모양의 꽃부채를 든다.</p>
<p><b>연행방법 (국외)</b></p>	<p>북한의 부채춤에서는 남한에 비해 속도가 빠르는데, 대개 한 박자에 한 번 돌렸던 부채를 두 번 돌리거나 후반부에 빠른 리듬을 추가, 삽입하여 움직임을 빠르게 전개하는 변화를 주고 있다.</p> <p>북한에서 춤예술의 계승과 창조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교조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p> <p>북한의 춤은 최승희 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주체미학론에 의거하여 개정, 창작 발전시켰다. 1970년대부터 북춤, 검무, 부채춤, 봉산탈춤, 농악무, 승무 등을 발굴 정리한다. 이후 이를 토대로 민속춤의 현대적 감각과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재창조 작업을 실시하여, 농악무, 무사춤, 검무, 북춤, 삼인무, 부채춤, 장고춤 등이 나타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속무용춤의 새로운 창조사업을 실시해 도라지, 방울춤, 손북춤, 달맞이 등이 나타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춤에 노동생활, 전투생활, 세태생활 무용의 성격을 크게 반영했다.</p>


	<p>따라서 춤동작은 상체에 긴장감을 넣어 등을 곧게 편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동작도 직선적 이미지의 큰 움직임을 유연하고 빠르고 절도 있게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다. 곧 제한적 앙상블 형식으로서, 동작의 중심은 높고, 관절의 가볍고 경쾌한 굴신과 상향의 팔동작이 많이 사용하며, 발레의 기법을 가미했다. 따라서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기법을 가미해 동서양의 퓨전식 춤을 지향한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대를 이어 살아온 기제는 민족언어와 민족문화에 영향이 크다. 특히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전승한 한국의 전통 고전극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p>
<p><b>기타의견</b></p>	<p>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은 지형적 특성상 최근까지 북한 춤과 음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근래 한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한국의 춤을 배우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단기가 아닌 몇 달 이상 머무르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 한국의 춤과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한국 전통예술을 가르칠 선생님이 지역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p> <p>2014년은 고려인 연해주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한국 측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전통문화의 전승을 주도하는 이들 단체에 조직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p> <p>한편 중앙아시아는 북한과 남한의 영향을 받는 예술단이 공존하는 형태를 지니지만, 근래 한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춤과 노래를 비롯해 한국 전통예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에 의해 전승되는 양상을 보이며,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김백봉, 「부채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채원, 『최승희의 춤 -계승과 변용』, 민속원, 2008.11.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3.          이에리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려극장」, 『민족무용』 2호, -재외 한국인의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2.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2002.12.          박종성, 『조선민속무용』, 문예출판사, 1991.          최승희 저, 정병호 해제, 『조선민족무용기본』, 동문선, 1991.3.</p>

## 2) 구전 전통 및 표현

- 대표목록: 아리랑, 밀양아리랑, 연해주빨치산가, 사물놀이, 산염불\_ 총 5항목


### [구전 전통 및 표현 대표목록 - 아리랑]

명 칭	국 문	아리랑	
	영 문	로마자표기	ARIRANG
		영어풀이	Arirang : one of folk-song in Korea
범주	통속민요		
공동체	관련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 없음.	
	공동체 범위	대한민국, 해외동포	
개념	근대에 생성된 민요로서 나운규가 만든 영화 <아리랑>을 통해서 널리 전파된 신민요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은 토속민요 틀에서 벗어나 통속민요 영역으로 확대되었다.</li> <li>· 국내에서는 구전 또는 학교에서 음악교과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li> <li>· 국외에서는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어교육원을 통해 전승되기도 한다.</li> </ul>		
연행방법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창 또는 제창으로 부른다.</li> <li>· 주로 전통악기에 의한 반주가 따르기도 하, 반주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다.</li> <li>· 선율은 ‘솔-라-도-레-미’의 5음음계 평조 선법으로 되어 있으며, 세마치 장단에 맞춰 경쾌하게 부른다.</li> <li>· 아리랑소리 특성은 ‘토속민요→ 통속민요→ 신민요→ 축제민요’로 바뀌었다.</li> </ul>		
연행방법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창 또는 제창으로 부른다.</li> <li>· 서양악기의 반주로 노래하거나, 반주 없이 부른다.</li> <li>· 연행방법은 ‘농사행위→ 통속민요 가창행위→ 신민요·대중가요 가창행위→ 축제 연행행위’로 바뀌었다.</li> <li>· 아래의 악보는 카자흐스탄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이다. 선율과 가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아리랑(김맹진 창)〉</p> <p>를 변개하여 부르는 경우이다. 본래의 5음음계 평조 선법의 아리랑을 서양식으로 변개하였고, 리듬도 세마치장단이 아닌 3/4박자로 바꾸었다. 노랫말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의 후렴구를 넣어 부르는 점에서 이 노래가 본래의 아리랑을 변개하여 부른 것임을 알 수 있다.</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소리는 생성문화가 변동됨에 따라 성격도 변하였다.</li> <li>· 생성문화는 ‘농경문화→ 통속민요 소리꾼 음악문화→ 신민요 대중 음악문화→ 현대 축제음악문화’로 변하였다.</li> <li>· 연행집단은 ‘농민집단→ 소리꾼집단→ 대중가수집단→ 축제연행집단’으로 바뀌었다.</li> <li>· 향수집단은 ‘농민집단→ 통속민요 청중집단→ 신민요 대중가요 청중집단→ 축제 관람집단’으로 바뀌었다.</li> <li>· 재소 고려인들의 경우, 아리랑은 ‘고려인 문화행사’에서 피날레로 부르는데, 참가자 전원이 함께 부르며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기능이 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고려인 문화행사에서 아리랑을 제창하는 광경(2013년 8월17일 알마티)〉</p>
<p>기타의견</p>	<p>재소 고려인들 가운데 중장년층 중에 아리랑을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p>

	<p>많았다. 한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아리랑이 국의 동포들과 그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김보희,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 활동』, 한울아카데미, 2009.          김보희, 「한인 디아스포라 &lt;아리랑&gt;의 음악학적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제6집, 송실대 문예연구소, 2010.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생성문화 유형과 변동」, 『한국민요학』 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이보형, 「아리랑에 관한 음악적 고찰」, 『민학회보』15, 민학회, 1987.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근원과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 5집, 한국민요학회, 1997.          이영일, 『개정증보판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임동권, 「아리랑의 기원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1, 한국민속학회, 1969.          정동화, 「아리랑 어원고」, 『국어국문학』 76호, 국어국문학회, 1977.          국사편찬위원회·한양대한국학연구소, 『소비에트시대 고려인의 노래』 2, 한양대 출판부, 2005.</p>

[구전 전통 및 표현 대표목록 - 밀양아리랑]

명 칭	국 문	밀양아리랑	
	영 문	로마자표기	MILYANGARIRANG
		영어풀이	Milyang-Arirang : one of local folk-song in Korea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속민요</li> <li>· 경상도의 대표적 민요</li> </ul>		
공동체	관련 공동체	경상도 지역사회	
	공동체 범위	한반도와 국외 동포	
개념	<p>경상도의 대표적 민요 밀양아리랑은 본래 오랜 된 아랑설화를 바탕으로 무교 종사자들의 노래(혹은 주문)로 출발한 무가적 성격을 지녔다. 조선시대 말엽에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백두대간을 따라 이동하는 산간지역 농요인 강원도 아리랑소리의 영향을 받아 초동들의 산간 노동요와 결합하여 원형의 현행의 밀양아리랑이 형성되었다.</p>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전으로 전승되거나, 학교에서 음악교과를 통해 전승된다.</li> <li>· 본래의 밀양아리랑은 광복군의 노래로 부분적으로 변개되어 불리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전승되지 않는다.</li> </ul>		
연행방법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주 없이 독창으로 부른다.</li> <li>· 현재 가장 많이 불리는 형태의 밀양아리랑은 다음과 같다.</li> </ul>  <p>세미치 1. = 72-108</p> <p>남중 보--소 남중 보--소 남중 보--소      정은 남--이 오셨 눈--재 인 사-도못--새</p> <p>동지 선 달--꽃문 돌이--남중 보--소      행주 치 아--입에 물고--입 만-방--곳</p> <p>아 리 아 리랑 쓰 리 쓰 리랑 아라 리-가날--비</p> <p>아 리 랑--고 개-로-날 님-계우-소</p>		

· 일제강점기에는 밀양아리랑을 변개하여 부른 광복군 아리랑이 불리기도 하였다(아래 악보 참고). 후렴구가 밀양아리랑과 유사한 가사로 되어 있다.

102

광복군 아리랑

김학규 작사  
한국민요 곡

(후렴)

아 리 아 리 랑 스 리 스 리 랑 아 라 리 -- 요 --

광 복 - 군 - 아 리 - 랑 - 불 려 나 보 - 세

1. 우 리 - 네 부 모 -- 가 날 찾 으 시 -- 거 -- 던  
2. 광 둥 - 이 불 어 -- 요 광 둥 이 불 -- 어 -- 요  
3. 바 다 - 에 실 떠 -- 는 배 는 -- 는 --  
4. 아 리 - 랑 고 개 -- 서 서 북 소 리 등 - 나 터 - 니

광 복 - 군 - 갖 다 - 고 - 말 전 해 주 - 어 - 소  
삼 천 - 만 인 - 애 고 - 광 둥 이 - 불 어 - 요  
한 복 안 성 복 을 신 관 애 태 극 기 날 배 네

© 1940년대 본토 상륙 작전을 앞두고 사기를 높이는 광복군의 노래.

연행방법  
(국외)

· 반주 없이 독창으로 부른다.  
· 국외에서의 전승은 연해주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아래 악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에 의해 불린 아리랑이다. 이 노래는 아리랑으로 제목이 통용되고 있으나, 후렴구 부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가 밀양아리랑의 그것과 같아서 이 노래가 밀양아리랑을 토대로 새롭게 변개하

간 다 간 다 간 다 간 다 나 는 - 간 다 -- 님 을

따 라 꽃 을 따 라 나 는 - 간 다 --

아 리 아 리 랑 스 리 스 리 랑 아 라 리 가 났 네 -- 아

리 - 랑 고 개 - 를 날 님 겨 주 소 --

<아리랑(김형수 작사)>

는 방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양아리랑은 독립군의 군가로 불릴 정도로 ‘민족음악화’하게 되었다.</li> <li>· 식민지 조선인들은 밀양아리랑 등의 노래를 통해서 망국의 한의 정서를 표출했고, 해방조선의 신념을 유지할 수 있었다.</li> </ul>
<p><b>기타의견</b></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김기현, 「밀양아리랑의 형성과정과 구조」, 『문학과 언어』 제12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91.</p> <p>김병학 채록·편저,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I』, 화남, 2007.</p> <p>김보희,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 활동』, 한올아카데미, 2009.</p> <p>서정매, 「밀양아리랑의 변용과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35, 한국민요학회, 2012.</p> <p>이보형 외. 1999. 『유성기음반 가사집』 1, 2, 민속원. 1999.</p> <p>최철·설성경 엮음,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p>



[구전 전통 및 표현 대표목록 - 연해주 빨치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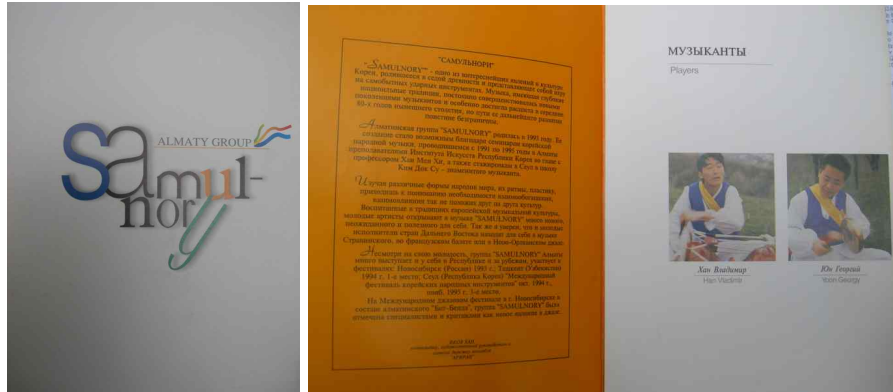
명 칭	국 문	연해주 빨치산가	
	영 문	로마자표기	YONHAEJUPALCHISANGA
		영어풀이	Yonhaeju Palchisan ga : one of song in Yonhaeju
범주	재소 고려인 노래. 연해주에서 빨치산 투쟁을 하던 재소고려인들이 지어 부른 노래로 전해지고 있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국의 거주 고려인	
	공동체 범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개념	한인 빨치산들이 지어 부른 노래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해주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슈켄트 등지의 고려인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다.</li> <li>· 특히 고려인부대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고려인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li> <li>· 부르는 사람에 따라 &lt;스파스크 달밤의 습격&gt;, &lt;왈로차예쁘스카의 격전&gt; 등으로 제목이 각각 다른데, 흔히 연해주 빨치산가로 통용되고 있다.</li> </ul>		
연행방법 (국내)	국내에서는 전승되고 있지 않다.		
연행방법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주 없이 가창방식으로 연행되고 있다.</li> <li>· 4/4박자로 되어 있는 이 노래는 전통적인 민요의 선법이 아닌 서양의 선법으로 되어 있다. 20세기 초반에 고려인부대의 군가로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창작된 것이라 하겠다.</li> </ul> <p>“산을 넘고 들을 지나 우리 사단 나아간다. 백과군대 근거지인 연해주를 앓으리 앓으리 백과군대 근거지인 연해주를 앓으리 앓으시</p>		

	<div data-bbox="507 309 1241 743"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459 779 1104 913">                 마지막번 싸움에서 붉은 기가 펄펄 날려                  나간다 용감한 사단 연해주의 빨치산 빨치산                  나간다 용감한 사단 연해주의 빨치산 빨치산~“             </p> <p data-bbox="405 967 1356 1057">                 기존 연구에서 고려인들이 부른 노래들은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 <ol data-bbox="405 1093 1356 1317"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적인 선율과 가사를 바꾸지 않고 원형 그대로 부르는 경우</li> <li>2) 선율을 그대로 쓰고 새로운 가사를 엮어 부르는 경우</li> <li>3) 가사는 거의 그대로 쓰고 선율을 바꾸어 부르는 경우</li> <li>4) 악곡명은 그대로 쓰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창작해서 부르는 경우</li> </ol> <p data-bbox="405 1352 1356 1487">                 그런데 연해주 빨치산가는 노래 제목이나 가사, 선율 등에서 전통 민요의 영향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 서양식 음악이라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p>
<p data-bbox="268 1630 354 1899"> <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 </p>	<ul data-bbox="405 1541 1356 1998"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8년부터 1922년 10월 중순까지 소비에트 붉은 군대와 러시아 황제 백군 간에 전투가 절어진 상황에서 고려인들은 붉은 군대와 연합하여 전토를 전개하였다. 홍범도·김희천·황하일·오화묵·최계립 등의 빨치산 대장들이 이끄는 고려인부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li> <li>• 고려인 빨치산들의 용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 노래는 전쟁에 나간 군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li> <li>• 이 노래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연해주에서 빨치산 투쟁을 하던 재소 고려인들이 지어 부른 노래가 점차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소련공산주의 혁명가로 불리게 되었다.</li> </ul>

기타의견	
참고자료 및 문헌	<p>김병학 채록·편저,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I』, 화남, 2007.</p> <p>김보희, 「한인 디아스포라 아리랑의 원형과 파생관계 연구」, 『한국음악연구』 51집, 한국국악학회, 2012.</p> <p>윤상원, 「시베리아내전기 연해주 수찬지방 한인빨치산부대의 조직과 활동」, 『아시아 문화연구』 19,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p> <p>주성혜, 「중앙아시아 한인사회의 문화와 음악」, 『낭만음악』 통권 25, 낭만음악사, 1994.</p> <p>『10월혁명 10주년과 소비에트 고려민족』, 블라디보스톡, 1927.</p>

[구전 전통 및 표현 대표목록 - 사물놀이]

명 칭	국 문	사물놀이	
	영 문	로마자표기	SAMULORI
		영어풀이	Samulori :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ensemble
범주	국악연주의 한 형태로서 풍물굿 또는 농악에서 비롯되었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사물놀이 전문연주단 또는 아마추어 연주단	
	공동체 범위	사물놀이 연주단이 소속된 사회, 집단	
개념	농악에 쓰이는 주요 악기인 쟁과리, 장고, 북, 징 등 4개의 악기를 무대에서 연주하는 형태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사물 악기 연주에게 학습하는 방법으로 전승됨.		
연행방법 (국내)	사물놀이는 풍물굿 또는 농악에 쓰이는 주요 악기인 쟁과리, 장고, 북, 징 등 4개의 악기를 무대에서 연주하는 형태의 공연 양식이다. 주로 무대 또는 공연장의 연주석에서 앉아서 연행한다.		
연행방법 (국외)	국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실내공연장의 무대 또는 야외공연장의 연주석에서 앉아서 연주한다.		



<알마티 사물놀이(한야콥 조직)>



<알마티사물놀이 공연 장면>



<한야콥(고려극장 전직 작곡가)>

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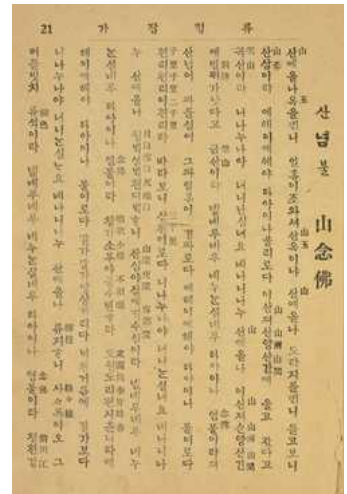
- 재소 러시아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최근에 사물놀이 연주단이 조직되어 국외 고려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 사물놀이는 흥겨운 리듬을 연주하여 젊은 층에서 노년층까지 전 계층이 좋아하여 이 공연을 통해서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다.

<p><b>기타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인 사물놀이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연주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이 없다.</li> <li>· 사물놀이뿐 아니라 고려인들이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교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li> </ul>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김헌선, 『풀물굿에서 사물놀이까지』, 귀인사, 1991.          김헌선, 『사물놀이 이야기』, 풀빛, 1995.          정은경, 「사물놀이를 통한 초등예비교사들의 국악에 대한 인식변화」, 『국악과교육』 제 35집, 한국국악교육학회, 2013.</p>

[구전 전통 및 표현 대표목록 - 산염불]

명 칭	국 문	산염불(山念佛)	
	영 문	로마자표기	SANNYEOMBUL
		영어풀이	Sanyeombul : one of folk-song in Hwanghaedo, Korea
범주	황해도의 대표적 민요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통속민요		
공동체	관련 공동체	황해도 지역 사회, 황해도 실향민, 고려인 등	
	공동체 범위	산염불은 황해도를 대표하는 민요로 북한지역의 황해도 주민을 비롯하여 남한에 거주하는 실향민, 러시아 고려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도민요로 속하며 황해도를 대표하는 민요이다.</li> <li>· 잦은 염불과 짝을 이룰 때에는 긴염불이라 칭한다.</li> <li>· 산염불은 곡명에서 ‘염불’이라는 말과 ‘~아미타불이로다’로 끝나는 후렴구가 있어 일견 불가(佛家)의 음악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사설이나 음악적으로 불교음악과 거리가 있다.</li> </ul>		
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공연예술		
전승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에서는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슈켄트 지역 고려인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다.</li> <li>· 국내에서는 황해도 지역주민, 황해도 실향민에 의해 전승되고 있으나, 후손들에게까지 구전 전승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서도민요 전공자들이 해당 민요를 이수,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li> <li>· 국내에서 산염불은 원형의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로 전승되고 있으나, 국외에서는 원형에 가깝게 부르거나, 선율을 변형하여 부르기도 한다.</li> </ul>		
연행방법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주 없이 독창으로 부른다.</li> <li>· 산염불의 앞소리는 창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사될 수 있는데, 1945년 이전에 출판된 잡가집이나 음반에 의하면 “산에 올라 옥을 캐니 이름이 좋아 산옥(山玉)이라.”라는 사설처럼 간단하게 불렀으나 점차 사설이 시조형으로 변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음반에 수록된 사설은 다음과 같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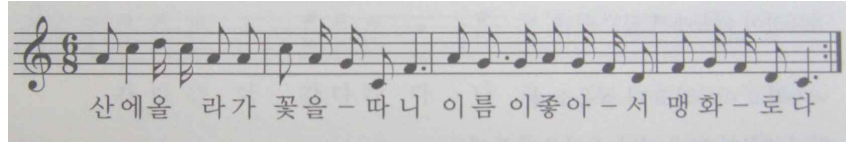
	<p>북망산천아 말 물어보자 / 영웅호걸 죽은 무덤이 몇몇이나 되며 / 절대가인 죽은 무덤이 몇일러나          (후렴) 아하에 에헤에 에헤이 어허미 / 타아하 어히야 불이로다          서산낙조 떨어지는 해는 / 내일 아침이면 다시 돋건마는 / 황천길은 얼마나 먼지 / 한번 가면은 영절(永絶)이라          (후렴)          어젯밤에 꿈 좋더니 / 입에게서 편지왔네 / 그 편지를 받아다가 / 가슴 위에다 었었더니 / 인철지 한장이 무겁겠소마는 / 가슴 답답해 못살겠네          (후렴)          활 지어 송지(松枝)에 걸고 / 옷은 벗어 남게 걸고 / 석침(石枕) 베고 누었으니 / 송풍은 거문고요 / 두견성은 노래로다 / 아          마도 이 산중에 / 사무한신(事無閑身)은 나뿐인가          (후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염불은 "아헤헤에 에헤야 아미타불이로다" 하는 제창으로 시작되어 독창이 이어지는데, 제창 부분의 가락은 고정되어 있다. 독창 부분의 가락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부분은 네 소절로 이루어져서 모두 열두 소절이 노래의 한 절을 이룬다. 그러나 가사에 따라서는 여덟 소절로 된 경우도 있다.</li> <li>• 선율 구조는 전형적인 서도 소리의 음계인 레(D)·미(E)·솔(G)·라(A)·도(c)로 되어 있다. 레(D)·라(A)·도(c) 3음이 주로 쓰이고 중간음인 라(A)에 요성이 쓰이는 전형적인 서도민요의 형태이다.</li> <li>• 산염불은 선율의 길이가 서로 다른 앞소리와 2장단으로 된 후렴으로 구성되는데, 후렴구의 내용은 평양식과 개성식이 서로 다르다. 즉, 일반적으로 산염불을 대표하고 있는 평양식의 후렴은 “에헤 에헤야 아미타불이로다”로 부르는 데 비하여, 개성식의 산염불은 “니나 누나요 나누난실나요 니나누난실 산이로다”로 부르는 것이다.</li> </ul>
<p>연행방법 (국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주 없이 독창으로 부른다.</li> <li>• 국외에서의 전승은 연해주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li> <li>• 고려인들에 의해 전승되는 산염불은 원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고 있지만, 가사 또는 선율을 변형해서 부르는 경우도 많다.</li> </ul>



<잡가집에 수록된 산염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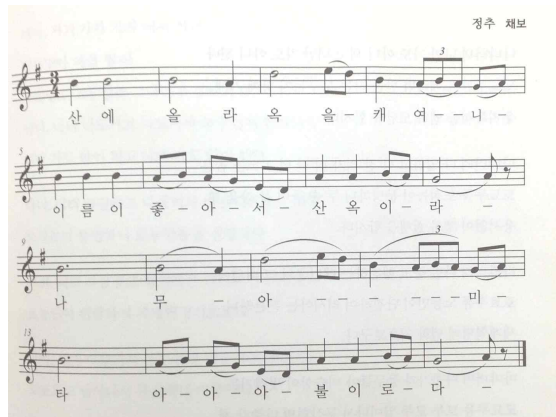
· 아래 악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불린 산염불로 『김형수 노래책』에 기록된 리소나가 부른 선율을 채록한 악보이다.



<산염불(리소나 창)>

이 산염불은 황해도 지역 산염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비교적 원형이 많이 남아 있다. 다만, 본래의 산염불 선율을 변개하고, 본래의 후렴구 사설에 있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이라’를 활용하여 부른 사례이다.

· 다음의 악보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산염불이다. 고려인이 서도지역 고유의 음악어법과 더불어 러시아적 음악과 서양 및 일본의 음악이 혼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사에 있어 이주를 경험한 이들의 애환을 담은 내용을



<산염불(정추 채보)>

담은 것이 특징적이다.

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

· 고로의 황해도 실향민들은 누구나 산염불을 가창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널리 배워 불렀을 정도로 황해도를 대표하는 민요이다. 실향민들은 산염불을 부르면서 실향의 애환과 향수를 달래는 Healing 음악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고려인의 경우, 민족 고유의 선율과 리듬을 사용한 민요를 많이 부르는 가운데 황해도를 대표하는 산염불이 폭넓게 전창되었다. 그들은 고유의 선율을 그대로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율과 가사를 변개한 변형 및 새로운 창작 형태의 민요를 재생산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산염불을 비롯한 많은 민요에서 고려인 노래의 디아스포라적 특징이 발견된다.

· 고려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전래 민요를 통해 되찾으려하는 동시에 현실의 삶과 정서를 반영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요구되었던 선동적,

	<p>혁명적 풍의 역동적인 선율을 구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p>
<p>기타의견</p>	
<p>참고자료 및 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li> <li>張師助·成慶麟,, 『朝鮮의 民謠』, 국제음악문화사, 1949.</li> <li>김기수, 「민요」, 『국악전집』 17, 국립국악원, 1971.</li> <li>이창배, 『韓國歌唱大系』, 弘人文化社, 1976.</li> <li>문화재보호협회, 『한국전통음악대전집』, 지구레코드, 1981.</li> <li>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황해도소리의 음반 및 해설집』, 한국브리태니카, 1984.</li> <li>정재호편, 『잡가전집』, 계명문화사, 1984.</li> <li>● 논저</li> <li>임미선, 「황해도민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9.</li> <li>임미선, 「경기민요와 서도민요의 선율구조 비교연구」, 『한국음악연구』 29집, 한국국악학회,</li> <li>김보희,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 활동』, 한울아카데미, 2009.</li> </ul>

### 3)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대표목록: 추석, 단오, 한식, 김장, 장, 시락장국, 떡-총 7항목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표목록 - 추석]

명 칭	국 문	추석	
	영 문	로마자표기	CHOOSUK
		영어풀이	Choosuk : Harvest festival (on the 15th of August by lunar calendar)
범주	음력 8월15일(추석) 맞아 친족을 중심으로 모여 조상제사를 지내고 이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지내는 놀이를 포함한다. 추석을 맞아 행하는 제례·성묘·놀이 등이 포함된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추석은 친족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기에 고려인모두를 포함하며, 러시아 사할린의 교포도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기에 이들 모두 포함된다.	
	공동체 범위	고려인의 추석은 점차 고려인 축제화 되어가고 있으며 고려인이 주도하는 관련단체가 행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개념	추석은 벼의 수확제로서 벼가 익어갈 무렵에 조상에게 햇곡식을 올리기 위해 차례(茶禮)를 지내는 조령제(祖靈祭)로서 천신제(薦新祭)의 성격을 띠고 있다. 추석은 남한에서 큰 명절로 여기며 북한에서는 단오가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벼농사가 남한에 널리 분포된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류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승방법	추석은 우리말로 ‘한가위’라 하는데 매년 음력 8월15일에 지내는 정기적인 로 의례이다. 친족들이 모여 지내는 가례(家禮)로서 유교적인 의례로 지내기에 남성이 주제를 한다. 따라서 추석 차례가 장남이 제주가 된다. 단 추석에 필수적인 송편은 햇곡식으로 만드는데 여성의 역할도 기대된다. 추석의 놀이로 소싸움, 활쏘기, 씨름 등 남성놀이이며, 길쌈, 그네뛰기 등이 있다. 남녀 공동의 놀이로 농악, 줄다리기, 달맞이 등이 전승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행방법 (국내)	추석 2-3일전에 조상 묘에 가서 잔디를 베고 잡초를 제거하는데 이를 벌초라 한다. 추석아침에 새 옷을 갈아입고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술 그리고 햇과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차례가 끝나면 성묘		

	<p>를 간다. 추석에는 먼 곳에서 찾아온 친척이나 이웃을 만나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또한 추석을 전후로 ‘반보기’를 하기도 한다. 출가하여 친정에 가기가 어려웠던 여자는 친정과 중간 되는 지점에서 부모를 만나 서로의 그리운 정을 나누기도 한다. 추석에는 다양한 놀이가 전승되는데, 중서부지방에서는 거북놀이와 소놀이가 행하여지며 경기·이북에서는 사자놀이가 행하여진다. 농약은 영남과 호남에서 성행하였다.</p>
<p><b>연행방법 (국외)</b></p>	<p>중앙아시아의 8월은 벌써 아침 저녁이 선선하고, 9월이 되면 추위지기 시작한다. 고려인 달력 8월 15일이 추석 명절이다. 가족들이 산에 가서 묘의 풀을 제거하고 묘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낸다. 제사 음식은 지금굽이, 닭, 술, 밥 1그릇, 과일, 과자, 물고기 등이며, 제사상에는 반드시 물고기를 올린다.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 일가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울기도 한다.</p> <p>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에게도 추석은 민족 최대의 명절로 여겨지고 있다. 우선 집에서 갖가지 제수를 진설하고 차례를 올린다. 차례 후에는 닭장국을 함께 먹는다. 이후 산소에 올라 성묘를 하는데, 제수는 삶은 닭과 과일, 술 등을 준비한다. 산소에 올라서는 주변 정리를 하고 식보를 펴 제수를 진설한다. 우선 산소 위쪽에 올라 산신을 향해 한번 배례한다. 이를 ‘후토제’라고 한다. 이어 향렬에 따라 잔에 술을 세 번씩 나누어붓고 세 번씩 배례한다.</p> <p>이렇게 각 가정에서의 추석 차례 및 성묘가 끝나고 나면 고려인공동체에 의한 추석행사가 이어진다.</p> <p>매년마다 추석 전날에는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유학생들 및 고려인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한데 어우러져 송편 빚기, 한복 옷고름 매는 법 배우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특별 전시실에는 한국의 추석사진 전시회와 작은 콘서트도 개최되어, 자칫 잊혀 지기 쉬운 한국의 전통을 재현하고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p> <p>타슈켄트 시내를 벗어난 나만간, 페르가나, 안디잔의 고려인 문화센터에서도 매년 지역마다 최고령자 50명을 선정하여 문화센터에서 호 잔치를 펼치고 있다. 이곳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에게는 우즈베키스탄이 이미 자신들의 고향이 된지 오래지만, 그들의 뿌리가 한국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구성진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다음 해를 기약하면서 흥겨운 자리를 마무리 한다.</p>

	<p>2008년 추석에는 특별행사로 고려인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축구시합, 씨름대회, 사물놀이 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p> <p>키르기스스탄에서는 주로 9.19(목) 키르기즈 국립드라마극장에서 고려인협회 주최 추석기념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키르기즈 공화국 내 다민족협회 각 대표들을 비롯하여 약 500여명 정도의 고려인 동포들이 참석하였다. 행사의 1부 순서인 기념식에서는 훈장 수여 및 감사패 전달이 있고,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각 민족 고유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연 참가자들이 함께 우리민족 고유의 노래인 아리랑을 부르며 행사의 막을 내린다.</p>
<p><b>기타의견</b></p>	<p>오늘 날 가정 내에서의 추석명절 풍습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대신 고려인공동체를 주축으로 한 각종 단체에서 추석을 기념하기 위해 펼치는 행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          국립민속박물관, 『까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국립민속박물관,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국, 1985.          전경수 편, 『까자흐스탄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안상경·이병조,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공동체의 한민족 민속문화 전승 연구」, 『슬라브연구』 29-1,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3.</p>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표목록 - 단오]

명칭	국문	단오	
	영문	로마자표기	DANO
		영어풀이	Dano : 5th day of May by lunar calendar
범주	음력 5월5일인 단오에 친족이 모여서 성묘를 가고 지역사회에서 지연을 바탕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놀이를 하거나 고려인 사회의 노인회나 공동체가 구성원이 참가하여 행사의 내용을 포함한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에 거주하는 고려인이나 교포가 단오에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행하는 의례와 놀이를 행하는 친족모임 또는 고려인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공동체	
	공동체 범위	러시아연해주의 우스리스크 노인회나 우즈벡스탄의 조선노인협회 등과 같이 단오행사를 주체하는 공동체를 포함하며, 동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예술단도 포함된다.	
개념	음력 5월5일을 단오라 하는데, 단(端)은 처음이란 뜻으로 ‘첫요일’이란 뜻이다. 단오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초나라 회왕때 굴원(屈原)이라는 신하가 간신들로부터 모함을 당하자 지조를 보이기 위해 멍라수에서 5월5일 자살하여 영혼을 위로하기위해 제사를 지낸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4대명절중의 하나로 북쪽지방에서는 추석보다도 큰 명절로 여기며 있으며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로 여겨 액을 막고 몸을 보호하기위한 벽사행사를 한다. 또한 단오날은 여성의 외출이 허용되어 그네뛰기와 남자들의 씨름과 같은 민속놀이가 벌어진다. 고려인들은 단오날에 성묘를 가고 만두를 해 먹기하며 고려인들이 모여서 민속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하루를 즐긴다.		
분류	사회관습, 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승방법	단오에 성묘가는 고려인의 관행은 제사의 음식은 주부에 의하여 전승되며, 제사의 주체는 가장이 주도하여 실현되고 아들에게 전승된다. 민속놀이는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세대 간에 계승되며 전승되고 있다. 행정구역을 기조로 형성된 고려인의 공동체모임의 단오행사는 구성원간의 협의를 거치며 행사의 내용과 진행이 이루어진다. 행사의 예능은 외부의 지도자들로부터 전수받아 실현되고 있다. 현재는 인근의 교회의 선교사로부터 춤과 민요를 지도받아 실현되고 있다.		
연행방법	단오에 창포로 머리를 감고 쑥떡을 먹고 익모초즙을 마시기도 하는데		

<p>(국내)</p>	<p>중국에서 유래된 풍속으로 벽사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민속놀이로는 그네뛰기, 씨름, 석전, 화초놀이, 농악, 윷놀이 등을 한다. 궁중에서는 부채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와 경산의 한장군놀이가 있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 국사성황을 강릉 시내의 여성황당에 모시고 와서 유교제외와 더불어 무당에 의한 굿을 한다. 경산 한장군놀이는 한장군의 넋을 달래기 위해 굿과 더불어 여자들에 의한 ‘여원무’를 춘다. 이와 같은 두 제사는 모두 유교식제사와 무당에 의해 굿을 하는 유교와 무속이 공존하는 형태로 지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p>
<p>연행방법 (국외)</p>	<p>1985년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러시아·러시아문화 동화정책을 수용해야 했던 소련 내 러시아 이외 민족들은 자신들의 민족 언어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재생, 부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고르바초프는 “우리 다민족국가의 원칙은 자기들의 모국어를 자유롭게 발전시키고 이용하게 하는 것”라고 발표하면서 고려인사회에서는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조선말’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들을 『레닌의기치』를 통해 줄기차게 주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9월13일에는 ‘추석명절’, 그리고 9월 22일부터 1989년 4월 19일까지 ‘조선민족의 전통과 풍습’시리즈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중앙아시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고려인 2세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말을 상실했고 소비에트 러시아문화에 동화되어감에 따라 민족의 전통문화도 소멸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2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고려인사회는 고려인협회 발족 이전 상태에서 음력설 명절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정작 음력 설날을 어떤 식으로 기념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리하여 1990년 음력설을 앞두고 『레닌의기치』에는 새해 첫날 조상들에 대한 차례, 윗사람들에 대한 세배, 윷놀이와 널뛰기 등 설맞이 민속놀이와 정월보름의 행사 등이 소개되었다.</p> <p>1989년 2월 음력 설맞이 행사를 치른 타슈켄트 고려인문화센터 설립조직위원회는 ‘한식’외에도 ‘오월 단오’라는 명절이 있음을 알고, 고려인들의 ‘오월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당시는 고려인 콜호즈 중앙광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소인예술단 ‘플로쓰’의 공연, 조선민요, 러시아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1990년으로 해가 바뀌자 타슈켄트 주를 넘어 전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로, 또 러시아(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로 민족 명절 경축행사가 퍼져나갔다. 이듬해 5월 28일 단오 날에는 골호즈</p>

<p>중앙에 위치한 공원에서 개최되었다. 민족요리경연대회, 소인예술단 공연, 밧줄당기기, 민족씨름, 그네뛰기, 팔씨름 등이 펼쳐졌으며 많은 구경꾼들을 사로잡았다.</p> <p>1991년 1월 초, 기존의 『레닌의기치』가 『고려일보』로 바뀌면서 ‘한식, 단오, 추석, 설’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해 12월 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각국이 독립하면서 고려인 콜호즈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농촌마을로 변해갔다. 그리고 많은 고려인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농촌 콜호즈에서의 단오절 행사 개최는 불가능해졌다. 그리하여 도시로 이주해온 고려인들을 주축으로 한 고려인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인 고려인민족문화협회였다. 이 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내 공원의 특설무대에서 단오절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이때는 주로 춤과 노래를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단오절 행사는 이어져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 내에 다양한 고려인 관련 단체가 결성되면서 독자적인 전개양상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lt;스베르들로프&gt;콜호즈 소속의 ‘시온고노인회관’, 타슈켄트 주 솔다트스키 시 ‘고려인협회’의 단오명절 등으로 분화되어 간다. 이러한 단오행사는 각 단체의 여건에 따라 그 내용도 차이를 보이는데 시온고노인회관의 단오절의 경우 참여한 사람들에게 간단한 여흥을 제공하는 정도로 그친다. 따라서 페레스트로리카 시기의 단오 풍속을 모습은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되었다.</p> <p>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친족단위로 단오를 추석이나 한식과 더불어 성묘를 가는 ‘산에 가는 날’이라는 하였다. 술과 음식을 조상에게 바치고 절을 3번하고 온다고 한다.</p> <p>○ 우즈베크스탄에서는 그네뛰기를 ‘굴기’하여 여자들이 하였고, 남자는 씨름과 공차기를 했다고 한다. 조선노인협회에서는 단오에 야외나 호수에 가서 줄다리기를 한다.</p> <p>○ 연해주와 우스리스크 노인단이 주관하여 100여명이상 회원이 근교 냇가에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춤과 노래로 하루를 즐긴다. 노인단에는 고려가무단(옛 모란봉가무단)은 단오에 부채춤, 소고춤, 노들강변 등 노래와 춤을 추며 단오를 즐긴다.</p> <p>○ 사할린 교포들은 동네에서 친한 이웃들이 모여 윷놀이, 화투치기를 하며 지냈다고 한다. 남녀 따로 놀기도 하지만, 부부가 함께 모여 놀기도 한다. 필요한 경비는 각자 추렴하여 거실이 큰집에 모여 놀았다.</p> <p>단오는 고려인 2,3세는 점차 관심이 멀어지고 있으며 1-1.5세대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p>
---



○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990년 이후 단오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초창기에는 야외 공원에서 씨름, 달리기 등을 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2006년 단오행사는 중앙아시아문화정보센터에서 주최하고 고려인협회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한민족단오제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많은 여성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참가하였으며 고려인협회 산하 여성노인회 단체에 의한 합창, 부채춤, 장고춤, 모듬북, 한량무, 사물놀이 등이 소개되었다. 모듬북, 사물놀이 등이 소개된 것은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한 NGO단체들의 후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오늘 날 고려인의 단오 풍속은 최근에 조금 시들해졌지만 전통적으로 단오를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그네뛰기나 씨름판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대신 문화 회관이나 운동장에 모여서 각종 공연과 노래 자랑 등으로 흥겨운 하루를 보낸다. 우수토베처럼 고려인 집성촌에는 오래전에 조직된 고려인 가무단들이 있어 그들이 그 행사의 주요 공연자가 된다. 가무단이 부르는 노래와 춤은 우리말 노래와 우리 춤이 주류를 이루고 러시아 노래 등이 간간히 뒤섞인다.



사진 1. 키르기스스탄 비슈켵 단오제(2006년 5월 28일, 사진제공: 김 류보위)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b></p>	<p>고려인들에게 단오는 조상묘지를 성묘하는 날로 전승되고 있다. 이웃이 모여 민속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고려인 2-3세대에게 단오는 잊혀진 명절이 되고 있다. 근년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조선노인협회,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 관심을 갖고 단오행</p>
---------------------------------------	--

<p><b>조사 내용</b></p>	<p>사의 공연을 통해 고려인들의 화합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선노인협회는 북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단체이다. 우스리스크의 모란봉예술단은 7-8년 전까지 북한 예술가가 파견되어 춤과 민요를 지도 받기도 했다.</p>
<p><b>기타의견</b></p>	<p>십여 년 전부터 북한과의 교류에 의해 노인단이라는 단체가 주심이 되어 단오가 큰 명절로 부각되었고 고려인들이 모여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의 마당이 되어왔다. 현재는 북한 정부와 교류는 거의 없으며 한국으로부터의 민속예술을 지도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  국립민속박물관, 『카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국립민속박물관,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  전경수 편,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김일수 외,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궁리, 2010.</p>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표목록 - 한식]

명칭	국문	한식	
	영문	로마자표기	HANSIK
		영어풀이	Hansik : 105 <sup>th</sup> day after the winter solstice
범주	고려인이나 사할린교포가 한식을 기해 매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의례나 관행을 모두 포함한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한식의 성묘는 고려인이 친족단위로 성묘를 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나 사할린교포를 포괄한다.	
	공동체 범위	한식은 가족중심의 성묘행사로 특정 고려인 단체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개념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寒食)이라 하며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이다. 매년 새봄이 되어 새로운 불씨를 사용하고 이전 사용하던 불씨는 금했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며, 중국에서 이즘에 폭풍우가 심하여 불사용을 금하고 찬밥을 먹었다는데서 한식이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한식은 청명(淸明)다음날이거나 같은 날이기에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		
분류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승방법	한식에 친족이 모여 성묘를 가는 관습이 전국적으로 행하여지며 유교의 관습에 따라 제사를 지내기에 남성중심의 행사이다.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속설도 전해지고 있다.		
연행방법 (국내)	조선시대에는 종묘와 능원(陵園)에서 제향을 하고 민간에서는 주과를 마련하고 성묘를 했다. 만약 무덤에 잔디가 헐었으며 다시 입히기도 하는데 개사초라고도 한다.		
연행방법 (국외)	고려인은 단오, 생신, 추석뿐만이 아니라 한식에도 꼭 성묘를 다녀온다. 따라서 한식을 ‘산에 가는 날’이라고도 한다. 회사에서도 고려인들에게 한식날에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휴무로 해주기도 한다. 제사음식으로는 찰구지, 밥, 삶은 통닭, 삶은 돼지고기(또는 소세지),사탕, 나물(고사리, 가지채), 사과, 술(보드카), 생선, 증편(또는 지름떡) 등을 마련 진설한다. 과일로 배와 포도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자손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제사는 음식을 진설한 후에 아들이 먼저 절하고 술을 올리고 여자들도 같이 3번 절을 한다. 제사지내는 방식은 가정에 있다. 처음 산소에 가서 술을 붓고 닭을 뜯어놓고		

	<p>밥 1-2숟가락을 땅에 묻고 자신에게 절을 한번 한다. 그리고 묘지 앞에서 3번 절을 한다.</p> <p>카자흐스탄에서는 풀이 자라지를 얹지만 한식에 조상묘소에 가서 남자들은 별초를 한다. 특히 묘지의 봉분이 흙으로 되어있기에 건조한 기후에 이따금 비가 내리면 흙이 흘러내린다. 한식날에 흙을 올리고 페인트로 치장을 한다.</p> <p>연해주의 고려인들은 부모의 묘지를 중앙아시아에 두고 이주해 왔기에 한식날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4월20일을 ‘부모의날’로 휴일이므로 꽃을 들고 부모의 산소에 가기도 한다. 따라서 사할린교포들은 한식보다 부모의 날에 음식이나 옷을 가지고 산소를 찾는다.</p> <p>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식날 고려인 콜호즈의 고려인 공동묘지는 정성스레 제사음식을 마련해온 고려인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심지어 콜호즈의 고려인 학생들은 아예 학교에 가지 않으며 콜호즈 학교의 고려인교수들이 근무하지 않는다.</p> <p>흥미로운 점은 고려인들은 연중에 한식과 추석 단 두 번만 묘소를 찾는다는 것이다. 다른 날은 안 되고 꼭 그 날에만 찾아야 된다는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어 만약 한식이나 추석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출타 중이거나 그날 기상 악화로 묘소를 못 찾으면 다음해 한식이나 추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고려인들은 한식을 큰 명절로 생각하기에 가족끼리 혈연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며 지연적인 유대관계도 돈독히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도 찾아오고 부모성묘를 위해 고향에 찾게 된다. 따라서 친척뿐만이 아니라 고려인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고려인에게 한식은 정체성과 동질성을 갖게 해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p>
<p><b>기타의견</b></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  국립민속박물관, 『카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국립민속박물관,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국, 1988.  임영상,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와 단오명절의 실태」, 『강원민속학』 24, 2010.</p>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표목록 - 김장]

명 칭	국 문	김장	
	영 문	로마자표기	KIMJANG
		영어풀이	Kimjang : Making and Sharing Kimchi
범주	국적과 무관하게 한민족의 대표적인 부식인 김치를 일상식이나 의례식에서 규칙적 또는 반복적으로 식품으로 하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나 교포		
공동체	관련 공동체	추운겨울에 부식의 보존식품으로 김장을 준비하거나 일상식의 부식으로 김치를 먹는 대다수의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의 고려인과 교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이나 교포들을 포괄한다.	
	공동체 범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고려인 공동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개념	김치는 배추, 무, 오이 등의 야채를 소금에 절인 후에 고추 등 양념을 첨가하여 만든 한민족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오랜 동절기에도 음식으로 김치를 먹기 위해 늦가을에 김치를 담그는 것을 김장이라 한다. 한민족은 농경민족으로 노동량이 많기에 다양한 야채를 재배하기에 이를 절여 먹음으로서 염분도 섭취하였고 대표적인 부식으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현대에서 산업은 변화하였지만 김치는 주요음식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타국으로 이주하여 왔으나 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생활식품이라 할 수 있다.		
분류	사회관습, 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승방법	고려인의 김치 담그기는 필요한 채소와 양념을 자급자족으로 재배하여 확보한 것을 활용한다. 농경생활을 근간으로 살아온 고려인 1세대는 자신이 재배한 채소와 양념으로 김치를 담근다. 따라서 지역에 환경에 적합한 채소를 재배하는 기술과 수확 후 이를 가공하여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조리방법이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오고 있다. 특히 김장 방식이나 김치 담그는 방법은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딸이나 며느리에게로 이어져온다.		
연행방법 (국내)	조선중기에 고추가 수입되면서 소금물에 담그던 김치는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어 발효시켜 붉게 담그는 조리법으로 전환되었다. 김치를 담그는 채소와 양념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 발전하여 다양한 50여종 이상의 김치가 전승되고 있다. 추운 북쪽에서는 고추를 적게 쓰는 백		

	<p>김치와 보쌈김치가 유명하고 호남김치는 짠 특성이 있다. 북부와 중부지방은 새우젓이나 조개젓을 넣지만, 남부에서는 멸치젓이나 갈치젓을 많이 쓴다. 제주도는 해물이나 전복을 넣기도 한다. 전승지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식자재를 활용하여 김치를 담그며, 주부들은 겨울의 월동준비를 위해 김장을 담근다.</p>
<p>연행방법 (국외)</p>	<p>샐러드에 익숙한 고려인들은 채소를 텃밭에서 재배하므로 김치 또한 늦봄부터 여름에 자주 담근다. 김치는 ‘외김치’(오이김치), ‘대드배차 김치’(양배추), ‘물김치’ 등을 주로 담근다. 양배추는 잘게 썰어 오이와 고춧가루, 소금, 기름(면실유), 식초 등을 넣어 만든다. 물김치는 여름에 주로 먹는데 아침에 담그어 저녁에 먹는데 어린배추와 토마토에 고추를 썰어 넣고 소금물로 간을 맞춘다.</p> <p>김장은 10월 말에 담근다. 김장은 분가한 자식들과 공동으로 하여 5가구가 600kg에 고춧가루 10kg정도가 필요하였다. 배추와 무, 파 등은 재배를 하지만 고춧가루, 마늘 고추 등을 구매하여 담근다. 고춧가루는 중국이나 한국, 타슈켄트 산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일찍이 소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므로 배추를 50-100리터의 나무통에 절이고 난 다음날 담근다. 영념이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데 사할린에서는 생선이나 젓갈 대신에 연어를 절여 썰어 넣기도 하며 조개를 끓인 국물을 붓는다. 최근에는 한국의 영향으로 생강을 넣기도 한다. 각 가정은 월동의 식품저장을 갖추고 있기에 마당 한 구석에 1.5m 정도를 파고 겨울에 먹을 식품을 보관하는데 김장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김치굴’이라고도 한다. 김장이 전승될 수 있는 것도 김치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김치굴은 서서 고개를 푹 숙이면 가능한 깊이이다. 주변은 주로 시멘트로 발라져 있고, 천장은 철판이다. 수직 지하굴이며,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상에서 보면 흙바닥처럼 되어 있고, 정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으며, 구멍의 주변은 각목으로 짜고 뚜껑을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천장은 전체적으로 나무판자처럼 되어 있다. 보통 지면보다 약간 높아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한 특징을 보인다.</p>

	 <p>사진 1. 가정의 배추김치(2013.08.21., 필자촬영)</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민족음식으로서 김치는 고려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샐러드를 즐기는 러시아음식에 익숙해져 있기에 김치는 복합양식을 띄고 있다. 즉 열을 가하지 않는 채소를 양파, 토마토, 오이 등을 재료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쳐서 부식으로 한다. 이러한 조리법은 고려인이 샐러드와 김치의 중간 형태의 음식이 여름이나 가을에 밥과 함께 식탁에 오르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식사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겨울의 보존식품으로 김장은 확고한 고려인의 대표적 식품으로 세대 간에 전해지며 민족음식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p>
<p><b>기타의견</b></p>	<p>도심에서 고려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재래시장이다. 알마티의 경우 ‘녹색시장(젤론니 바자르)’에 가면 고려인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각종 김치와 회, 두부, 된장, 순대 등의 전통음식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지인들에게는 러시아어로, 한국인에게는 러시아말이 섞인 옛 함경도 사투리로 손님의 발길을 잡는다. 여름과 가을이 오면 수박과 배추 농사를 지어 팔러 온 고려인들이 시장 주변에 임시 가판대를 만들어놓고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p> <p>사할린 한국문화원은 한국요리서를 발간하고 교포2-3세에게 다양한 요리법과 김치 담그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김치가 민족음식인 점을 고려한다면, 배추김치이외에도 백김치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등 다양한 김치 요리교실이 개설되면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p>
<p><b>참고자료</b></p>	<p>김일수 외,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궁리, 2010</p>

<p>및 문헌</p>	<p>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          국립민속박물관, 『까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국립민속박물관,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p>
-----------------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표목록 - 장]

명 칭	국 문	장	
	영 문	로마자표기	JANG
		영어풀이	Jang : soy-bean sauce
범주	장은 고려인의 보존식품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세 가지 장이 대표적이다. 세 장류는 콩을 발효하여 만드는 조미료로서 부식의 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장류는 고려인이나 사할린 교포들의 대부분의 각 가정에서 장을 담든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장(된장, 간장, 고추장)은 고구려인 대부분의 각 가정에서 향아리나 용기에 보관하고 있으며 부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한다. 장은 각 자정에서 담그기에 지역에 따른 향토 맛이나 집안에 따라 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집안에 따른 맛의 차이는 장을 담그는 방법은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비법이 전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고려인 일반 가정이 다 포함된다.	
	공동체 범위	러시아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이나 사할린 교포를 포함한다.	
개념	콩을 발효시켜 만든 조미료의 총칭을 장이라 한다. 콩을 삶아 절구에 넣고 찼어서 메주를 만들고 이를 말린 뒤에 소금물을 부어서 된장과 간장을 만든다. 고추장은 메주가루와 멥쌀가루, 고춧가루, 소금 등을 넣고 담근다. 따라서 메주를 기본재료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든다. 이러한 장류는 음식의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기본 식품이다.		
분류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승방법	콩을 재배하는 이를 발효하여 장의 제조방법이 개발되어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전승되어왔다. 장은 찌개, 국, 나물무침 등 부식의 맛을 내는데 필수적인 조미식품이다. 장류에서도 된장과 간장은 필수이며 제조방법도 거의 동일하며 메주로 소금물의 양에 따라 된장과 간장으로 구분된다. 장담그기는 주부의 몫으로 여성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연행방법 (국내)	콩을 삶아 밀과 2:1로 섞어 메주를 만들고 향아리에 메주를 반 정도 넣고 소금물에 담아 고추와 숯을 넣고 숙성시킨다. 액즙은 간장으로		

	<p>사용하며 건더기는 된장으로 담근다. 된장의 종류는 막장, 담복장, 빠개장, 가루장, 보리장, 청국장 등 6종류가 있다. 청국장은 삶은 콩을 소쿠리에 넣고 45도로 2-3일간 띄워 점질이 생기도록 하여 만든 장이다. 그 외의 장은 모두 40일정도 두었다가 만드는 장이다. 충청도는 막장이나 보리장을 잘 담그며, 경상도는 콩과 멥쌀을 섞어 메주를 만들고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섞어 담복장을 만든다. 지방에 따라 메주가루에 고춧가루, 보리가루, 멥쌀가루 등을 섞는데 따라 맛의 차이가 있다.</p>
<p><b>연행방법</b> (국외)</p>	<p>고려인의 음식저장의 방법은 첫째로 채소를 말려 보관하거나, 둘째로 발효시켜 보관하거나, 셋째로 설탕을 넣고 절여 보관한다. 장은 일년에 한번 된장이나 간장 등을 만들어 보관해 먹는다. 늦가을에 각 가정은 장을 담근다. 메주콩을 한말정도 씻은 다음 하루정도 물에 불린다. 마당에 가마솥에 콩을 넣고 무르게 푹 삶는다. 익은 콩을 절구에 찧어서 밀가루랑 섞어서 긴사각의 메주를 만든다. 비닐봉지를 깔고 20일 햇볕에 말린다. 이듬해 봄에 메주를 항아리 또는 플라스틱 통에 넣고 플라스틱에 넣고 소금물을 붓고 40일정도 별이 잘 드는 곳에서 익힌다. 메주를 건져서 용기에 넣고 소금을 뿌려 된장을 만든다. 또는 메주가루와 보리밥을 죽처럼 쭉어서 고춧가루와 메주가루, 소금을 섞어서 된장을 만들기도 한다. 고려인들은 막장을 주로 만들며, 청국장은 거의 먹지 않았다.</p> <p>간장은 즙액을 떠내서 체로 걸러서 가마솥에 붓고 달인다. 장을 담그는데 소금이 필수적이며 소금의 양에 따라 염도가 결정되는데 소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간장독에는 고추와 숯을 넣기도 한다. 된장이나 간장은 시락국이나 개장국의 양념으로 많이 사용한다.</p> <p>고추장은 메줏가루에 밥이나 되게 썬 죽을 넣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춘 뒤 발효시킨다. 찹쌀로 고추장을 담그기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고추장은 비린 맛을 없애기에 물고기 매운탕에 넣어 양념을 한다.</p> <p>장을 담그는 동안에는 아무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장을 담그는 것을 보면 장맛이 달아난다고 한다. 장을 담그는 날은 특별히 따지지 않는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b></p>	<p>장은 담그면 아들 딸네에도 유리병에 담아 나누어먹는데 나눔의 범위로 친척이나 근린관계의 사회적 친밀도를 가늠할 수 있다.</p>

<p>조사 내용</p>	
<p>기타의견</p>	
<p>참고자료 및 문헌</p>	<p>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 국립민속박물관, 『까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전경수 편, 『까자흐스탄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민속박물관, 2002.</p>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표목록 - 시락장국]

명칭	국문	시락장국	
	영문	로마자표기	SIRAKJANGKUK
		영어풀이	Sirakjangkuk : Korean doenjang soup
범주	국적과 무관하게 고려인들이 시래기로 된장국을 일상식이나 의례식으로 즐기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등	
	공동체 범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고려인 공동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개념	시락장국은 고려인이 일상식에서도 즐겨먹으며 결혼식, 환갑상에 빠짐없이 올라오는 된장국이다. 일명 ‘시락장물’라고도 한다. 사락은 배추나 무의 잎을 말린 것이 말하고, 장국은 된장국의 의미이다. 특히 겨울철을 나기위해 말려두었던 배추 잎이나 무 잎으로 된장국을 끓여 즐겨먹었다고 한다.		
분류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승방법	시락장국은 주부들이 겨울을 나기위해 김장을 담고 남은 배추 잎이나 무 잎을 사용하여 만든 된장국이기여 여성에 의해 전승되어왔다. 고려인의 전 가정에서 즐겨 일상식으로 먹고 있기에 요리방법은 주로 세대 간 전승되며 동료나 이웃 등 횡적 관계를 통해 전승되는 경우도 많다.		
연행방법 (국내)	‘시래기국’ 또는 ‘시락국’이라고도 한다. 시래기는 무 잎이나 배추 잎을 건조시킨 것으로 된장국을 끓인다. 고기나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만든다. 육수가 완성되면 삶은 시래기를 먹기 좋게 찢어서 넣는다. 양념맛을 내기위해 삶은 시래기를 된장과 양념을 넣고 무친 후에 육수에 넣고 끓인다. 된장을 풀어 넣는데 구수한 맛을 내기위해 쌀 뜸물을 넣기도 약한 불에 오랜 끓여 국을 만든다. 시락국은 건조하여 보관한 야채를 재료로 하기에 주로 겨울철에 일상식으로 많이 먹는다. 의례식으로 시락장국을 먹는 경우는 드물고 지역에 따라 들깨를 넣기도 한다.		
연행방법 (국외)	고려인 각 가정에서 된장은 필수적인 보존식품으로 남아왔기에 된장국은 일상식과 비일상식에서 주로 식단에 오른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		

절에도 시락장국은 즐겨 먹었기에 추억의 음식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조리방법은 국물에 된장을 풀어 끓인뒤 시락을 넣고 팔팔 끓인 뒤에 간을 하여 먹는다. 따라서 된장과 배추 잎이나 무 잎은 시락장국의 필수 재료이다. 장국의 맛을 내기위해 미역이나 고기(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양파 등을 넣어 더욱 풍성한 맛을 내기도 한다. 조리방법은 돼지고기를 넣고 푹 끓여 국물을 만든 후 된장을 풀고 또 시래기를 넣고 끓인 '시락장물'과 고기와 된장을 넣고 끓인 뒤 두부(뒤비)를 넣고 고추기름을 위에 얹어서 마무리를 한 음식으로 '뒤비장물'(두부된장국)이 있다.



사진 1. 시락장국 용 재료 시래기를 말리는 모양 (사진제공: 웹사이트 '고려사람'대표 한 블라디슬라프)



사진 2. 고려인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락장국용 말린 시래기 (2013.08.24. 필자촬영)

	<p>시락장물을 끓일 때 반드시 돼지고기로 육수를 낸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름이 많이 붙어있는 돼지고기를 사용한다. 금방 밭에서 뽑아온 배추를 이용할 경우 있지만 겨울에는 말려놓은 시래기를 이용한다. 금방 뽑아온 배추를 잘 씻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연해진다. 이것을 살짝 대치듯 몇 번 뒤집은 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로 자른다. 그런 다음 국물을 우려낸 돼지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는다. 이것을 나중에 다시 장국에 넣는다.</p> <p>육수에 된장을 넣고 썰어놓은 배추를 넣는다. 이 위에 썰어놓은 돼지고기 몇 점을 올려놓으면 시락장국이 완성된다.</p>
<p>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p>	<p>시락장국은 잔치, 생신 때 등에 손님들에게 반드시 내놓은 음식이다. 1년 365일 고려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 시락장국이다.</p>
<p>기타의견</p>	
<p>참고자료 및 문헌</p>	<p>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p> <p>진경수 편, 『까자흐스탄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민속박물관, 2002.</p>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표목록 - 떡]

명 칭	국 문	떡	
	영 문	로마자표기	DDOG
		영어풀이	Ddog : Making rice cake
범 주	<p>찹쌀이나 멥쌀을 가루로 만들고 이를 시루에 찌서 만드는 것으로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하거나 잔치에 쓰이는 떡 일체가 포함된다. 멥쌀보다 찹쌀을 선호하는 민족이 떡을 즐겨 먹는데 콩이나 팥을 비롯하여 야채를 넣어 떡의 맛을 내기도 한다. 때로는 감자와 같이 전분이 풍부한 재료를 말려 가루를 내어 이를 익혀 먹기도 하는데 모두 떡이라 하며 모두 떡류에 포함된다.</p>		
공동체	관련 공동체	<p>떡을 선호하는 만들어 먹는 고려인이 모두가 포함된다. 근년에는 떡을 가정에서 만들지 않고 방앗간에서 주문하기도 하는데 떡을 전문적으로 빚는 사업소도 포함할 수 있다.</p>	
	공동체 범위	<p>가내에서 곱을 만드는 대다수의 고려인이나 떡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p>	
개 념	<p>떡은 곡물(찹쌀, 조, 기장 등)을 멧돌이나 방아로 찌서 가루를 만들어 시루에 찌거나 삶아 익힌 음식을 총칭 한다. 부재료로 콩, 팥, 수수 등을 함께 넣어 함께 넣어 만들기도 하는데 떡의 명칭은 부재료와 함께 호칭되기도 한다. 떡은 비일상적인 날에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하며, 음복으로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서 신과의 합일을 나타내기도 한다.</p>		
분 류	<p>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p>		
전승방법	<p>떡은 지방에 따라 특색이 있고, 집안에 따라 떡의 모양새를 내기에 가문을 나타내는 상징성도 있다. 떡은 의례식으로 마련되고 여성에 의해 준비되기에 타지방에서 시집오더라도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를 받아 전승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성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떡 매치기는 남성에 의한 작업이지만, 매친 떡으로 모양을 내고 맛을 내는 것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p>		
연행방법 (국내)	<p>떡은 제례, 빈례를 비롯하여 농경의례, 무속이나 불교의례에도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절기에도 절식으로 계절별 자연으로부터 재료를 채취하여 떡을 만든다. 떡의 종류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는데 다음과 같다.</p> <p>○ 증병: 곡분을 시루에 익히는 것으로 떡의 기본이 된다. 증병중에서</p>		

	<p>도 백설기는 멥쌀가루에 습기를 준 다음 익히는 것인데 콩, 밤, 대추, 곶감 등을 넣고 만든다.</p> <p>○ 도병(친떡): 곡류 그대로 또는 가루를 내어 익힌 다음에 절구에 쳐서 만든 떡이다. 콩가루를 묻히거나 엿을 녹여 구워 먹는다. 일절미가 이에 해당된다.</p> <p>○ 유전병: 곡분을 반죽하고 기름에 지진 떡으로 꽃잎이나 위에 올려놓아 화전(花煎)이라고도 한다.</p> <p>○ 단자: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끓여 물에 삶아 건진 떡이다. 경단이라고도 하여 깨, 계피, 잣 가루를 묻힌다.</p> <p>○ 기타: 녹두로 만든 빈대떡 등이 있다.</p> <p>떡은 대표적인 별식으로 밥보다 한층 맛있고 의미가 있는 식품으로 여겼으며, 간식으로도 즐겨왔다. 신에게 바치는 음식으로 필수적이기에 떡살로 모양을 내기도 한다.</p>
<p>연행방법 (국외)</p>	<p>고려인들은 잔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떡 종류이다. 떡의 종류에는 찰떡과 증페이(증편), 쌀배고자 등 다양하다.</p> <p>찰떡의 고물은 ‘여르코이’(열콩:불긋불긋한 반점이 있는 열은 분홍색의 콩)를 ‘메소롭까’로 갈아서 ‘가매’로 닦아 ‘양녀미’(사하, 깨, 소금)를 넣는다.</p> <p>카자흐스탄의 쌀은 풀기가 약하기 때문에 떡을 만들면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떡을 할 경우에는 타슈켄트에서 온 쌀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찹쌀을 말한다. 보통 쌀을 입쌀이라고 하는데 증페이(증편)는 입쌀로 만든다. 입쌀갈기를 만들어 설탕(사하)와 감지(보리 싹 난 것)를 넣고 개어 만든다. 그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p> <p>먼저 쌀을 물에 씻어 불린다. 가루를 내어 채에 친다. 싹누룩과 설탕을 섞어 물을 타고 찌는 과정을 밟는다. 처음부터 싹누룩을 넣는다. 싹누룩은 싹을 약간 낸 보리(질금)를 말한다. 반죽에 드로제를 넣어 부풀어 오르면 뒤집어서 버무리는데, 이 작업을 3~4회 반복한다. 버무리는 통을 ‘마크’라고 하며, 도구는 ‘밥주기’를 이용한다. 찌는 시간은 15분 정도면 된다. 가매에 물을 붓고, 물에 닿지 않을 만큼 위에 ‘시리다리’(구멍이 많이 뚫린 철판을 가매에 걸칠 수 있도록 동그랗게 잘라 내어 만든 것)를 걸친다. 그 위에 떡보이(보이는 광목천)를 깔고, 보이 위에 반죽을 1순가락씩 떠 놓는다. 가매 뚜껑을 덮는다. 연료는 장작도 쓰고 가스도 쓴다. 벽돌로 쌓아 만든 아궁이와 부뚜막 위에 가매를 고정적으로 설치한다. 다 찐 증페이를 시리다리째 들어내어 상 위에 놓고, 서로 달라붙은 증페이들을 칼로 잘라내는 작업을 한다. ‘지비’(해바라기 기름과 설탕을 섞은 즙)를 증페이에 바른다.</p>



이것은 증페이끼리 달라붙지 않도록 하고 맛도 낸다. 시간이 흐르면 증페이의 겉이 조금 건조된다. 이것을 ‘양푸이’에 담는다. 양푸이 위에 셀로판을 덮고, 그 위에 보이를 또 덮는다. 증페이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배고자는 고려인들이 의례 시에 반드시 준비하는 음식의 하나로 돼지고기, 대드배차, 마늘, 상채, 고치갈기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것으로 만두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료를 싸는 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길 재료가 감자가루일 경우 ‘감자배고자’라 하고 쌀가루일 경우 ‘쌀배고자’라 한다.

쌀배고자는 먼저 쌀가루를 곱게 반죽을 하고 속에 넣을 재료를 준비한다. 재료에는 소금에 절였다고 꼭 짠 양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다진 양념이 들어가는데 만두 속 재료와 매우 유사하다. 이들 재료를 잘 버무린 다음 쌀가루로 만든 반죽에 재료를 넣고 송편 빚듯이 만들어 찜통에 40분 정도 찜는다. 속은 만두요, 겉은 송편모양인데 이것을 ‘쌀배고자’라고 한다.

이밖에 가주리, 옥수수 떡 등이 있는데 가주리는 찹쌀갈기로 만든다. 스스로 만든 엿을 바르고, 그 위에 들깨를 살짝 뿌린다. 추석에는 곡식을 건어 옥수수로 떡을 해서 먹는다. 노란 찰떡인데, 카자흐스탄에서도 노란 찰떡이 30년 전까지 지속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흰 찰떡을 사용한다. 찹쌀이 없으면 찰옥수수로 찰떡을 만들기도 한다. 찰떡을 하여 울콩 고물에 묻혀 먹는다.



사진 1. 찰떡을 만들기 위해 떡 매치기를 하는 모습(1990년 2월 19일, 사진제공: 웹사이트 ‘고려사람’대표 한 블라디슬라프)



사진 2. 떡 매치기(1990년 2월 19일, 사진제공: 웹사이트 ‘고려사람’ 대표 한 블라디슬라프)

고려인들이 쌀가루를 내서 떡을 즐겨 만드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시루떡: 팔과 땀쌀로 만드는데, 가마솥에 물을 붓고 위에 시루를 놓고 떡을 찐다. ‘셀기’는 찹쌀로 만든 시루떡이다.

○ 증편: 생일잔치나 제사에는 꼭 만들어 먹는다. 땀쌀을 방아에 넣고 찡는다. 끓는 물에 반죽하고 싹누룩(싹을 약간 낸 보리)과 설탕을 섞어서 찐다. 이를 다시 가루를 내서 그릇에 넣고 술을 떠서 놓으면 발효가 되어 부풀어 온다. 이것을 시루에 놓고 찐다. 그러면 찢빵 모양의 증편이 된다.

○ 골미떡: 큰 판에 떡을 찌서 직사각형 60-70cm 정도의 크기로 자른다. 여기에 기름을 발라 서로 붙지 않게 하고 찰떡 몇 개를 놓은 모양이다.

○ 찰떡: 찹쌀을 이용해 떡매를 쳐서 만들며, 떡고물은 열콩을 사용한다.

○ 지름떡: 찹쌀가루를 물에 불려서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구운다. 두께는 2-3cm이고 10-20cm정도 된다.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떡은 증편이다. 증편은 발효시켜 부풀게 만든 떡으로 빵과 떡의 중간 형태이다. 제사나 성묘에 골미떡이나 지름떡을 많이 만들었으나 현재는 증편이 의례에 많이 사용된다. 고려인은 설날에 가래떡으로 떡국을 먹는 일은 거의 없으며 만두를 먹

	기도 한다. 북쪽지방의 출신이 많은데서 비롯된 듯하다. 그러나 사할린의 교포들은 설에 떡국을 먹는데 경상도를 비롯한 남부지방 출신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	떡은 민족음식이며 의례식 또는 잔치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다. 떡이 증편이나 찰떡을 많이 먹으며 종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근년에는 밀떡이라 하여 빵이 떡을 대신해 가고 있다. 제사에도 떡을 대신하여 빵을 제사상에 놓기도 한다. 하지만 명칭은 ‘떡’이라 하고 있다. 떡은 분명히 정체성을 나타내는 음식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b>기타의견</b>	
<b>참고자료 및 문헌</b>	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 국립민속박물관, 『까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국립민속박물관,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 전경수 편,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4)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대표목록: 돌, 장례\_ 총 2항목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대표목록 - 돌]

명 칭	국 문	돌	
	영 문	로마자표기	DOL
		영어풀이	Dol : First anniversary of birth
범 주	태어나 첫 생일잔치를 돌이라 한다. 생일잔치에 아이의 미래를 점쳐 보는 것을 돌잡이라 한다. 또한 돌에 친가와 외가의 친척들이 참여하며 축하하고 건강히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선물을 준다. 고려인의 돌잔치에 행하는 의례나 관행이 모두 포함된다.		
공동체	관련 공동체	돌잔치는 아이의 친가와 외가 함께 행하는 잔치로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의 고려인과 교포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을 포함한다	
	공동체 범위	가족(친가,외가)중심의 행사이며 이웃이나 친분관계자도 참여하지만 특정 단체는 없다.	
개 념	태어 난지 일 년이 되어 치루는 첫 생일잔치이다. 첫 생일잔치에 행하여지는 의례나 미래를 예측하는 의례적 행위를 포함한다.		
분 류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전승방법	돌의 상차림이 돌잡이 등은 가정에서 전승이 되며 상차림은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전승되고 있다.		
연행방법 (국내)	<p>돌잔치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축하하며 돌잡이를 통해 아이의 미래를 예측해보며 음식과 떡을 이웃과 친지가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이다. 친척이나 이웃은 아이의 장수복록을 위한 선물로 실·금반지·수저·완구 등을 선물한다.</p> <p>돌잡이는 붓·돈·떡·쌀 등은 남녀 공통적으로 올려놓지만, 여자아이에게는 재봉도구를 올려놓으며 남자아이에게는 활과 화살을 올려놓기도 했다. 돌잡이를 통해 아이의 성(性)에 따라 성장하여 자신의 사회적 몫을 다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바램이 담겨있다.</p>		
연행방법 (국외)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지낸다. 돌잔치는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중요시한다. 돌잔치에는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이 참석한다. 돌상에는 찰떡 3그릇, 열콩 1그릇, 가위, 돈, 책, 연필 등을 놓는다. 돈은 대개 친척들이 올려놓는다. ‘돌잡기’라고 해서 아이가 무엇을 가장 먼저 잡는지를 관찰하여 책이나 연필을 잡으면 앞으로 커서 ‘공부를 잘 하겠다’고 점치고, 돈을 잡으면 ‘잘 살겠다’, 실을 잡으면 ‘오래 살겠다’, 가위를 잡으면 ‘바느질을 잘 하겠다’고 하며, 음식을 잡으면 안 좋다고 한다.

찰떡은 몸풀 때 도와 준 사람에게 1그릇을 주고, 젓이 나오지 않아 남의 젓을 얻어 먹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1그릇을 준다. 그리고 1그릇은 ‘세인’의 몫이다. 아이의 엉덩이에 푸른 자국이 있는 것은 세인이 아이 더러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찰떡 1그릇을 세인에게 바치는 것이다.

아이의 부모 어느 한쪽이 고려인일 경우 고려인의 풍습에 따라 돌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고려인은 평생 세 번 잔치를 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요컨대 돌잔치와 결혼잔치 그리고 회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는데, 이들 잔치를 가장 큰 잔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돌잔치의 비용은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다. 대개 적게는 5만 텡게에서 많게는 100,000텡게에 이른다. 여기에는 돌잔치 옷 세 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옷은 반드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돌잔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책임이고, 회갑잔치는 자식들이 몫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잔치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돌잔치는 일가친척들이 참여하여 아이의 돌을 축하해 주는데, 일가친척들이 200텡게 정도의 부조를 할머니에게 한다. 부조금은 모두 챙겨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준다. 그 돈으로 살림살이를 준비하기도 하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한다.

돌잔치의 음식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생선튀김, 오이채, 샐러드(가지, 토마토, 마요네즈), 오이썰기 등을 준비하고 이 밖에 닭, 물고기회, 두부볶음, 생두부, 찰떡, 증편 등을 준비한다.

돌상에는 아이 앞쪽 제 1열에 돈, 연필, 공책, 가위를 올려놓고, 제 2열에 쌀 1그릇, 율콩 1그릇, 찰떡 3그릇을 차린다. 그리고 나서 돌상 앞에 할머니가 앉아서 아이를 보드고 돌잡기를 한다. 아이가 돈을 잡으면 부자로 잘 산다고 하고, 연필과 공책을 잡으면 공부를 잘 하며, 가위를 잡으면 바느질을 잘 한다고 한다. 그리고 율콩을 잡으면 아이가 흥진을 쉽게 한다고 한다.

아이가 돌잡기를 하면 일가친척들은 돌상 위에 돈을 올려놓는데,

돌상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일가친척들이 돈을 올려놓는다. 일가친척들이 돌상에 돈을 올려놓을 때 할머니는 돈의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만큼 갚는다.

다음으로 찰떡을 내놓는다. 찰떡은 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에게 1그릇씩 나누어준다. 노란 찰떡인데 지금은 거의 흰 찰떡을 사용한다. 찹쌀이 없으면 찰옥수수로 찰떡을 하기도 한다. 찰떡을 하여 율콩고물에 묻혀 먹는다.

돌잡기가 끝나면 일가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음식은 증편, 국시, 호도 등이다. 나누어 먹고 남은 음식은 친지들에게 싸서 나누어 주기도 한다.



사진 1. 제보자 김 류보위(키르기스스탄 비쉬켄, 오른쪽 끝)의 손녀 돌잡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고려인은 부모는 되도록 자식이 타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고려인끼리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은 자손이 민족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아이의 장래를 예측하기 위한 돌잡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돌잔치는 친족간에 화합과 화목을 다지는 자리로 자용하고 있다.</p>
<p><b>기타의견</b></p>	<p>근년 들어 고려인들이 한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돌잔치 옷을 한국에서 구입해 입히고 잔치를 한다.</p>
<p><b>참고자료</b></p>	<p>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p>

및 문헌	관, 1999. 국립민속박물관, 『까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국립민속박물관,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 전경수 편,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대표목록 - 장례]

명칭	국문	장례	
	영문	로마자표기	JANGRYE
		영어풀이	Jangrye : funeral rites
범주	중아시아와 러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교포들이 임종을 맞이하면 한민족의 전통적 방식에 따라 3일장 또는 5일장을 치루고 묘지에 매장하며 매년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죽음 의례와 조상을 추모하는 의례		
공동체	관련 공동체	전통적 장례에 따라 망자의 친족집단이 주재하여 장례를 치루고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의 고려인과 교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을 포괄한다.	
	공동체 범위	중아시아 고려인과 사할린 교포를 포괄한다.	
개념	망자의 친족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망자의 영혼과 시신을 연속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기일에는 조상을 추모하고 자손의 번영과 친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의식		
분류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승방법	상례와 제사는 사회관습과 유교적 절차에 따라 상복을 입은 친족이 주도적으로 치룬다. 죽음은 망자와 친분이 있거나 마을 공동체와도 관여하는데 사회적 관습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상례에 관해 경험이나 해박한 지식을 갖춘 자가 관여하여 망자의 영혼과 시신이 처리된다. 따라서 상례는 친족과 지역공동체의 남자가 중심이 되어 의례가 진행되어 전승되고 있		
연행방법 (국내)	상례는 주자가례에 따라 초혼·수시·습렴·발인 등의 과정을 거쳐 산에 봉분을 만들어 매장하였다. 망자를 중심으로 친족이 참여하며 상주는 장남이 장례를 치룬다. 망자는 수의를 입히고 나서 유족은 상복을 입고 나서 문상객을 받는다. 시신을 입관하고 상여로 장지까지 운반하여 매장한다. 근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삼우제와 49재를 거쳐 매년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현대에는 종교와 관계없이 가족이 모여 추모예배를 하거나 성묘를 가기도 한다.		
연행방법	다른 전통 의례보다도 우리의 전통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상례에서		



<p>(국외)</p>	<p>특기할 만한 것은 ‘거울 가리기’, ‘혼 부르기’, ‘명정 쓰기’, ‘매장시 곡’ 하는 의식이다. 상을 당하면 고려인들은 먼저 집 안의 유리나 거울 등 물건을 되비쳐주는 모든 가재도구를 하얀 천으로 가린다. 그리고 혼 부르기 의식을 거행하는데 대개 일가친척 중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망자의 옷을 들고 대문 어귀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로 나가 몇 번 흔들면서 ‘혼 받으시오’라고 외친다.</p> <p>그리고 명정을 쓸 때는 한글이 아닌, 전통적으로 써오던 한자로 쓸 것을 고집한다. 지금은 한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버려 한글로 많이 쓰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한자를 아는 사람을 찾아 한자로 명정을 쓴다. 장례 의식은 지역과 도시, 농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옛 전통에 따라 정성껏 절도 하고 곡도 한다. 특히 매장 의식이 이루어질 때는 여자들이 나서서 곡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가리켜 ‘곡을 낸다’라고 한다. 제례도 엄숙하고 정중히 이루어지며 여기서도 우리나라처럼 3년상을 치른다. 이러한 장례식과 관련한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p> <p>(1)운명</p> <p>사람이 운명하는 것을 ‘상세 났다’라고 말한다. 장례식은 3일 장세, 5일 장세, 7일장세가 있다고 하나 주로 3일 장세이다. 5일 장세는 고인의 자식이 미처 오지 않은 경우에 하고, 7일 장세는 원동에서 많이 했다고 한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설날에 임박해서 운명하면 설날에 산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을 쇠고 발인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두해 상세 났다’라고 표현한다. 요즈음은 이런 경우 설을 쇠기 전에 발인을 앞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날에 발인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p> <p>사람이 운명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주위에 둘러앉아 임종을 지켜본다. 맥박을 짚어 보거나 눈으로 확인하여 운명했다고 판단되면 가족들은 곡을 한다. 여자들은 하얀 수건을 쓰고 곡을 하고, 남자들은 검정 ‘뽀비야쓰까’(완장)를 한다.</p> <p>(2)혼부르기</p> <p>나이 많은 남자가 ‘혼부르기’를 하는데, 고인의 옷을 흔들면서 집 주위를 돌아다닌다. 이 때 옷은 고인이 입었던 ‘적삼’이며, 이 옷을 들고 이름이나 성을 부르면서 잘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 세 번 소리를 한다. 혼부르기를 한 뒤 적삼은 고인의 머리 곁에 놓아 둔다. 그리고 밥 3그릇을 마당의 한쪽 맨바닥에 나란히 차려 두었다가 발인하는 날 관이 나가기 전에 집 밖 땅 속에 묻는다.</p>
-------------	---

(3)습염과 입관

사람이 운명하면 고인이 평상 시에 거주했던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모신다. 방안에 있는 침대, 가재도구를 들어 내고, 칠성판이라고 하는 판자 위에 하얀 형짚을 깔 뒤 그 곳에 모신다. 그리고 방안의 시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멈춰 놓고 하얀 수건으로 거울을 덮어 놓든지 아니면 싸서 올려놓는다.

고인을 칠성판에 모실 때 습염을 한다. 검은 형짚 조각에 목을 적셔 고인의 몸을 닦아 내고 옷을 입힌 뒤 형짚으로 묶어서 칠성판 위에 모신다. 이러한 일은 주로 일가친척이나 가족 혹은 이웃집 여자들이 한다. 목욕을 시킨 뒤 고인의 손톱과 발톱을 잘라 1개의 주머니에 모두 담아 입관할 때 신발 옆에 놓아둔다. 습염이 끝난 뒤 입히는 수의라는 명칭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몸을 닦아 내고 나서 계절에 상관없이 평상시 입었던 옷 중에서 깨끗하고 보기 좋은 옷이나 아니면 새로 구입한 옷을 입힌다. 주로 여름옷이 아니 검정색 계통의 얇은 옷을 많이 사용한다. 옷의 종류를 보면 상하 속옷, 검정색 바지, 긴소매의 하얀 적삼, 양말, 검정색의 여름 신발 등이 있다. 한복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신발은 신기지 않고 발 옆에 세워 놓는다.

대개 관이 준비되면 바로 입관한다. 관이나 장례용품 일체는 장례용품을 취급하는 ‘뽕호론노에뮤러’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고인이 밤에 원명하는 경우는 다음 날 입관을 하나, 아침에 운명하는 경우는 그 날 바로 입관한다. 여름에 운명한 경우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나면 관의 덮개를 덮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덮개를 관 옆에 세워 놓는다. 입관한 뒤 관의 덮개은 덮지 않고 북망산이라 불리는 장지에서 매장할 무렵에 못질하여 덮는다.

(4)제사상과 조문

입관이 끝나면 관이 보이지 않도록 그 앞에 흰색 커튼을 치고 그 위에 명정을 걸쳐 놓는다. 그리고 명정 앞에 제사상(뽕미날리쓰토리그)을 차리는데, 제사상에는 밥 1그릇, 술병, 젓가락과 숟가락 1벌, 물그릇을 차린다. 물그릇에는 밥이 조금 말아져 있도 그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는다. 발인하기 전까지 아침, 점심, 저녁, 밤 12시에, 제사를 지낼 때는 돼지고기, 과일, 달걀 등을 새로 준비하여 제사상에 올린다.

빈소는 항상 여자들만 앉아서 지키고, 남자들은 서서 손님들이 들

어오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다. 여자들은 빈소 곁에만 앉아 있지만 남자들은 밖의 출입이 자유롭다. 여자들이 빈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음식 준비는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도와(도배해) 준다. 조문객은 남자 상주를 만나 악수를 하고 들어와 입관하기 전에는 고인에게 한 번 절을 하고, 입관 후에는 세 번 절을 한다. 여자 상주들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한다. 조문객은 절을 하기 전에 제사상에 돈을 올려놓는데, 대개 이웃인 경우 100~200뎡게, 친척은 500~2,000뎡게씩 올려놓는다. 조문객은 조문한 뒤 흰색 천으로 덮여 있는 관 속의 고인을 쳐다보기도 한다.

(5) 발인과 운구

발인할 때 옛날에는 창문을 통해 관이 나왔으나 지금은 출입구를 통해 나오는데, 관의 머리가 앞으로 나온다. 러시아인 풍습에서는 관의 다리 쪽이 먼저 나온다. 관은 11시 무렵에 방 안에서 나가고, 관이 나올 때 맨 앞에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의 덮개가 나오며, 뒤이어서 관이 나온다. 옛날에는 나무에 매단 명정이 맨 먼저 나왔으나 지금은 관을 명정으로 덮어서 나온다. 명정도 예전에는 한자로 썼으나 지금은 한글로 써서 만든다. 한자나 한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정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한다.

관이 나오려고 하면 밖에서 ‘므쓰간뜨’라고 불리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드럼(바라반)을 두드리고, 트럼펫(뚜루바), 호른(바리톤), 클라르넷(플루트)을 분다. 악기는 조합에 보관되어 있으며, 조합원이 악기를 연주한다.

관이 나오면 관을 차에 싣는데, 겨울에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개 화물차에 싣는다. 관을 차에 싣기 전에 발인제를 지내는데 방안에 있었던 제사상을 가져와 화물차 앞에 차리고, 그 위에 삶은 닭, 술병, 술잔, 젓가락 한 벌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혼부르기를 했던 사람이 나와서 제사상에 술잔을 세 번 나누어 부어 놓고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혼을 부른다. 혼을 부르고 나면 화물차 주변에 술을 뿌린다. 이 때 상주들은 곡을 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을 ‘장세한다’라고 부르는데, 화물차 위에 관을 싣고 양쪽에 여자들만 앉는다. 남자들은 걸어서 장지까지 이동한다. 장례 행렬은 1)꽃을 든 사람, 2) 운구차, 3) 남자상주, 4)일가 친척 및 조문객, 5) 악사 순으로 뒤따른다. 장사하는 날 아침에 친척이나 이웃 사람 5~6명이 장지에 먼저 가서 뒷자리가 결정되면 술을 부어 놓고 절을 세 번 하고 주변에 술을 뿌린다. 그리고 나서 관을 묻을 구덩이를 판다.

	<p>지금은 500~700탱계를 지불하고 기계로 판다.</p> <p>(6)모이하기와 마지막 제사  장지에서 봉분을 축조하는 것을 ‘모이한다’라고 한다. 관이 도착하면 관의 덮개를 못으로 박고 명정을 덮은 뒤 상주와 가족들이 손으로 세 번 흙을 넣고 나면 일꾼들이 본격적으로 흙으로 덮는다. 봉분이 완성되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울타리를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고인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불사르고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30년 전까지는 장제나가기 전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나누어 먹지 않는다.</p> <p>(7)묘지  묘지는 봉분, 비석, 울타리로 구성되어 있다. 봉분은 흙으로만 쌓는다. 옛날에는 주로 흙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나 지금은 대리석으로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리석의 석곽 안에 콘크리트나 흙을 채워 넣는 경우도 있다. 봉분의 형태를 보면 크게 토분형과 석곽형으로 나누어지고, 토분형은 비울타리형과 울타리형, 석곽형은 대리석형, 콘크리트형, 토적(土積)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는 고려인이 이주 초기에 만든 것으로 토분형이면서 비울타리형이다.  묘비명에는 무덤 주인이 이름과 출생일, 사망일이 기록되어 있다. 묘비명에 나타난 이름을 보면 초기에 축조된 토분형에서는 한국식 이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식 이름이 표기된 석각형이 많다.</p>
--	---



사진 1. 묘지에서의 장례식 장면, 2010, 02.03(사진제공: 웹사이트 '고려사람' 대표 한 블라디슬라프)



대리석으로 세워진 고려인 석각형 묘지, 타슈켄트(2013.08.21. 필자 촬영)

	<p>(8)타 민족과 결혼한 경우의 장례식</p> <p>이민족 간에 결혼하여 상세가 나면, 가령 러시아인 남자와 고려인 여자가 결혼하여 상세가 났을 경우에는 고려인 묘지에 안장될 수 있지만, 카자흐 남자와 고려인 여자가 결혼하여 상세가 났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카자흐인 묘지에 안장되기도 하고, 남자는 카자흐인 묘지에, 여자는 고려인 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도 있다.</p>
<p><b>사회적 기능 및 중점 조사 내용</b></p>	<p>고려인에게 유교적 관념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습은 장례와 제사이다. 우즈베크스탄 뿔리따젤의 고려인 상두계는 공동묘지관리사무소이지만 실제적으로 임종부터 치장(治葬)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상두계가 관여하여 지원하여 돕고 있어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 상두계는 단지 장례를 위한 집단이지만 민족의 관습을 계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고려인의 장례에 러시아의 장례법이 수용되어 있으나, 근간은 주자가례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근년에 연해주에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고려인들이 마을을 조성하고 공동묘지를 조성되고 있다.</p>
<p><b>기타의견</b></p>	
<p><b>참고자료 및 문헌</b></p>	<p>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p> <p>국립민속박물관, 『까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p> <p>국립민속박물관,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p> <p>김일수 외,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궁리, 2010.</p>

## VI. 기관 소개 및 정책 제언

### 1. 기관 소개

#### 1) 러시아 연해주

- 고려신문사

- 주소: 연해주, 우수리스크, 아무르스카야 63번지
- 편집장: 김 발레리아
- 발행일: 2004년 3월 ~ 현재
-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에서 운영, 동일 건물 내 신문편집국 상주
- 김 발레리아 편집장은 지역 고려인기관장과 아리랑 가무단 단장까지 겸임하고 있음.
- 다년간 많은 한국연구자 혹은 국가기관 관련자들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한국 측 방문객과 신문열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
- 이번 현지조사에서 첫 발행일부터 현지조사를 할 당시인 2013년 6월호까지는 모두 검토하였으므로, 다음 현지조사에는 그 이후 신문부터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극동국립역사기록보존소 (<http://rgiadv.ru/>)

: 월, 목 9시 11시20분, 1시-4시. 홈페이지에 문서목록 리스트가 탑재. 직접 검색해 본 결과, 문서 세부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서 제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음. 다만, 한인, 한국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 문서만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가 들어있는 전체 문서군의 다른 내용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찾고, 목록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예. <http://rgiadv.ru/fonds/polnyy-spisok-fondov-rgia/702-3>)

문서군 전체가 검색, 이 중에 한국 관련 문서는 30번(30-532: 한인 노동조합), 58번(58-3371: 아무르 주 한인협회), 231번(한국 내 사망한 러시아 총영사 도서관 설립 건)

- 극동국립학술도서관 (<http://www.fessl.ru/>)

전자카탈로그가 있으며, 검색 가능. 한인, 한국 관련 검색 결과, 139 건 검색. 대부분 한국어 교재, 사전, 현대 한국 역사, 현대 한국과 러시아 관계, 김기덕 감독, 북한 등이며, 한인 이주사 관련 박사논문, 한국 전쟁, 한국 민담 등에 대한 도서가 있음.

## 2) 러시아 사할린

### • 새고려신문사

- 주소: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바 37번지
- 편집장: 배 빅토리아
- 발행일: 1945년 6월 1일 ~ 현재
- 창간 당시 ‘레닌의 길로’라는 신문명, 소련 붕괴 이후 현재 신문명(‘새고려신문’)으로 발행
- 현재 러시아 전체에서 발간되는 고려인 신문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신문사 사장을 비롯한 사진기자 등 직원들이 저작권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열람 불가능. 신문열람은 신문사 내에서 직원 상주 하에 가능하며, 복사 및 촬영은 불가능.
- 직원 상주 하에서 1989년 신문 열람했으며, 사장의 허가 하에 1989년 신문 자료 촬영
-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sekoreasinmun>)에 ‘새고려신문’ 개설, 회원 가입 시 최근 자료들은 열람 가능
- 신문사에서는 신문자료의 PDF화를 기획 중, 유료로 이용 가능
- 사할린문서보관소에도 새고려신문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으나, 방문 당시 열람 불가능. 해당 문서는 한정된 시간에 열람 가능하며, 문서보관소 내 복사 및 촬영은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요구됨.

### • 유즈노-사할린스크 박물관 (<http://sakhalinmuseum.ru/>)

- 주소: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무니스티체스키 프로젝트 29번지
- 월요일 휴관, 화~일: 11시-6시
- 박물관 내 “한국관”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근대사 부분에서 한인들의 사진을 몇 찾을 수 있었음
-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회보에서 몇 차례 한인관련 소논문들이 게재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구입한 회보에서는 사할린 한인들의 김치조리에 대한 소 기사 발견

### • 사할린 국립역사기록보존소(GIASO) <http://www.sakharchive.ru/>

-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인 관련 문서들이 있는지 알 수 없었음.

### • 아르세네프 시립박물관 (<http://www.arseniev.org/> )

- 홈페이지 상에서는 한인 관련 자료가 있는지 검색이 되지 않음



- 아리랑 가무단

: 우스리스크에 있는 무용단, 1995년 설립, 200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민속춤 경연대회 우승팀, 단장: 발레리야 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는 않음. 아리랑가무단 관련 기사 <http://www.vostochnieleta.ru/ariran/>

### 3) 카자흐스탄

- 고려인협회

-1990년 3월 17일 고려인을 중심으로 창립.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규모의 독립건물 까레이스키돔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물 3층에 단체의 본부 사무실을 두고 있음.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고, 고려극장을 비롯하여 각종 고려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매년 8월에 개최되는 ‘고려인 문화의 날’을 주최하고 설, 추석, 단오 등 명절날 행사도 주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계, 재계 거의 모든 고려인 관련 분야의 일은 이곳과 연결되어 있음. 현재 김 로만(카자흐스탄 하원의원) 회장이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김 게르만(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교수)이 부회장을 맡아 보좌하고 있음. 이 건물 2층에는 고려인 관련 자료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각종 문헌자료와 <고려일보>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 문헌자료는 러시아어로 발행된 고려인 관련 자료도 있으나 한국어로 된 도서는 적은 편. 대부분의 도서자료가 북한 혹은 한국에서 유입된 것임.

- 고려극장

-고려극장 대본 열람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적 절차가 필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공문을 카자흐스탄 외무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고려극장은 1932년 9월 9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재소 고려인들을 주축으로 ‘원동변강조선극장’이라는 명칭으로 창단. 아마추어 연극인 및 음악예술이 뒤어 난 대표자들로 구성. 태창춘, 연성용, 채영, 이길수, 김해운, 김진, 리함덕, 최봉도 등이 대표적인 인물. 또한 조명희, 박일 등의 작가와 번역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민족혼을 상기시키는 연극정신으로 극단의 방향 정해짐. 당시 공연된 가장 뛰어난 작품은 <춘향전>, <장한몽>, <야로바야의 사랑> 등.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 후 1939년부터 카자흐스탄 집단농장에서 생활하는 고려인을 다룬 작품 <행복한 사람들>, <분함대의 죽음> 등 공연.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과 관련한 내용 혹은 전설적 영웅 흥범도를 주제로 한 <흥범도>(1942), <낮과 밤>(1944) 등이 공연됨. 해방 이후 카자흐스탄 한인 콜호즈의 성공을 그린 <즐거운 생활>(1949), <뇌

우>(1950) 등이 발표됨. 1962년에는 고려극장의 공로가 인정받아 다수의 극장 배우와 종사자들이 최고 명예 칭호와 포상을 받음. ‘카자흐스탄 인민배우’칭호는 배우 김진, 리함덕, ‘공훈 배우’칭호는 리영수 등. 이후 수 많은 극장 관계자들리 최고 명예 칭호를 받음. 1982년에는 고려극장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소련극장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표식 훈장’이 수여됨. 고려극장 창립 이래 600만 이상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250여 편의 연극과 음악회를 공연하였으며 약 80여 편의 희곡이 쓰여 졌고 약 70여 편의 러시아, 소련, 외국작품이 번역됨.

- 고려일보사

-90년 역사 지닌 한글신문 발간신문사. 고려인협회 본부 사무실 옆에 위치.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운영은 김 콘스탄틴주필과 남경자 한국어판 주필을 비롯하여 여직원 2명이 상근하고 있음.

-고려일보의 역사를 알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역사를 알 수 있고, 1923년 연해주에서 창간된 ‘선봉’에 뿌리를 두고 있음. 선봉은 1930년대 초 연해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글매체였지만 1937년 소련 정부에 의해 17만 여명에 이르는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철폐를 맞음. 다행히 한 편집위원이 신문 활자를 챙겨온 덕분에 1938년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신문을 다시 낼 수 있었음. 소련 전역에 배포됐던 레닌기치는 한때 발행부수가 4만부에 이름. 소련 해체 이후 레닌기치는 1991년 ‘고려일보’로 명칭 변경 새로운 시작을 모색했지만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여러 차례 폐간 위기를 맞이하게 됨. 현재 정부와 고려인협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운영. 현재 상근자 4명이 주1회 신문을 발행. 고정 독자는 2,000여명. 전체 20면 가운데 4면만 한글로 제작하고 16면은 러시아어로 제작. 2003년에는 그 동안에 발간된 신문 <선봉>,<레닌기치>,<고려일보>을 CD\_ROM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임. 국내 공공기관에서 구입하여 대중화할 필요가 있음.

#### 4) 키르기스스탄

- 고려인협회

-주소 720042, BELORUSKAYA ST, 3

-회장 최 발레리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을 대표하는 단체.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소속 건물에 각 민족별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데 이곳에 고려인협회 사무실도 있음. 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고, 내부에는 고려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

료들(문헌, 영상 등)이 비치되어 있음. 다만 러시아어로 된 자료들이 대부분. 고려인협회 산하에는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그 중 5개의 고려인 노인단(장수회, 통일, 아리랑, 무궁화, 은색머리)이 있고, 모두 합하면 700명 정도의 큰 규모. 이들 단체는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려인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 있음. 고려인과 관련한 무형문화 대해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5) 우즈베키스탄

### • 국립중앙기록보존소

-주소: 100043, г. Ташкент, Чиланзарский район, ул. Чиланзарская, дом 2  
-전화: ( 8 3 7 1 ) 2 3 0 - 4 7 - 6 6 , 2 3 0 - 4 7 - 6 3 , 230-47-65,277-06-68,277-04-80 (fax)

-이메일: csa@archive.uz/웹사이트: central.archive.uz

-소장: 오칠로프 일홈 사이트쿨로비치/대민업무과장: 가이포프 도니에르 루파토티치

- 대민업무과장과 2013년 8월 21일 면담. 대민업무과장은 다른 부서의 책임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한정. 대민업무과장은 월, 수, 금 09:00~13:00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시간이 제한적이며, 소장은 화, 목 10:00~12:00에만 면담 가능. 면담결과 우즈베키스탄 국립중앙기록보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류절차상 현지에서 일정한 시간(4주 이상)을 체류해야 되거나, 한국에서 사전에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열람허가증을 얻어야 하지만 기록소 내의 결제 과정이 적지 않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음.

- 이용조건: 외국인이 국립중앙기록보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의 승인서를 획득해야 함. 그것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 과학 및 문화 교류 협정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이 우리나라에서도 “국립기록보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양국 간에 상호교류협정이 없을 때는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로부터 개별적 허가를 받으면 가능.(Пункт введе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казом начальника ГАУ,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МЮ 17.06.2002 г. N 1053-1).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의 허가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한국 외교대표부(대사관)나 이용자의 소속기관의 협조공문을 통한 내부 결제를 통해 가능. 이용 요청서에는 의무적으로 국가, 성과 이름, 학위, 열람 분야, 자료의 연도별 시간대, 연구목적 등을 기재해야 함.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로부터 국립중앙기록보존소 이용 허가

서를 취득한 이후에는 한국대사관이나 현재 이용자의 소속기관이 국립중앙기록보존소장에게 기록보존소의 이용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해야 함. (우즈베키스탄 법무규정 17.06.2002 r. N 1053-1).

- 국립중앙기록보존소의 고려인 관련 자료: 현지조사 중 고려인과의 접촉을 통해 얻어낸 사진 및 문서자료를 통해 볼 때, 이중 상당수가 국립중앙기록보존소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보존소에는 1937년 이후 현재까지 방대한 고려인 관련 사진 및 문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이번 현지 조사에서,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립중앙기록보존소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음. 앞으로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문을 경험삼아 2~3개월 전부터 철저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연방국가라는 특징을 감안할 때 내부의 보안과 내부의 기록물 유출에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외부인에게의 개방을 가능하면 불허하는 상황.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 못지않게 관계자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참고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방대한 양의 고려인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

-주소: 61, Grechushkin str., Tashkent, Republic of Uzbekistan

-전화: 99871-283-36-82/휴대폰: 99893-389-54-38

-회장: 박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방문일자: 2013년 8월 21일

-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는 우즈베키스탄 교민을 대표하는 문화협회로서 대규모의 독립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대지를 확보해두고 있는 상태. 시내 중심가에 새로운 현대식 회관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박 빅토르 회장은 본인이 시내에서 대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는 동시에 교민들을 위한 대정부 로비스트로서 일종의 정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협회에서는 거의 모든 고려인의 문화 행사를 주관하고 성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려인 디아스포라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 점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고려인에 관련한 정보나 지원이 동 문화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박 빅토르 회장은 우즈베키스탄 교민의 대표로 대통령 취임식 같은 한국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우즈베키스탄의 소수민족대표자 행사

및 소수민족관련정부회의에 자문역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의미가 강조될 수 있음. 박 빅토르 회장의 배려로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다수의 가문단 공연에 참관할 수 있었으며, 가문단 단장과 단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며, 고려문화협회 건물 내에 위치한 타쉬켄트 한국어교육원, 고려신문(편집장: 김 브루트) 등을 방문할 수 있었음.

#### 6) 기관조사 시 유의점 및 권고사항

-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3국 기관 방문에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적 제한’임. 특히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모든 러시아 대학 및 기관이 장기여름휴가에 들어가며, 이 시기에는 오전 근무나 격일,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창구를 열기 때문에, 단기간 현지조사에서 찾고자 하는 문서를 검색하고 읽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제한이 있음. 여름기간이 아니더라도, 한인관련 문서 중에서도 문화재청에서 찾고자 하는 무형문화유산 부분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현지에서 장기간 문서를 찾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임. 혹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에서 이미 많은 양의 문서를 조사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문서에서 고려인의 문화유산 관련 문서를 재검색하여 정리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음.
- 이번 현지조사에서 시간관계상 방문하지 못했던 사할린한인방송국에 문화재 관련 영상자료, 오디오 자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년 현지조사에서는 방송국 방문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사할린 내 한인 관련 고문서들은 쿠진(K.T. Kuzin)이라는 학자가 이미 저서로 발간했음. 대부분 역사에 대한 내용이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은 재검색 및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우즈베키스탄 현지 방문을 통해 그동안 기록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고려인 무형문화유산을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발견을 했다고 판단됨. 특히 이주 1세대가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시간 상 향후 몇 년 이내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임. 예를 들어, 조사팀이 전혀 알지 못했던 민요와 그 민요에 얽힌 사연들을 알아낼 수 있었음. 고려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때로는 모국어 표현이 자유롭지 않지만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잊혀 지지 않은 표현을 통해 과거 디아스포라의 문화를 재현해내고 있음. 짧은 방문 기간에 가능한 최대한의 무형문화유산을 수집하는데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향후 문화유산 관련 현지 조사는 보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번 연구조사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됨. 이점에서 이번 현지방문 조사는 향후 무형문화유산 발굴과 연구에 적지 않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됨.

## 2. 기록 자료의 보존·활용에 대한 정책적 제언

### 1) 기록 자료를 통해 어떠한 새로운 연구가 가능한가?

무형문화유산원의 무형문화관련 기록 자료를 수집 보관할 기능을 갖고 있다. 무형유산관련 연구는 무형유산원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수집의 정책과 연구의 경향은 일치될 해야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전승되는 무형유산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예술, 민속(의·식생활, 세시풍속, 통과례 등) 분야가 주로 전승되는 분야이며, 공예분야는 거의 전승단절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두 분야에 대해 공연예술은 영상자료로 기록물을 확보해야 하며, 민속은 보고서로 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특히 공연예술은 특정 예술가에 의해 새로이 창작되어 전승되기에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물이 소장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확보된 기록물로 국내의 전승실태와는 어떠한 점에 차이가 있는지가 연구의 쟁점이 될 것이다. 해외 전승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무형유산이 새로이 창출 되고 있는가 하는 연구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형유산원은 전승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면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민속분야는 고려인의 집단마을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형성되려는 마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데 민속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에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는 유관기관(아르코자료실, 독립기념관, 국가기록원 등)과 차별되는 자료수집정책을 세워야 한다. 국립기관으로 유사한 기관이 동일한 자료를 중복적으로 확보·소장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무형유산원이 초기에 올바른 기록물 수집정책을 정립하여 장래 많은 연구자가 자료를 활용하여 학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고려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고려인의 공연예술은 단순히 공연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오, 추석 등 명절이나 기념일에 야외에서도 실연된다. 따라서 단순히 예술로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고려인단

체가 주관하여 민요, 민속춤, 연극 등 보여주기에 고려인 예술단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북한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파견되어 예술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 예술을 수용하여 민족예술을 변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변형된 예술을 조선족이나 고려인에게 전승 보급 하였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는 북한의 영향력이 미세하기에 우리의 고려인이나 조선족에게 우리의 예술을 소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그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을 소개하여 그들이 감동하고 전수받기를 원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악원에서 지원이나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국악원의 본래 기능이 교육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무형유산원은 교육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을 활용하여 이들을 파견하여 전승에 기여할 수 있다.

해외교포나 한국인을 위한 공연예술의 지원은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되도록 현지의 지도자나 리더역할을 하는 예술가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대효과에서 파급력이 보다 크리라 생각된다.

### 3) 고려인들이 한국정부 혹은 민간단체에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내년은 고려인 이주 100주년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고려인단체에서 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기획하는 중요무형문화재 해외공연을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실시하여 고려인들에게 북한예술과 한국의 전통예술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연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본래 전승되던 민요나 탈춤등도 소개하면 효과가 크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들에게는 아직까지 한국과의 자유로운 왕래가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상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이고 변형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의 훼손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와 같은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아마추어 한국의 공연단이라도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게 하여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재청이나 대사관에서 주선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아마추어 공연단들은 적절한 공연장소와 관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갈망하는 고려인들에게는 고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 공연단들은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자비 또는 일부 국가

지원 형식으로 순회공연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국가와 민간, 교포와 본국이 윈-윈 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 고려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투자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 4) 고려인 문화·예술·스포츠 영웅관련 전시품 수집이 필요하다

소련 고려인 영웅, 중앙아시아 3국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 자료 수집이 시급하다. 1940년 이후 구소련 체제하에서 소련정부는 사회주의 영웅, 노동영웅 등 각종 영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고 1990년 이후 구소련이 붕괴하자 러시아, CIS국들은 독자적으로 전개한 각종 영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이들 국책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고려인들이 영웅 혹은 지도자로 선정되었다. 그 범주를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 정부 위원(부수상, 장관, 차관), 의회와 지방위원회 의원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기관의 주목할 만한 인물들
- 가장 특권적인 호칭과 수상 경력자(사회주의 영웅, 노동영웅, 레닌상 등)
- 다양한 학자들(아카데미 위원, 교수, 연구원 등)
- 교육기관의 지도자(교장, 교감, 담당자, 학과장 등)
- 학술기관의 지도자(소장, 연구소나 과의 지도위원)
- 국가의 산업, 재무, 농경과 개인적인 기업에서 지도자
- 스포츠맨(올림픽 수상자, 유럽 및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등)
- 국제 수상 경력이 있는 유명한 작가, 작곡가, 미술가, 오페라와 발레에서의 예술가 등.

이들 영웅 혹은 지도자들의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무려 2000여 명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치밀한 기록 및 전시품 수집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뿐 아니라 재외동포들에게 높은 자긍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인들에게 한민족의 우수성을 느끼게 하고 고려인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할 것이다.

#### 5) 고려인 개개인의 삶과 관련한 자료의 일괄 수집이 필요하다

위 4와 관련하여 고려인은 생전에 살아 있을 때의 자료를 사후에는 불태워버리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풍습은 기록 자료의 보존, 활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만난 몇몇 체보자들은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망하고 나면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했을 때, 대부분 자녀들이 불태울 것이라 대답했다. 이는 추후 그들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기록 자료가 어떻게 보존, 처리될지 매우 불투명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려인(특히 민간인)의 삶과 관련한 자료를 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사전 협의를 통해 일괄 기증 받아 그들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산발적으로 수집되는 기록 자료보다 훨씬 전시효과도 뛰어날 것이다. 따라서 고려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의 적극적인 수집이 요망된다.

#### 6) 무형문화유산 관련 개인 및 단체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고려인이 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산발적으로 전개되거나 특정 개인 혹은 단체에 쏠리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 및 단체가 있는 반면,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Korean Kazakhstan Culture Center’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 7) 고려인과 현지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고려인의 명절은 현지문화를 감안하면서 고려인과 한국인, 나아가 현지인(타민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고려인사회가 아니라 한국정부와 한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사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3국 행사에서 이들 세 가지가 세트가 된다면 좋을 것이다. 예) ‘고려인 문화의 날’ 행사에 한국인은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 8) 사할린 한인 문화와 고려인 문화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이뤄진 재소 한인 연구는 주로 한인 이주역사와 1937년 강제유형, 소련 붕괴 후 러시아로의 재이주, 민족정체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속학(문화인류학 포함)적인 면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 보존되고 있는 전통문화요소와 문화변용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사할린 한인들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이주하여 일찍부터 러시아화, 소비에트화 과정을 거쳤던 ‘고려인’과는 달리, 1940년대 러시아로 이주해 왔으며 196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소련 붕괴 전까지 한국어로 신문(‘레닌의 길로’)을 발간해 오는 등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와 언어를 고수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반도의 북쪽에서 이주해 간 고려인과 달리 한국의 중남부 지역에서 건너간 사할린 한인들은 고려인과는 다른 방언과 문화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할린 한인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할린 한인들이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문화요소들을 파악하고 새롭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할린 한인 문화와 고려인 문화의 비교는 동일한 국가에서 오랫동안 동화와 통합과정을 겪었던 재외동포 그룹들이 이주배경과 역사, 거주환경 등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변용과정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9) 고려인 관련 DB구축이 필요하다

기록 자료의 경우, 여전히 원본 상태로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많다. 가장 오래된 고려인 신문인 카자흐스탄 고려신문의 경우 이미 CD로 전환하여 보관과 전송의 질적인 면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러시아 극동 및 사할린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은 원본(종이)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추후 전송의 문제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열람의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기록 자료의 마이크로필름화, CD 복제, 파일로의 전환 등 문서의 디지털화가 시급하다. 더불어 빠른 검색과 다각적인 활용을 위해 기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역시 필요하다.

문화전승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지 언어로 된 동영상 제작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음식, 전통음악 및 예술전승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 파견과 교사의 장기상주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현지어로 설명이나 자막이 곁들여 있는 동영상 제작과 배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들의 노래에 대한 자료집에 몇몇 간행되었지만, 상당 부분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고려인들에게 전통 민요가 어떻게 전승되고 있으며, 문화변동에 따른 고려인들의 전통 민요를 어떠한 형태로 변개하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가에 대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고려극장의 소장 자료를 활용한 고려극장의 공연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932년 창립된 이해 지금까지 80년 가까운 역사를 갖는 고려극장은 연극, 가무 등의 다양한 장르를 공연했으며, 성악가, 작곡가, 무용수 등

당대 최고의 예술인이 거쳐 간 중요한 기관임은 분명하다. 공연사적 측면에서 고려극장에 대한 종합적인 학제간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는 고려인들이 전통적인 요소를 재생산하여 제작한 창작물을 비롯하여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러시아 문학을 연극 작품으로 구성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품에 대한 예술성 고찰 뿐 아니라 고려극장에서 활동한 고려인 예술단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창출해 낸 작품 내면에 담긴 정서와 정신 등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 10) 고려인 언론 및 각종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소한인 언론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다. 한인신문의 구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신문사의 홈페이지 개설과 그에 따른 광고 수익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문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직원은 대부분 한두 명에 그치고 있어, 한인 언론기관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년간 한국기관 혹은 학자들이 재소한인 언론기관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무단으로 자료를 사용한 바 있어, 현지의 한인 언론기관은 저작권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며 한국 측의 방문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사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근 신문 자료의 유료화와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소한인 언론기관들은 정기적인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한국 측의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바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고려인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고, 한국과의 소통도 잘 되어 있으나, 그 외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사물놀이를 배우고 싶어도 지도해줄 수 있는 교육자가 없고, 지원도 없는 상황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악, 한국의 대중가요 등을 배우고 싶어 하는 고려인들이 많지만, 노래를 배우는 데에 필요한, 악보·Tape 등의 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국악, 한국노래에 관심이 많은 고려인들은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열망하고 있다. 아울러 고려말 라디오 방송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

#### 11)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고려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의 적극적인 수집이 요망됨.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자의 파견이 절실하다

는 현지인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 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능 기부 형식으로 현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음악, 무용 등의 강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려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조차 모르는 사실을 조사 중에 알게 되었고, 이는 음악을 전공하는 조사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노래이다. 따라서 향후 고려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행사로 이어가야 한다.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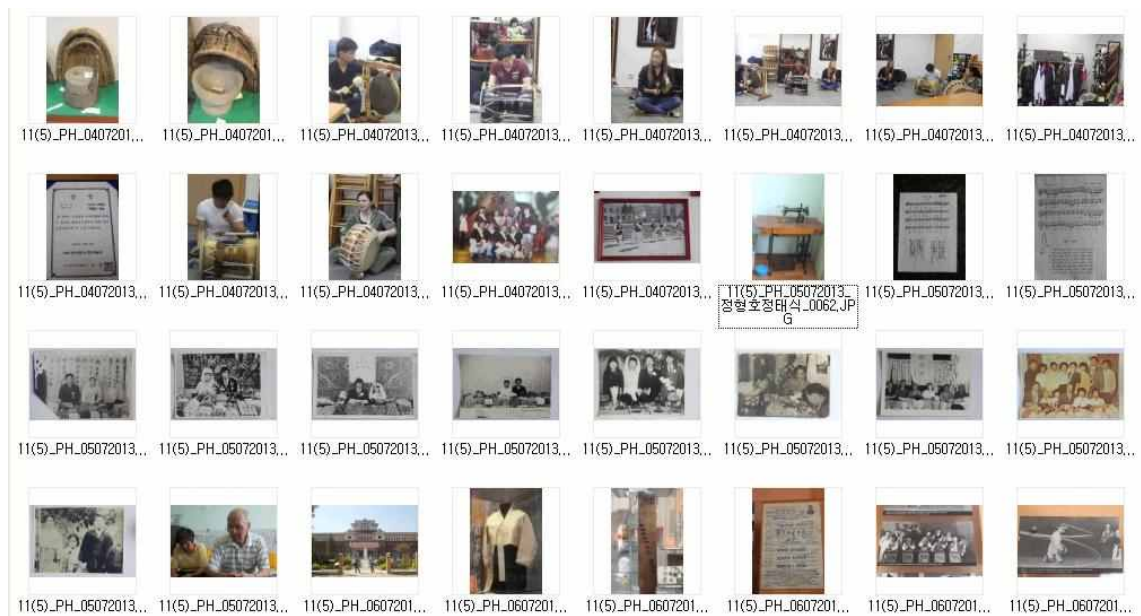
현지수집물, 대표목록 조사카드, 메타데이터

## 1. 유형별 수집물 수량

유형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영상	71개 (530분)	97개 (600분)	17개 (120분)	19개 (150분)	5개 (111분)
사진	272장	358장	262장	358장	90장
음성	23개 (500분)	18개 (350분)	8개 (100분)	12개 (599분)	11개 (490분)
실물	CD 4개 달력 1부 도서 7권 실물사진 2장	CD 5개 달력 1부 도서 6권	출산신고부 2점	CD 4개 신문 2부	도서 1권

## 2. 유형별 형태

### 1) 사진자료



## 2) 영상자료



## 3) 문서자료





#### 4) 실물자료



CAM00003.jpg



CAM00004.jpg



CAM00005.jpg



CAM00006.jpg



CAM00007.jpg



CAM00008.jpg



CAM00009.jpg



CAM00010.jpg



CAM00011.jpg



CAM00012.jpg



CAM00013.jpg



CAM00014.jpg



CAM00015.jpg



CAM00016.jpg



CAM00017.jpg



CAM00018.jpg



CAM00019.jpg



CAM00020.jpg



CAM00021.jpg



CAM00022.jpg



CAM00023.jpg

### 3. 기록지 항목수 및 작업공정률


[현장조사 자료]

분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 전통적 공연예술	37	51	9	62	18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	·	4	11
▸ 의학(민간요법),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1	·	5	3
▸ 구전 전통 및 표현	16	15	1	·	·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46	42	53	46	34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5	6	18	16	18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5	1	5	13
▸ 기타 기록유산	37	37	15	12	4
총 항목수 및 작업공정률	143 (100%)	157 (100%)	97 (100%)	146 (100%)	90 (100%)
	총 633 개				


#### 4. 대표목록 조사카드(자료조사카드)

##### 1) 전통적 공연예술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모란봉 예술단 연습	
	③자료번호	2_11(1)_SP_22082013_모란봉 예술단연습_0002	
	④형태		
	⑤재질		
	⑥분류	전통적 공연예술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주영일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1099871)290 24 71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조선문화전통<로인>협회 건물 내 1층 왼쪽에 마련된 연습장에서 무용연습을 하고 있는 -모란봉 예술단 단원 -모란봉 예술단:우즈베키스탄 노인협회 소속. 여자(처녀) 구성 전문 무용단, 북한식 춤, 14명 단원으로 구성. 음력 설날, 한식, 단오, 추석 공연/ 4월 봄축전 참가(4.7), 각종 축제 참가, 평양 초청 공연. 레퍼토리 다양 부채춤, 쟁강춤, 북춤, 장고춤, 소리꽃, 비둘기춤, 1주일에 3일 연습, 수시로 공연, 올해 평양 1달 반 공연/ 부채춤, 내사랑 하늘꽃, 칼춤, 소고춤, 오복춤 등(아박춤 없음)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중앙아시아 3국 중 가장 북한 정부와 왕성한 교류를 하는 단체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22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고려극장장 류 보피와 면담	
		③자료번호	2_11(2)_SP_19082013_류보피 와면담_0007	
		④형태		
		⑤재질		
		⑥분류	전통적 공연예술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류 보피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류 보피 고려극장 극장장과의 면담                      -과거 고려극장 무용수로 오래 동안 활동하였으며 예술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인 ‘인민배우’ 라는 칭호를 정부로부터 받음.                      -고려극장 관련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p>-고려극장 내부 구성원의 일원이었던 점, 공무원이라는 점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p>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19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아리랑 가무단
		③자료번호	2_11(4)_NE_01072013_아리랑가무단_0001
		④형태	신문
		⑤재질	종이
		⑥분류	전통적 공연예술-공연예술-예술단체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김 발레리아	⑭입수일	2013.07.01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협회 고려신문편집국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7-4234-33-37-47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김 발레리아 / 러시아 우수리스크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2004.03.03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활동하는 ‘아리랑 가무단’ 가무단이 한국 정기공연을 마치고 온 후, 단원들과의 인터뷰 한국방문기, 한국 춤을 추는 이유, 앞으로의 계획 등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김혜진	※조사일시	2013.07.01

## 〈자료 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고려 가무단 공연 사진		
		③자료번호	2_11(4)_IP_01072013_고려가 무단공연사진_0019		
		④형태	사진, 액자		
		⑤재질			
		⑥분류	전통적 공연예술-공연예술-예술단체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윤 스타니슬라브	⑭입수일	2013.07.01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우수리스크 노인단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7-4234-33-37-47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2006~2013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우수리스크의 고려인문화센터 내의 노인단 사무실에는 고려 가무단의 공연 사진 1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p>고려 가무단은 2006년 창단한 고려인 노인가무단으로, 우수리스크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한국 초청 공연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12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p>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1		

## 〈자료 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부채 춤(한국)	③자료번호	2_11(4)_SP_01072013_부채춤 한국_0023
		④형태	사진	⑤재질	
		⑥분류	전통적 공연예술-공연예술-무용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고려 가무단	⑭입수일	2013.07.01
		⑨성별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협회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정형호/러시아 우수리스크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2013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고려 가무단 단원들이 찬송음악에 맞춰서 부채춤을 연습 장면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주로 북한식의 부채춤을 추고, 최근에는 남쪽(한국)의 부채춤을 익혀 같이 연습한다.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1		


2)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디딜방아, 키 등
		③자료번호	2_11(2)_SP_19082013_디딜방아키등_0002
		④형태	액자
		⑤재질	
		⑥분류	의학(민간요법),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고려인협회 사무실 복도에 게시된 사진                      -현재는 남아 있는 않는 고려인의 생활양상을 알 수 있음                      -디딜방아에 곡식을 뺏기 위해 준비하는 여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음</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구체적인 소개가 없음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19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한인들의 어업 활동 Корейцы на рыбном промысле</p>		②명칭	어업
		③자료번호	2_11(4)_ET_02072013_어업_0031
		④형태	사진
		⑤재질	
		⑥분류	의학(민간요법),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어업-어업도구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⑧성명	김 발레리아	⑭입수일	2013.07.02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협회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7-4234-33-37-47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연해주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1800년대 후~1900년대 초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러시아 연해주 초기 정착 어민이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장면을 찍은 사진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1863년 시작된 한인의 이주는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까지 계속된다. 연해주 정착민 중에 어업에 종사한 한인이 다수 존재했다. ‘연해주어부’ 라는 한글신문이 발간되기도 한다.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2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체반
		③자료번호	2_11(4)_TO_02072013_체반_0056
		④형태	도구
		⑤재질	
		⑥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도구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전 알렉산드라(80)	⑭입수일	2013.07.02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정마을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떡이나 만두를 찢을 때 사용하는 체반 가마솥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체반을 올린다. 체반 위에 하얀 천을 펴서 떡이나 만두가 체반에 달라붙지 않게 한다. 체반을 사용하면 떡이나 만두를 물에 닿지 않게 찢을 수 있다.</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임장혁	※조사일시	2013.07.02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맷돌	
	③자료번호	2_11(5)_TO_04072013_맷돌_0007	
	④형태	도구	
	⑤재질	석재, 나무	
	⑥분류	의학(민간요법),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농업-재래농기구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⑭입수일	2013.07.04
⑨성별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사할린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초창기 강제징용된 한인들이 곡식을 갈거나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한 맷돌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4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민간요법
		③자료번호	2_11(5)_NE_05072013_음식_0014
		④형태	신문
		⑤재질	
		⑥분류	의학(민간요법),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민간요법-식물요법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배 빅토리아	⑭입수일	2013.07.05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사할린 새고려신문편집국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7-4242-43-59-80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성점모 /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1989.12.27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레닌의 길로’ (N. 247) 한인들의 민간요법 소개 (1) 두부에 체할 시, 고사리를 달여 마시거나 무쳐 먹음, 혹은 무즙이나 벼짚을 태운 잿물을 마심 (2) 떡에 체할 시, 무김치국이나 감주를 마시거나 옛기름과 무씨를 달여 마심</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김혜진	※조사일시	2013.07.05

3) 구전 전통 및 표현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소인예술단 위문공연
		③자료번호	2_11(1)_SP_20082013_소인예술단위문공연_0004
		④형태	
		⑤재질	
		⑥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온고콜호즈 아리랑요양원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998-71-148-0790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인근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단 -50대 정도의 장년층으로서 동호회 활동 정도의 수준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 08. 20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양상블 사랑 합창 연습
		③자료번호	2_11(1)_SP_22082013_양상블 사랑합창연습_0027
		④형태	
		⑤재질	
		⑥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장 옥사니아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양상블 사랑의 합창 연습 -45~83세 단원 25명 -서울의 찬가,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꽃마차, 아리랑(신민요), 뱃노래, 밀양아리랑, 노들강변, 갑돌이와 갑순이, 애국가 등 당일 연습</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 08. 22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강 안나 창가 채록		
	③자료번호	1_11(1)_SM_24082013_강안나 창가구술채록_0028-0034		
	④형태	동영상		
	⑤재질			
	⑥분류	구전 전통 및 표현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강 안나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온고콜호즈 아리랑요양원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998-71-148-0790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89세, 여, 강 안나 할머니 -무형문화유산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음 -민요, 창가의 경우 8곡 정도를 가사집 없이 부름 -인터뷰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창한 한국말 구사 -20일 조사에서 채록하지 못한 창가 채록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 08. 24	

## 〈자료 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아리랑 악보	
	③자료번호	2_11(5)_SM_05072013_아리랑 악보_0029	
	④형태	출력물	
	⑤재질	종이	
	⑥분류	전통적 공연예술-민요-유희요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정태식(82)	⑭입수일	2013.07.05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정태식이 소장 중인 아리랑 악보이다.                  상단에 ‘朝鮮民謠’ 라고 적혀있으며, 아리랑 가사에는 일본 카타카나가 음으로 달려있다.                  하단에는 1절~4절까지의 일본어 가사가 적혀있다.</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5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아리랑
		③자료번호	2_11(4)_NE_01072013_아리랑_0006
		④형태	신문
		⑤재질	종이
		⑥분류	전통적 공연예술-민요-유희요
		⑦크기(cm)	가로( ) 세로( )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김 발레리아	⑭입수일	2013.07.01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협회 고려신문편집국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7-4234-33-37-47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김 발레리아 / 러시아 우수리스크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u>동의 함</u>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2004.07.10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아리랑 악보와 가사 소개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김혜진	※조사일시	2013.07.01

4)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시락장국
		③자료번호	2_11(1)_SP_24082013_시락장국_0007
		④형태	음식
		⑤재질	
		⑥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한 블라디슬라프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온고콜호즈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시래기 혹은 금방 밭에서 뽑아온 배추에 뜨거운 물을 부어 살짝 대친 다음 일정 크기로 잘라 육수에 된장을 넣고 끓인다. 이때 반드시 돼지고기로 육수를 낸 물을 사용한다. 풋고추도 넣어넣고 삶은 돼지고기를 다시 넣음. 마지막에 두부를 넣어 완성함.</p> <p>-잔치, 생신 때 손님들에게 내놓음.</p> <p>-고려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장국을 끓일 때 반드시 돼지고기를 넣는 점이 특징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24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국시
		③자료번호	2_11(1)_SP_20082013_국시_0020
		④형태	음식
		⑤재질	
		⑥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한 블라지미르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온고쿨호즈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밀을 사용한 국수 종류로 면발이 쫄깃하고 닭고기로 육수, 주로 차갑게 먹음</p> <p>-오이, 토마토, 볶음김치, 상채 등으로 맛을 낸</p> <p>-홍고추, 소고기, 계란이 곁들여 올라감</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 08. 20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드비(두부)
		③자료번호	2_11(1)_SP_24082013_드비_0006
		④형태	음식
		⑤재질	
		⑥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⑧성명	한 블라디슬라프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온고콜호즈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u>동의 함</u>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물에 불린 콩을 방앗간에서 갈아 만든 요리                      -두부라 하지 않고 ‘드비’ 라 함. 요리방법은 우리와 다를 바 없지만 특이한 점은 김장을 담을 때 배추를 절인 물을 꼭 간수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                      -일상 밥상에도 많이 올라오지만 잔치 때 많이 먹음</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p>-김장을 담을 때 배추를 절인 물을 꼭 간수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p>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24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된장
		③자료번호	2_11(5)_SP_05072013_된장_0043
		④형태	음식
		⑤재질	
		⑥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일상식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정태식(80)	⑭입수일	2013.07.05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정태식의 가정에서 먹는 된장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임장혁	※조사일시	2013.07.05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국시기계
		③자료번호	2_11(5)_TO_04072013_국시 기계_0001
		④형태	기계
		⑤재질	철제
		⑥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도구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⑭입수일	2013.07.04
⑨성별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초창기 강제징용된 한인들이 사용한 국시기계로 손잡이를 돌려 국수를 뽑음. 국시는 혼례, 회갑 등에 빠지지 않는 음식 중의 하나임. 본 국시기계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 전시되어있다.</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4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김치통, 장통
		③자료번호	2_11(4)_TO_02072013_김치 통장통_0059
		④형태	도구
		⑤재질	플라스틱
		⑥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식생활-도구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전 알렉산드라(80)	⑭입수일	2013.07.02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수리스크 우정마을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김치와 장을 보관하는 통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옛날에는 항아리(독)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플라스틱 통에 김치와 장류를 보관한다.			
※조사자	임장혁	※조사일시	2013.07.02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복식에 대한 인터뷰	
		③자료번호	2_11(2)_SP_17082013_복식에 대한인터뷰_0006	
		④형태		
		⑤재질		
		⑥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김 아사 부부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고려인 문화의 날, 한국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이 날에 맞추어 부인은 한복을 입을                      -특별한 날(단오, 추석 등)에는 꼭 한복을 입는다고 함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함</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p>-지인을 통해 동대문시장에서 한복을 구입했다고 함                      -알마티 내에서는 직접 한복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아쉬움</p>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17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2012년 추석행사 사진		
	③자료번호	2_11(4)_IP_02072013_2012 년추석행사사진_0044		
	④형태	사진		
	⑤재질			
	⑥분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세시풍속-절기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김 발레리아	⑭입수일	2013.07.02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협회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7-4234-33-37-47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김 발레리아/우수리스크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2012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2012년 추석행사의 사진을 고려인협회 사무실에 전시되어 있다. 노래자랑, 떡만들기, 씨름대회, 공연 등의 사진이 액자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2012년 추석행사는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주관 고려인문화회관 앞에서 실시하였음. 고려인과 러시아인 합쳐 약 2000여명이 참여함.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됨. 씨름대회를 하며, 공연은 오후와 저녁 공연으로 나뉨. 단오는 노인들 중심 행사이지만, 추석은 고려인 전체 행사임. 연해주의 128개 소수민족 중에 타타르,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우크라이나 등의 소수민족이 참여함. 씨름은 경품을 걸고 실시함. 아리랑가무단, 기타 찬조출연 다양.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2	

5)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회혼례
		③자료번호	2_11(4)_NE_02072013_회혼 례_0001
		④형태	신문
		⑤재질	종이
		⑥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일생의례-회혼례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김 발레리아	⑭입수일	2013.07.02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협회 고려신문편집국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7-4234-33-37-47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김 발레리아 / 러시아 우수리스크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u>동의 함</u>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2006.06.08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는 전인수와 양 소피야 부부의 회혼례 가족들과 신랑신부측 증인 참석 결혼행진곡에 맞춰 부부는 행진하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 피로연에서는 부부가 첫 춤을 추면, 하객들도 나와 함께 춤을 춤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김혜진	※조사일시	2013.07.02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회갑연 사진1	
		③자료번호	2_11(5)_IP_05072013_회갑연 사진1_0037	
		④형태	사진	
		⑤재질		
		⑥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일생의례-혼례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정태식(82)	⑭입수일	2013.07.05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정태식/유즈노사할린스크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1969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정태식 모친의 회갑연 사진.</p> <p>1969년 쟈르노스크에서 모친(1909년생)의 회갑을 맞음. 집에서 했는데, 어머니와 가족들, 결의형제 등이 참석함. 결의형제는 한 마을에 가까운 여나쁜 명이 맺음. 잔치 음식 준비를 위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손을 도와 줌. 회갑의 음식은 일주일간 만들음. 동네의 한인들이 서로 품앗이를 함. 옛, 과일(쌀을 튀긴 것, 일종 한과), 과일(수박, 능금, 꿀 구입), 떡, 적(김치적, 파적). 명태, 사탕을 준비함. 사람이 많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춤. 밖에 천막을 치고 옆집 방 한 칸을 빌림. 오전, 오후 계속해서 손님이 번갈아서 찾아옴.</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5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혼례 사진1	
		③자료번호	2_11(5)_IP_05072013_혼례사 진1_0031	
		④형태	사진	
		⑤재질		
		⑥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일생의례-혼례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정태식(82)	⑭입수일	2013.07.05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u>동의하지 않음</u>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사할린에서의 혼례 사진.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한복에 면사포을 들었다.                  결혼식의 초례상에는 청실과 홍실을 준비하고, 암탉과 수탉을 올려 놓음. 혼인 잔치에는 돼지 1마리, 순대, 국시(국시기계를 손으로 누름)를 먹음. 두부는 콩을 맷돌에 갈아서 만들어 먹음. 시루떡, 쭉떡, 찰떡 등을 준비함. 콩나물도 있었음. 이곳에는 고추, 고사리 등이 있음. 1964년까지 떡메를 쳤음. 각 마을에 술을 만들어 먹었음. 결혼식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또한 이야기를 나눔.</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5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고려인 묘비	
	③자료번호	2_11(4)_NE_02072013_고려인묘비_0003	
	④형태	신문	
	⑤재질	종이	
	⑥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일생의례-장례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김 발레리아	⑭입수일	2013.07.02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협회 고려신문편집국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7-4234-33-37-47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김 발레리아 / 러시아 우수리스크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2006.11.09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19세기 후반 한인들의 집거지였던 우수리스크의 푸틸로프카 마을 내 공동묘지와 고려인 묘비</p> <p>공동묘지에는 정교 십자가와 함께 한문으로 쓰인 묘비 잔재, 한인들은 러시아 정교를 수용했지만, 한국 전통에 따라 장례가 치러졌음, 당시 젊은 한인 여성들의 무덤에는 값비싼 장신구와 의상을 같이 묻었기 때문에 몇 무덤은 도굴되어 있음</p> <p>* 사진: 옛 한인들의 우물 흔적, 한문으로 쓰인 묘비 일부(진주 출신 강씨의 무덤. 1861년 4월 10일 출생, 1915년 6월 22일 사망, 세 명의 아들과 다섯 명의 손자를 둬, 그러나 비석은 1924년에 만들어짐)</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김혜진	※조사일시	2013.07.02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돌잔치		
		③자료번호	2_11(5)_IP_05072013_돌잔치_0044		
		④형태	사진		
		⑤재질			
		⑥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일생의례-돌잔치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정태식(80)	⑭입수일	2013.07.05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정태식 가정에서 행한 돌잔치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임장혁	※조사일시	2013.07.05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고려인 공동묘지	
		③자료번호	2_11(1)_SP_23082013_고려인 공동묘지_0002	
		④형태	무덤	
		⑤재질		
		⑥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에바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현대식 고려인 묘지                      -주로 대리석으로 비석을 세우고 묘지 주변도 대리석으로 조성함                      -대개 부부가 함께 모셔지는데 타 민족과 결혼한 경우에는 남편 쪽의 풍습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위치에 따라 묘지 확보 비용이 다르며 조성 방식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게 나타남                      -민족별로 묘지 구역이 정해져 있음</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은 민족별로 공동묘지가 구분되어 있음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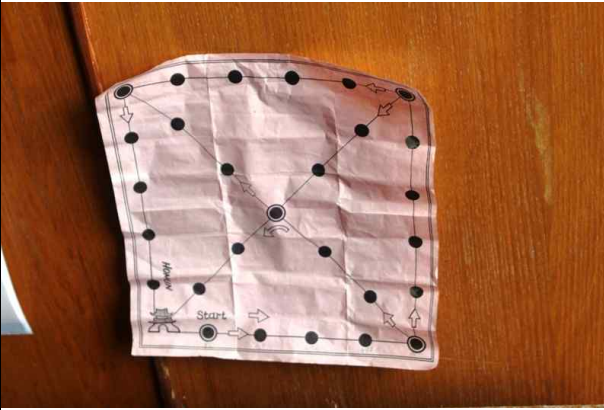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결혼식에서 축하인사하는 김 류보위	
		③자료번호	2_11(3)_IP_21082013_결혼식 축하인사_0002	
		④형태	사진	
		⑤재질	인화지	
		⑥분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김 류보위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고려인의 결혼 풍속을 이해할 수 있음</p> <p>-고려인은 결혼식 때 모든 하객들이 신랑,신부에게 꼭 축하 인사말을 하며 그 내용을 매우 중요시 여김</p> <p>-또한 결혼식에는 꼭 한복을 입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음</p> <p>-상에 차려진 다양한 음식은 고려인의 음식이 주를 이룸</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복식사,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임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21	




6)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윗판
		③자료번호	2_11(1)_SP_22082013_윗판_0035
		④형태	놀이도구
		⑤재질	종이
		⑥분류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노인협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윗판 -고려인들의 놀이문화를 파악해 볼 수 있음</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 08. 22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야유회 줄다리기	
	③자료번호	2_11(1)_SP_22082013_야유회 줄다리기_0033	
	④형태	사진	
	⑤재질	인화지	
	⑥분류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우즈베키스탄 노인협회에 있는 줄다리기 사진</p> <p>-고려인과 현지인이 어울려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 08. 22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고려인 체스놀이
		③자료번호	2_11(2)_SP_17082013_고려인 체스놀이_0018
		④형태	
		⑤재질	
		⑥분류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박 블라디미르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고려인 놀이문화의 변화양상을 읽을 수 있음                      -체스를 즐기는 남자 노인들                      -고리끼공원에 나와 자주 체스를 즐김</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17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고리끼 공원에서 춤을 추는 고려인들	
		③자료번호	2_11(2)_SP_17082013_춤추는 고려인들_0003	
		④형태		
		⑤재질		
		⑥분류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김 블라지미르 외 다수	⑭입수일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리끼 공원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고려인 문화의 날 행사장에서 러시아식 춤을 춤                      -한국의 전통적인 춤보다 러시아식 춤을 즐겨 춤                      -남여 구별 없이 상대를 바꿔가며 즐겁게 춤을 춤</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p>-한국의 전통적인 춤보다 러시아식 춤에 익숙한 느낌</p>				
※조사자	이승수	※조사일시	2013. 08. 17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화투	③자료번호	2_11(5)_TO_04072013_화투_0006	
		④형태	물품	⑤재질	종이	
		⑥분류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개인놀이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⑭입수일	2013.07.04	
		⑨성별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사할린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초창기 강제징용된 한인들이 여가시간에 사용한 화투이다. 종이로 제작된 화투패와 함께 플라스틱케이스가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 전시되어있다.</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정형호	※조사일시	2013.07.04			

## 〈자료조사카드〉

	자료(기록물) 정보			
	②명칭	해방절(축제)		
	③자료번호	2_11(5)_NE_05072013_해방 절축제_0004		
	④형태	신문		
	⑤재질			
	⑥분류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축제-한인주도축제		
	⑦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		
인적(입수자) 정보		입수 정보		
⑧성명	배 빅토리아	⑭입수일	2013.07.05	
⑨성별	남 / 여	⑮입수구분	기증 / 기탁 / 구입	
⑩입수주소	러시아 사할린 새고려신문편집국	⑯보존상태	훼손심함 / 훼손 / 양호	
⑪연락처	(☎)7-4242-43-59-80	⑰가치여부	상 / 중 / 하	
⑫제작자/지역	성점모 /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⑱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⑬제작시기	1989.08.18			
⑲특징(자료에 대한 부가정보)				
<p>8월 19일 열릴 예정인 44주년 해방절 준비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                      군중놀이는 달리기, 밧줄당기기, 조선민족옷 콩쿠르, 조선 노래와 춤 콩쿠르가 마련될 예정                      조선민족옷 콩쿠르는 아동, 35세까지, 35-50세, 50세 이상, 연령별로 이뤄질 계획이며, 패션쇼도 할 계획                      노래콩쿠르에서는 아리랑이나 풍년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유곡, 두 곡을 부르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임</p>				
⑳비고사항(조사자 의견)				
※조사자	김혜진	※조사일시	2013.07.05	

## 5. 메타데이터

■ 메타데이터 작업은 현지 실태조사가 수행된 순서대로 국가 및 지역별로 작성

■ 메타데이터에는 사진, 영상, 문서, 음성, 실물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

### [엑셀파일]

11(1)_PH_24082013_이승수/한블라디슬라프_0097	KBS<한국인의 밥상> 고려인 음식 소개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운고콜호즈	한 블라디슬라프	-고려인의 음식문화에 대해 이곳 요양원의 노인들로부터 많은 인터뷰를 함 -고려인의 음식문화에 대해 구술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음	기타 기록 유산
11(1)_PH_24082013_이승수/한블라디슬라프_0098	드비(두부)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운고콜호즈	한 블라디슬라프	-물에 푼 콩을 방앗간에서 갈아 만든 요리 -두부라 하지 않고 '드비라' 함. 요리방법은 우리와 다를 바 없지만 특이한 점은 김장을 담을 때 배추를 절인 물을 꼭 간수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 -일상 밥상에도 많이 올라오지만 잔치 때 많이 먹음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습관
11(1)_PH_24082013_이승수/한블라디슬라프_0099	시락장국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운고콜호즈	한 블라디슬라프	-시래기 혹은 금방 밭에서 뜯어온 배추에 뜨거운 물을 부어 살짝 데친 다음 일정 크기로 잘라 육수에 된장을 넣고 끓인다. 이때 반드시 돼지고기로 육수를 낸 물을 사용한다. 쫄고추도 넣어 넣고 삶은 돼지고기를 다시 넣음. 마지막에 두부를 넣어 완성함. -잔치, 생신 때 손님들에게 내놓음. -고려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습관
11(1)_PH_24082013_이승수/한블라디슬라프_0100	시운고 콜호즈 기록 자료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운고콜호즈	한 블라디슬라프	-타슈켄트 고문서 기록보관소에 소장된 고려인 시운고 콜호즈 관련 자료 -농작물의 재배방법 -점가한 구성원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기타 기록 유산
11(1)_PH_24082013_이승수/김명관_0101	세시풍속 인터뷰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운고콜호즈	김명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나 청각장애로 인해 장시간 인터뷰가 어려움 -기억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함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습관
11(1)_PH_24082013_이승수/강안나_0102	강 안나 인터뷰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운고콜호즈	강 안나	-여, 1924년생, 89세 -24살(1948년)에 결혼, 60년대 키르키스탄 비석리에 가서 살다 남편 사후인 2004년에 타슈켄트 돌아옴. -고려인 세시풍속, 일상의례, 민요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구전 전통 및 표현
11(1)_PH_24082013_이승수/박루마_0103	박 루마 인터뷰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운고콜호즈	박 루마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에 음식장사를 한 경험이 있어 고려인의 음식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고향인 고성으로 강상도 사투리로 유장한 한국어어 구사 -세시풍속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습관
11(1)_PH_24082013_이승수/_0104	아르마드 야사비(구 시운고) 노인 회관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운고콜호즈	-	-아리랑요양원 인근에 위치 -30~40명 수용 가능한 공간. 공사 중으로 내부 환경 파악 어려움 -인근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주로 하는 곳	기타 기록 유산
11(1)_PH_24082013_이승수/_0105	아르마드 야사비(구 시운고) 어린이회관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운고콜호즈	-	-아리랑요양원 인근에 위치 -마을 내 어린이들이 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곳 -공사 중으로 내부 환경 파악 어려움	기타 기록 유산
11(1)_PH_24082013_이승수/한블라디슬라프_0106	쿠일록바자르 쌀 판매장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 블라디슬라프	-고려인들이 재배하여 수확한 쌀이 판매되는 곳 -카자흐스탄의 쌀보다 찰기가 많아 인기가 많음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습관
11(1)_PH_24082013_이승수/김예레나_0107	쿠일록바자르 고려음식 판매장	이승수	2013. 0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김 예레나	-시장 내 고려음식 및 재료를 판매하고 있음 -정년 퇴임 후 연금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장사를 하게 됨 -고추, 시래기, 피망, 달걀, 말린 나물(고구마, 고사리 등), 상추 등 실수종류 판매하기 때문 -가족끼리 이루어 마트, 김장용 고추밭에서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습관

##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사업

---

발행일 2013년 10월 29일

발주처 국립무형유산원

시행처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Tel. 02.820.5231)

---

인쇄처 태웅그래픽(Tel. 02.2265.9948)